



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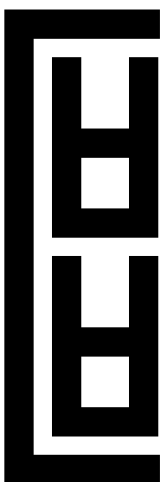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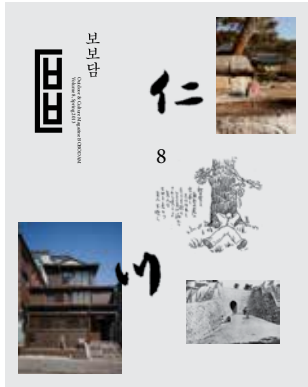


い

보보담

Outdoor & Culture Magazine BOBODAM
Volume 8, Spring 2013





〈보보담〉2013년 봄호(통권 8호)
Outdoor & Culture Magazine BOBODAM
Volume 8, Spring 2013

등록번호 용산바00030
등록일자 2011년 6월 27일
ISSN 2234-1102

발행인 : 구자열
발행일 : 2012년 12월 20일
발행처 : (주)LS네트웍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www.lsnetworks.com

자문위원 : 김윤수, 김화성, 안대회
제작 총괄 : 경영지원본부
총괄 : 안경한
담당 : 손호영, 전유니, 김지은

기획·편집 : 권기봉, 강시영, 오효영
디자인 : 헤이조(Hey Joe) www.hyjoe.net
사진 : 박정훈, 김도형, 김경태
번역 : 김재협(일본어)
인쇄 : 으뜸인쇄(02-2278-6387)

구독 신청 : 02-822-5114
기타 문의 : 02-799-7095
독자 의견 : bobodam@lsnetworks.com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봄 호를 읽고 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독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매호 다섯
분께 프로스펙스, 몽벨, 잭윌프스킨,
스케처스 등 LS네트웍스의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의견 보내실 곳
당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보보담’
혹은, 〈보보담〉이메일(bobodam@
lsnetworks.com)

당부
독자 의견에 당첨되실 수 있으니
의견을 보내실 때는 선물 발송에
필요한 ‘성함, 연락처, 주소’도 꼭 함께
적어 주세요.

구독 연장 신청 안내

〈보보담〉은 한정 부수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배송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
2013년부터는 매년 기존 독자들을
대상으로 구독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재구독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신규 구독 신청자들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기존 독자 분들 중
구독 연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구독 연장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는
별도의 연락 없이 배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지면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구독 연장 신청 마감
4월 27일(토)

구독 연장 신청 방법
당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보보담’
메뉴에서 ‘구독 신청-구분-연장’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장 신청 혜택
참여해 주신 기존 독자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LS네트웍스의
아웃도어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보담 답사 안내

2013년 봄 답사지는 ‘인천’입니다.
봄 호에 다루는 옛 제물포의
구석구석을 인천 지역사 전문가와
다시 걸으며 개항 130년을 맞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만납니다. 답사
중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니 봄 호를
꼼꼼하게 읽고 오시면 유리합니다!

신청 마감
4월 24일(수)

신청 방법
〈보보담〉이메일(bobodam@
lsnetworks.com)로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답사 일정
5월 11일(토) 오전 10시 인천역에서
시작, 오후 4시 답사 완료.

기타 사항
중식은 제공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답사 일정은 신청자들에게
메일로 개별 발송합니다.

LS Networks

〈보보담〉은 LS네트웍스에서 발행하는
멤버십 매거진으로 연 4회 발행됩니다.



위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제물포 포구 사진으로, 오른쪽 언덕 꼭대기에 들어선 영국영사관과 그 아래 해관(세관) 건물이
해변에 모여 있는 조선인 초가와 대비된다. 아래는 같은 위치에서 본 지금의 인천항 부두와 월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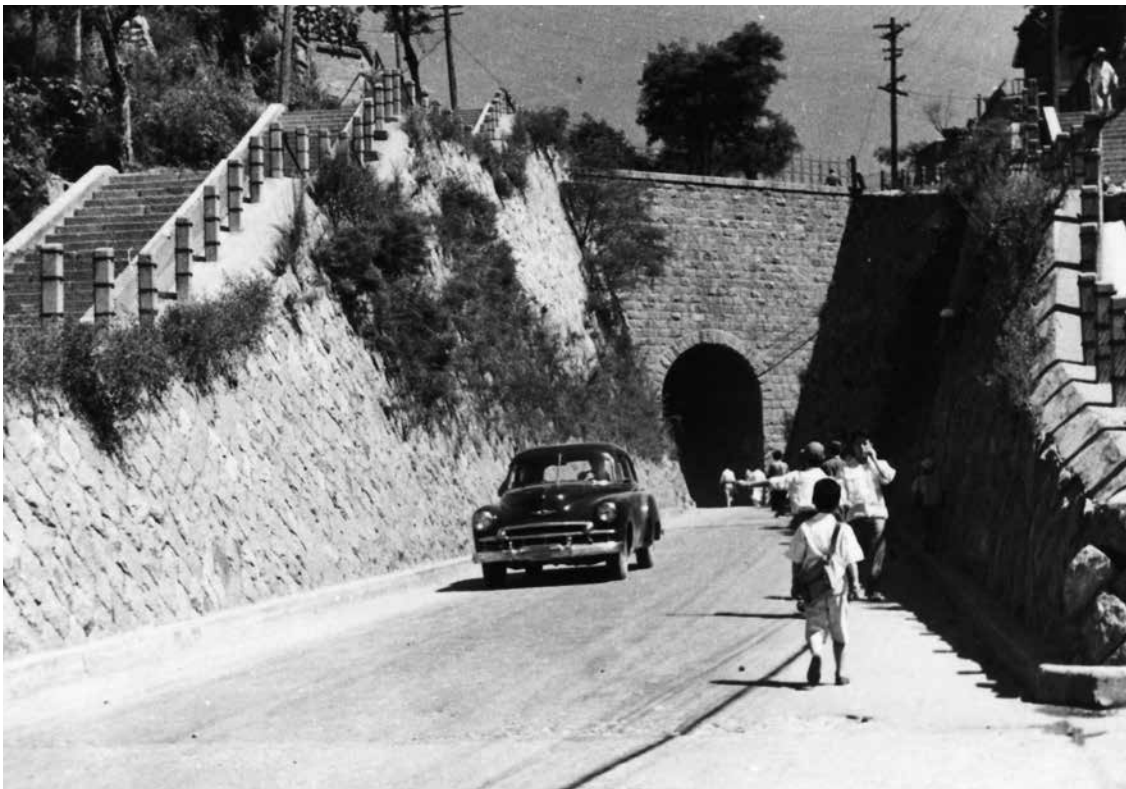
위는 축항(築港, 도크)으로 들어오는 기선. 개항 당시 인천 바다는 간만의 차가 심해 선박 출입이 어려웠고, 일본은 수탈을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7년의 공사 끝에 1918년 축항을 완공했다. 아래는 현재 인천항 갑문.

위는 1920년대 제물포보세 창고거리(지금의 중구 해안동) 모습. 아래는 근대 개항기 건물 및 1930~40년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자료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안동 인천아트플랫폼.



위는 개항당시 청일조계 경계지역 모습. 가운데 거리를 기준으로 왼쪽이 일본 조계, 오른쪽이 청국 조계였다(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아래는 비슷한 구도에서 본 지금의 청일 조계 경계 모습.

1884년 11월 우정총국과 함께 인천분국이 문을 열면서 한국의 근대 우편 업무가 시작됐다.
위는 1923년 준공된 인천우편국. 아래에서 보듯 오늘날까지 인천우체국 청사로 쓰이고 있다(중구 항동).



위는 1937년 인천부 본정(本町; 지금의 중구 중앙동) 일대 풍경. 사진 왼쪽 건물이 현재 중화루 자리이고, 사진 가운데로 보이는 폭이 좁고 긴 건물에는 한국 최초의 카페 ‘금파(金波)’가 있었다. 아래는 같은 구도에서 찍은 지금의 중앙동 일대.

위는 1908년 준공된 홍예문. 당시 항구 쪽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지금의 자유공원 너머 만석동 등지로 편하게 이동하고자 응봉산 언덕을 뚫어 만들었다. 공사에는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동원됐고 공사 중 흩더미에 깔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아래는 지금의 홍예문.



위는 1910년 경 월미도에서 본 제물포 전경. 왼쪽 언덕 위로 지금은 사라진 존스톤 별장이 보이고
서양 건물들도 꽤 많이 들어 섰다. 아래는 월미도 전망대에서 같은 구도로 본 지금의 중구 일대 전경.

근대 이미지 제공 : 화도진도서관, 사진 : 박정훈 / 참고도서 : 사진으로 보는 한국세관 130년 (관세청), 개화기 사진엽서를 통해 보는 인천항과 월미도 (인천항토사연구회),
「인천이야기 100장편」(조우성, 인아트), 「만국공원의 기억」(인천문화재단, 2006)

보보담

Outdoor & Culture Magazine BOBODAM

Volume 8, Spring 2013

Contents

Editor's Note	편집실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011
Column	정진홍 칼럼 길을 내며 걸어야 합니다	012
	김화성 칼럼 봄! 봄!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64
From Readers	독자 의견	

Site 1. 인천 仁川, 제물포 濟物浦

Reading the City	도시의 밑그림 제물포의 어제와 오늘, 그 사이를 걷다	020
Meeting People	인터뷰 보보담이 만난 인천 사람 6인	028
Going to Market	시장을 가다 ‘터잡이’들의 공화국, 신포시장	042
Trekking	마니산 트레킹 강화섬에 갔더라	052
Way back in the 18C	과객열전 인천 바다 신기루	064
Dictionary	인천 근현대사 주요 연표 인천 최초, 한국 최초	069 070
Image Clipping	제물포, 과거 vs 현재 이미지로 읽는 인천의 역사 박정희 할머니의 육아일기	001 073 121



p. 28



p. 50

Artist Project

김화용	예술가와 시장	086
이주영	“함께 걸으며 수도도 땀시다”	114

Feature

Art	누가 예술을 유희라 하는가 우현 고유섭	090
Sports	최장수 선수, 최단명 감독 인천의 슈퍼스타 박현식	098
Movie	영화가 인천을 소비하는 방식	104
Architecture	인천 건축의 두 장면 오션스코프와 팻알(Pot-R)	108



p. 089

Site 2. 일본, 야쿠시마 屋久島

At a Glance	한 눈에 보는 야쿠시마	127
Trekking	남쪽으로 튀어! 2박3일 야쿠시마 중단 트레킹	130
	미야노우라다케 트레킹 정보	145
	미야노우라다케와 함께 사는 사람들	146



p. 130

Village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 시라코야마[白子山]	148
Culture	자연이 낳은 또 다른 삶의 풍경 미타케[三岳] 소주와 삼나무 공예	156



p. 148

Bobodam Choice	미야노우라다케 트레킹에 필요한 옷과 장비	160
----------------	---------------------------	-----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3년 봄, 〈보보담〉의 동선은 달라졌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는 대신 한 지역을 좀더 오래 걸었고, 시간적으로는 그 지역의 현재를 낳은 배경을 찾아 ‘근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을 다니고 어느 날은 산에 올랐다가 또 어느 날은 문화 공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한 지역으로 닿는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로 접어들어, 계절마다 새로운 지역과 사귀려 합니다. 발길이 처음 향한 곳은 인천, 그 중에서도 한 때 ‘제물포(濟物浦)’라 불리던 지금의 중구 일대입니다. 그곳은 주체적인 개항이 아니었다는 쓸쓸한 기억의 공간인 동시에 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서, 중국 상하이나 일본 요코하마처럼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자 수많은 ‘최초’를 가진 한국 근대화의 시발점입니다. 개항 후 130년, 옛 제물포를 걸으며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과 쇠락, 재생이 공존하는 도시 인천을 만났습니다. 한편, 빨리 많이 보는 대신 낯선 곳을 천천히 즐기는 문화를 기대하며 해의 트레킹 켓지도 신선했습니다. 처음 소개드릴 곳은 일본 큐슈 남단의 가고시마에서 2시간 여를 더 남쪽으로 가야 닿는 섬, ‘야쿠시마[屋久島]’입니다. 7,200년을 살아온 삼나무를 만나러 갔지만 정작 감동적인 것은 해안가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서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사람과 사슴 그리고 원숭이들이었습니다.

인천과 야쿠시마의 친절한 이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인천연수도서관 박현주 님과 인천시사편찬위원이신 조우성 님께 낯선 도시 인천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많은 분들 덕분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관광지가 된지 20년이지만 여전히 사람이 가장 큰 자랑인 섬 야쿠시마에서는 매번 뜻밖의 친절들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늘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설레는 이유입니다.

달라진 〈보보담〉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인천으로 혹은 야쿠시마로 발걸음을 옮기신다면 〈보보담〉에도 꼭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 편집팀

길을 내며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길을 따라’ 삽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내 삶의 폭을 넓힙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갈 때도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바라던 곳에 이르고, 그곳을 떠나 내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길이 있어 내 목적지가 뚜렷해지고, 길이 있어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살이는 이렇듯 길로 엮이고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길이 있어 사람살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습니 다만 우리는 길이 있어 거기 사람들의 모듬사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아침마다 한강 둔치 길을 걷습니다. 그 둔치에는 걷는 사람들이 가는 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달리는 길,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따라 걷는 사람, 달리는 사람, 차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길이 없다면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길이 있어 비로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길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끔 도시의 좁은 뒷골목을 들어서서 거기 어디쯤 있는 밥집에도 들리고 술집에도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겨우 두어 걸음 넓이의 골목길을 끼고 다다다닥 집들이 빼곡한 모습을 보면서 ‘이 좁은 골목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먹자골목이 생겼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끼고 이렇게 집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았지 이 골목이 없었으면 여기 이 많은 먹자 집들이 생길 까닭이 있겠나!’

웁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길이 끝나면 사람살이도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한강 둔치의 어디쯤에 이르면 더 이상 길이 이어지지 않고, 따라서 사람도 자전거도 자동차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삶은 거기에서 닫힙니다. 어떤 먹자 집도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길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거죠. ‘인적미답(人跡未踏)의 숲 속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취가 하나도 없는 숲 속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그곳이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길이 없는 정황’임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그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고, 삶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실종’했거나, 아니면 어떤 ‘절망적인 방향’ 속에서 헤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일상의 공간’을 단절하고 만나는 ‘비일상의 공간’을 체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글: 정진홍
종교학자. 한국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며, 서울대 명예교수, 울산대 석좌교수,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로 있다. <종교학개론>, <종교문화의 이해>,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등의 책을 펴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은 삶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묘사하는 데서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있어 비로소 삶이 있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짧은 길이든 긴 길이든, 길은 사람의 모듬사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길을 밟아 헤쳐 삶의 공동체는 스스로 유기적인 실재가 됩니다.

사람이 있어 비로소 길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길을 주체로 하여 삶을 묘사할 때 가능한 진술이지 사람을 주체로 하여 길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있어 사람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있어 비로소 길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길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데, 길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길은 무릇 삶의 자취입니다. 삶이 낸 흔적이고, 삶이 일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끼고 마을이 생겼다든지 길이 있어 집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한 설명일 수가 없습니다. 삶이 길을 낸 것이지 길이 삶을 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길의 현존을 일컫는 옳은 묘사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려면 길을 내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있어 길을 낸 것이고, 모듬사리를 하려니 길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터득하여 길을 낸 것이 길이 있게 된 그 처음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길은 사람이 낸 것입니다. 이미 있는 길이 없지 않고, 그래서 주어진 길이 없지 않지만, 실은 그 모든 길이 처음부터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내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길을 처음 낸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길을 걸으면서 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내 앞에 있는 길을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일 까닭도 없고, 어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내가 삶의 주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길을 만나고 또 걷고 하다보면 그것이 내 이전에 살던 어떤 삶의 주체들에 의하여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어 이루어져 마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듯 내게 전해졌지만, 실은 철저하게 사람이 만든 것임을 새삼 터득하게 됩니다.

사람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길은 이러합니다. 길이 있어 사람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 더불어 살기 위해 낸 것이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기에 ‘길의 윤리’ 조차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낸 것이 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길이라면, 굳이 ‘길의 윤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내는 주체이고, 그러는 한, 우리는 그 길을 잘 내고, 바르게 걷고, 길이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나는, 길의 주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동양의 아득한 전통이 담고 있는 ‘길[道]’이라든지 서양의 마찬가지로 아득한 전통인 ‘길[ὁδός]’이 담고 있는 깊은 뜻도 그것이 온전히 사람살이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진지하고 겸허하고 깊은 사색과 경험이 빚은 최선의 것을 이룸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人道]’라고 해서

그것이 사람과 아무 관련 없이 사람에게 지워진 초월적인 규범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최선의 것을 일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늘이 마련한 절대적인 길[天道]이라 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옳음에 대한 갈망이 도달한 지극한 경지를 그렇게 일컬은 것이지 않다면 아무리 천도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도 절실하게 현실적일 까닭이 없습니다. 길은 사람살이가 장만한 것이어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 걸어야 할 현실성을 갖습니다. ‘호도스(hodos;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생명에 가 닿고, 또 진리에 가 닿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도 또한 ‘도’에서와 다르지 않게 바로 그 길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이미 그것들을 향한 길 위에서 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실감한 삶의 경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곧 길입니다. 그러므로 길은 내게 주어져 내가 좇아야 할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 내가 삶을 헤쳐 나아가면서 지어낸 내가 책임져야 할 나 자신의 규범입니다.

마땅한 길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길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오가면서 잔디와 풀을 밟으며 오솔길도 내야 합니다. 팽이로 깨트리고 삽으로 파면서 작은 길도 내야 합니다. 웅기종기 모여 사는 집들 사이에 좁은 공간을 마련하여 골목길이라 이름 짓기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장비를 가지고 큰 길도 닦아야 하며,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여 고속도로를 확 뚫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리도 놓고, 터널도 뚫고, 아껴야 할 것에 막히면 돌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길을 분수없이 넓혀서도 안 되고, 까닭 없이 지름길을 만드느라 훼손하는 것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길은 모름지기 아름다워야 하고, 또한 그렇게 쉬워야 합니다. 내 늙은 어머니도, 내 고운 아내도, 내 장한 자식도, 내 꿈인 손자도 스스로 걸어 자기가 이를 곳에 이르도록 해야 하고, 자기네 삶이 마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따라 살 뿐, 길을 내며 살지를 않습니다. 길은 만들어진 것임을 잊은 탓입니다. 그래서 그 망각 속에서 길을 내면서도 길을 내는 까닭은 되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음은 잃음에 이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길을 잃고 있습니다. 딱한 삶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 시인은 자기의 시 〈길〉에서 다음과 같이 길에 대한 자기의 영탄(詠嘆)을 마감했습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부분

이 시에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길 위의 우리 걸음을 ‘길의 윤리’에 맞춰 어찌면 얼마쯤 다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길은 삶이고 삶은 길인데, 이제는 내가 ‘잃은 길을 찾기 위해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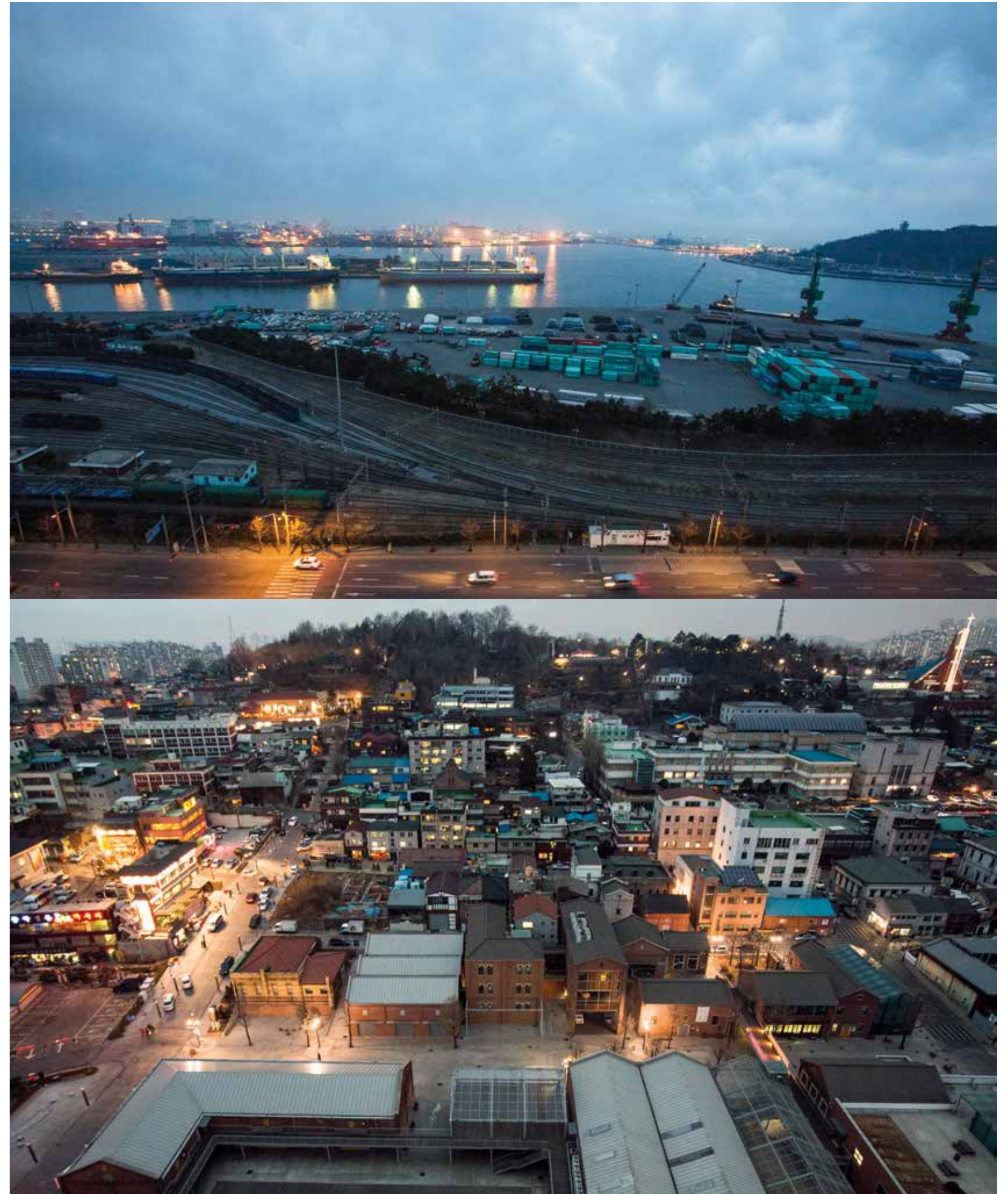
仁

황해를
품고
있는
도시

이

인천
仁川

인천을 부르는 이름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고구려 때에는 ‘물의 도시’나 ‘바닷가의 성’을 의미하는 ‘미추홀(彌鄒忽)’로 불리다 통일신라 때부터는 ‘소성(邵城)’,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경원(慶源)’이나 ‘인주(仁州)’로 불렸으며 조선시대 들어 비로소 ‘인천(仁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올해로 그 이름을 얻은 지 정확히 600년, 개항 후 130년이 흘렀다.





1 자유공원 自由公園 2 청일조계경계 淸日租界境界 3 관동교회 關東教會 4 팻알 Pot-R 5 차이나타운 China Town 6 인천 개항박물관 仁川開港博物館
7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8 인천항仁川港 9 인천우체국 仁川郵遞局 10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장 仁川開港場近代建築展示場

11 인천중구요식업조합仁川中區料食業組合 12 맥아더동상 13 구제물포구락부舊濟物浦俱樂部 14 인천기상대仁川氣象臺
15 홍예문虹鰓門 16 내동성공회성당仁川內洞聖公會聖堂 17 내리교회內里敎會 18 신포시장新浦市長 19 영화초등학교永化初等學校

제물포의 어제와 오늘, 그 사이를 걷다

오랜 세월 동안 인천의 중심은 황해에 면한 포구 ‘제물포(濟物浦)’였다. 그 중요성 때문에 제물포가 인천이라는 이름을 대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물포가 원래부터 번성했던 포구는 아니었다.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서울의 항도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제물포는 전혀 항구로 불릴 수도 없을 정도이다. 큰 선박과 전함이 놓여지는 ‘외항’이라는 것이 정박지와 다를 바 없고, 도시에 인접하여 한강어귀의 격렬한 조수 속에 있는 ‘내항’이라는 것은 한 번에 작은 톤수의 배 대여섯 척만이 이용가능할 정도다. (중략)남쪽과 서쪽 해안에서는 조수가 무려 7~11.6미터(!) 사이를 오르내린다.”

근대적 항구라기보다는 조그만 포구였던 제물포가 한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876년 들어서다. 한 해 전 여름 벌어진 ‘운요호 사건’과 그 결과로 맺어진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은 부산 외에 원산과 인천의 개항을 관철시켰다. 부산은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이유로, 원산은 동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고두보로, 그리고 인천 제물포는 수도인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기에 목록에 올랐다. 즉 인천의 개항은 조선 전체의 개항을 알리는 신호였다. 1883년 1월, 인구 70여 명의 한적한 어촌이었던 제물포는 그 문을 연다.

나라 안에 세워진 또 다른 나라, 조계

개항과 함께 제물포에는 각국 영사관들이 들어서고 항구 근처에는 조계(租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조계란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정한 치외법권 구역이다. 가장 먼저 조계지를 만든 나라는 일본이었다. 현재 인천 중구청이 있는 곳에 일본영사관을 포함해 중앙동과 답동 일대의 약 3만 제곱미터에 자리를 잡았다. 얼마 뒤 청국도 1만 6천여 제곱미터의 조계지를 만들었다. 이들의 흔적은 지금도 뚜렷이 남아 있다.

물론 일본과 청국의 조계지가 이곳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1899년 기존 조계지 앞의 개펄을 메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늘어나는 일본인들을 수용할 수 없자 신포동을 비롯해 답동과 선화동, 용동, 만석동, 화수동 등에 있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만수동이나 배다리, 화평동 등 주변부로 밀려났다. 청국 역시 지금의 내동 일대에 새 조계지를 만드는 등 청일전쟁에서 패하기 전까지 확장일로에 있었다. 1905년 기준으로 12,711명의 일본인과 2,274명의 중국인, 50여 명의 서양인들이 거주했지만 정작 조선인은 10,866 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외국인, 특히 일본인의 유입이 엄청났다.

지금의 인천 중부경찰서 맞은편 ‘제물량로 232번지 길’은 개항 당시 일본 조계와 청국 조계의 경계 지점이었다. 그 길을 중심으로 남동쪽에 일본 조계지가 들어섰고 당시의 여러 일본 은행 건물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경계 지점 북서쪽에 있던 청국 조계지는 오늘날 차이나타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화교들의 거점으로서 생명력을 이어가며 세계 어디서든 낙지생근(落地生根)하는 그들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제물포에 일본인과 중국인만 드나들었던 것은 아니다. 청일 조계 경계 계단을 따라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면 공자 석상을 지나 이내 ‘자유공원’에 닿는다. 응봉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공원 일대는 애당초 미국과 독일, 영국, 러시아 등 서양 각국의 조계지가 있던 곳이다.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다 보니 이름도 ‘공동 조계’ 혹은 ‘각국 조계’라 칭했다. 자유공원 자리에는 1889년 ‘각국공원’이나 ‘만국공원’으로 불리던 공원도 생겨났다. 말 그대로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조계지를 조금씩 떼어 만든 공원으로, 서울의 탑골공원보다 8년 먼저 조성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다. 공원 한쪽에는 ‘제물포구락부’라는 이름의 클럽도 설치해 사교장으로 활용했다. 1901년 완공한 이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해방 직후 미군 장교 클럽으로 쓰이다 한국전쟁 뒤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제물포구락부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조계와 함께 들어온 신문물

일본인과 중국인, 그리고 서양 각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들의 문화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1890년 지금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 일본 신화 속의 천조대신(天照大神,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과 메이지 천황을 주신으로 하는 ‘일본 신사’와 각종 일본계 사찰들이 들어서면서 일본 종교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 됐다. 문화 공연장들도 하나둘 들어왔다. 일본 조계지에 ‘인천좌’라는 상설 공연장이 세워진 것은 1897년, 지금의 사동에 ‘가부키좌’가 생긴 것은 1905년의 일이다. 이어 1909년에는 지금의 신생동에 ‘표관’이 들어서면서 일본 고유의 만자이(漫才)나 신파 연극들이 공연됐다.

청국 문화의 유입은 음식으로 대변된다.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음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짜장면이다. 제물포에 거주하던 청국인들은 대부분 산둥 출신으로, 일자리를 찾아 건너온 가난한 이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부두 일꾼이 많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원했다. 짜장면이 등장한 것은 그 즈음이다. 반찬도 필요 없고 다른 면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천히 불어서 노동자들의 한 끼 식사로 인기를 끌었다. 또 주로 청국인들이 채소를 갖다 팔아 ‘푸성귀 전’이라 불리기도 했던 시장은 오늘날 신포시장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서양인들은 그들의 제도를 가지고 들어왔다. 예전대 중구 내동에 성공회성당을 세운 뒤 성누가병원을 열어 의료 사업을 펼친 이는 영국 성공회의 코프(Charles J. Cofre; 한국명 고요한) 주교였다. 성공회 강화도성당이 서양식과 조선식을 절충해 지은 것처럼 성누가병원 역시 실내를 온돌방으로 만드는 등 한국적 특징이 돋보였다. 이 병원은 1892년 한 해 동안만 무려 3천5백 명의 환자를 돌봤을 정도로 조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병원장을 맡았던 미국인 의사 랜디스(Barr E. Landis; 한국명 남시득)는 한국 최초로 고아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제물포에 많은 애정을 쏟았지만 개항 후 8년째 되던 1898년, 향년 32세로 생을 마쳤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초등 교육을 실시한 이도 서양인이었다. 1890년대 초반 서울 이화학당에서 음악교사로 있던 마거릿 벤젤(Margaret Bengel)은 지금 중구 내동에 있는 내리교회에서 조선 여성들을 가르쳤고 학생수는 날이 갈수록 늘었다. 지금의 중구 창영동 영화초등학교 내에 있는 벽돌 건물 존슨관이 바로 1911년 영화학당이 확장 이전하며 지은 건물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수도 한양의 길목인 제물포에 상사를 차리고 영업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세창양행’이다. 이들은 당시 큰 인기를 끈 ‘세창바늘’ 등의 생활 잡화는 물론 각종 금속 제품과 약품, 염료, 화약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편, 인천과 서울마포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기도 하고, 광산 채굴권을 따내거나 아예 조선 정부에 거액의 차관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만만치 않은 규모를 자랑했다. 지금 자유공원에 맥아더동상이 서 있는 자리에 당시 붉은 기와로 지어진 인천 최초의 서양식 건물, 세창양행의 사택이 있었다. 그 건물은 일제강점기에는 도서관으로 사용되다 해방 뒤 인천시립박물관 부속 건물로 쓰였지만 인천상륙작전 때 폭격으로 사라졌다.

겉으로나마 평화로워 보였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 뒤였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청국 상인들이, 러일전쟁 후에는 러시아인들이 배척되었고,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905년 이후에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서양 각국의 무역회사들도 위축되었다. 동시에 ‘협동’이나 ‘대창’ 등 일본 자본이 점차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다. 일본 조계지 자리에 지금도 남아 있는 일본 제일은행이나 오사카 58은행, 나가사키 18은행 건물 등이 이를 방증한다. 그 은행들이 조선 정부를 비롯한 조선 재력가들의 돈을 갈취했다면, 곳곳에 들어선 전당포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통해 그나마의 경제력마저도 착취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경인철도를 놓은 것도 일본 자본이었다. 원래는 미국인 제임스 모스(James R. Morse)가 부설권을 따내 1897년 쇄뿔고개 언저리에서 기공식까지 했지만, 자금난에 물리면서 부설권을 일본으로 넘겼다. 일본은 1899년 제물포와 서울 노량진 사이 약 33킬로미터 구간의 경인철도를 완공했는데, 동원된 노동력은 거의가 조선인이었다. 1905년에 벌어진 러일전쟁 이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거래의 형식을 취하던 무역 관계도 노골적인 수탈의 양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전쟁 직후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맺은 일본은 더 이상 조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외교권을 박탈하고 강력한 권한을 지닌 통감을 두기로 한 상황이니 조선 땅 전체가 자신들의 것이나 다름 없었다. 각국공원의 이름을 일본신사가 있던 동공원에 대비해 서공원으로 바꾸는 등 지명 변경 작업도 병행했다. 또한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을 맺은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땅주인이 누구이며 전답의 면적과 소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거둬들이기 쉬웠을 뿐더러 이는 영구 지배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였던 것이다. 일본은 단순히 토지 조사 사업만 한 것이 아니었다.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반도 토지의 40퍼센트 가까이를 약탈하는 동시에 산미증산계획을 발표했다. 얼핏 듣기에는 수리 시설 등을 개보수해 곡식 생산량을 늘리자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쌀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 국내 사정을 호전하기 위한 수탈책이었다. 그 과정에서 만든 인천 미두취인소(米鈔取引所), 즉 미곡을 거래하는 시장이 선물거래도 허용함에 따라 전에 없던 투기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일부 돈을 버는 조선인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자본과 정보를 가진 일본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미두취인소를 기웃거리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빈털털이 신세가 되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토착 자본을 살살이 갈취해가던 인천 미두취인소는 해방 뒤에야 비로소 문을 닫았다. 현 외환은행 인천지점이 자리한 곳이 바로 인천 미두취인소가 있던 자리다.



수탈의 현장 중 압권은 인천 축항(築港)이었다. 기존의 제물포 시설은 조선에서 수탈한 쌀과 각종 물자를 일본으로 가져가기에 턱없이 부실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데다 개펄이 넓어 대형 선박을 접안하기 힘들었던 탓이다. 이것이, 일본이 1911년부터 7년 동안 아시아 최초의 갑문식 항구를 만들기로 결정한 이유다. 누군가들은 인천 축항이 조선에 근대를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조선인 노동력에 기반한, 궁극적으로는 조선 수탈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백범 김구도 축항에 동원된 수많은 조선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인천이 가진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포용력

물론 제물포가, 제물포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조선인들이 늘 무기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1939년 미국과 전쟁을 하던 일본은 제물포에서 멀지 않은 부평에 조병창을 세우고 각종 무기와 보급품을 만들어 전쟁을 치뤘는데, 그곳의 노동자는 역시나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그들은 무기 생산을 늦추기 위해 태업을 하는가 하면 무기를 빼내 민족해방운동단체에 넘겨주기도 했다. 앞서 1935년에는 노동 환경이 지극히 열악했던 부두 노동자 1천여 명이 총파업을 벌였고, 인천 내 19개 정미공장 노동자들도 노동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을 했다. 또 이들은 인천노동공제회와 인천노동총동맹, 인천소성노동회 등 노동 운동 단체들을 만들어 일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동일방직이나 대우자동차 등 1980년대 후반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도 다름 아닌 인천이다.

개항과 함께 몰려들기 시작한 일본인과 중국인, 또 다양한 서양인들과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경제개발 시기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이들과, 제물포를 위시한 인천은 한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다양한 인적 구성과 역사적 역동성을 보여온 도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도시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인 것과 동시에, 개항 이래 줄곧 서울을 바라봐 온 ‘해바라기’ 도시와 같은 성격 또한 지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인천시민의식 조사에서 ‘사정이 허락하면 인천을 떠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5.1%나 됐다.

지금의 사정은 많이 바뀌었을까? ‘사정이 바뀌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아직 힘들다는 게 인천 연구자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는 ‘제물포 개항장 문화지구’ 해제 논의마저 불거져 나온다. 고도제한을 풀어 개발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한 화답이리라.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학문 영역으로서의 ‘인천학’을 창조하자거나 시민 차원의 ‘인천사랑운동’이 일기도 하는 게 지금의 제물포이다. 그동안 헤쳐온 개항과 수탈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인천만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또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Meeting People



1950

“아침 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
매고 축항 공사장으로 출역을 간다.
흙 지계를 등에 지고 10여 장의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서대문감옥 생활을 회고하면
‘누워서 팔뚝 먹기’라. 불과 반나절
만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되었다. (중략)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다리를 올라갈
때 여러 번 떨어져 죽을 결심을 했다.
그러나 같이 쇠사슬을 마주 맨…
그자까지 내가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김구, ‘백범일지’ 중)



1923



1965



1959



1948



1958

개항의 역사를 따라 인천의 밑그림을 그린 뒤, <보보담>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 사람이 하나의 역사라는 데 동의하면서, 인천에서 삶의 대부분을 혹은 전부를 보낸 여섯 명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혹은 살아 온 인천에 대해 물었다.

글 : 임윤희
지역 문화와 풍물을 들여다보는 일과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듣기를 즐기는 자유기고이다. <뿌리깊은나무>에서 나온 인문지리서 <한국의 발견> 증보판을 내는 것이 일생의 목표다. 농촌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사)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사진 : 박정훈



1923년 서울 효자동에서 송암 박두성 선생의 둘째 딸로 태어나 열네 살 때 교동도가 고향인 선천을 따라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스스로 ‘불란서계 레이스’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 물론 물질적 풍요가 아닌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생활을 이르는 말한다. 1992년 한국점자도서관, 1997년 인천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주도했다. 1997년 제 17회 장애인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2001년 인천시문화상을 수상했다.

박정희

1923

꼬박 90년. 그이의 일평 생은 한국 근현대사의 생생한 기록이며 인천의 살아있는 역사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나 열네 살 때 선천을 따라 인천 울목동 25번지로 이사온 뒤 경성여자사범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인천 제2송림 보통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결혼, 해방,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1.4후퇴와 휴전 등등 격동의 한 세기를 꺾끗하게 버텼다.

“우리 아버지가 송암 박두성 선생이야.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한글 점자를 개발하신 분이시. 워낙 부지런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오니, 모든 게 낯설었어. 그래도 사람들은 순박하더라고. 모두들 먹고 살려고 무던히 애들 썼지. 일본 놈들만 활개를 치고 다니며 파티다 뭐다 요란을 떨었어. 자유공원에 ‘인천각’이라고 세워놓고 연회도 열고 댄스 파티도 하곤 했어. 나중에 벼락을 맞아 없어졌지.”

특히 평양의전 출신의 의사 유영호와 결혼하던 1944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몇 년은 그야말로 숨 가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결혼 후 평양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던 박정희 할머니는 해방 후 38선이 그어지고 이북에 러시아군이 들어오자 1947년 남편과 함께 목숨을 건 월남을 단행한다. 그리곤 터진 한국전쟁. 어린 두 딸을 데리고 피난을 갈 수가 없어 친정식구들만 보내고, 주인이 네 차례나 바뀌고 상륙작전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인천을 울목동 친정집에서 마음 졸이며 지켜봤다. 1.4 후퇴 때 평양에서 피난 온 시댁식구들과 피난에서 돌아온 식구들까지 도합 21명의 대가족이 한 울타리에 섞여 살던 시절의 고단함이야 말해 무엇할까.

그 와중에도 명애, 현애, 인애, 순애, 재룡 4녀 1남을 키우며 아이들이 태어나 한글을 읽을 때까지의 일들과 느낌을 기록했고 이 육아일기는 단행본으로도 세상에 소개돼 화제가 됐다. ‘너를 낳았을 때 아버지’, ‘너를 길러주신 외할머니’, ‘너를 업어준 창근이 아저씨’, ‘니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와 세계의 정세’ 등 아이들을 키운 그녀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간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과 인천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기록물로 인정을 받아 국가기록원에서도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

“동화책을 사러 갔는데, 죄다 계모가 정실 자식 구박하는 나쁜 이야기 뿐이야.

인간은 나쁜 건 안 가르쳐도 너무 잘 배우잖아. 그런 건 못 가르치겠더라고. 그래서 대신 읽으라고 써주고 그려준 게 육아일기야. 아이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더 없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아이들의 일상을 소중하게 기록한 거지. 하지만 ‘재쫓덩이’가 되라거나 유명해지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어. 그저 평범하게 살며 이웃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했던 거지. 그게 귀한 사람이거든.”

내 아이들뿐 아니라 남의 집 아이들까지 동화책처럼 아름답고 진실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도유치원을 세우고 20여 년 간 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박정희 할머니는, 67세의 나이에 수채화가로 정식 데뷔하며 또 한 번 화제를 뿌린다. 아버지 송암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작품 판매 수익금은 시각장애인 복지단체에 기부하며, 남편이 진료하던 평안의원을 개조해 ‘평안수채화의 집’을 연 뒤 지금까지 수채화 강의를 하고 있다.

“내가 그야말로 격동의 한 세기를 살아왔잖아. 힘들고 슬플 때도 물론 있었지. 그러나 지금 내 전 생애의 어느 한 순간을 똑 잘라 놓고 되돌아봐도 참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런 행복한 삶을 구십 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야. 어때? 부럽지?”

흔히 사람들이 인천사람들을 가리켜 ‘짬물’이라고 얘기들 한다. 바다에 연해 있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보다는 그네들의 기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으리라. 실제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객지에서 항구 도시로 모여든 이들은 그야말로 짬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우성도 철저한 ‘짬물’이다. 단순히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가 아니라, 속속들이 고향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다니며 누구도 관심두지 않던 향토사와 지역 문화를 수면 위 (전국 무대)로 끌어올린 ‘뱃속까지 인천 사람’이다.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모호한가?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1883년 개항 때를 생각해보자. 당시 인천항엔 서양 문물과 외국인들은 물론, 내국인들까지 그야말로 물밀듯 몰려들었다. 그런 인천을 두고 최익현 선생은 ‘도성의 인후(咽喉; 목구멍)’라고 표현했다. 그 기능을 감당하려고 여러 시설과 직업이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들고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가 설치되고, 호텔이 들어섰으며, 철도와 역이 생기고, 무기 공장, 제분 공장, 성냥 공장 등이 세워졌다.

당연히 인력이 필요했다. 그때 이미 인천은 출신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사람을 판단했다. 한자를 알면 우체부, 영어를 할 줄 알면 호텔리어로 쓰는 식이다. ‘인천러시’가 일어났다. ‘인천합중시(仁川合衆市)’의 출발이었다. 인천의 정체성은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 즉 다양성과 포용성과 역동성이다. 또 하나가 ‘프런티어 정신’이다. 인천 이민자 1호가 누군 줄 아는가? 바로 ‘비류’다. 고구려에서 권력 투쟁에 밀려나자 비류 왕자는 그 땅에서 2인자로 살지 않고 자기를 추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을 찾아나선다. 인천으로 유입된 이들도 모두 자기 터전을 과감히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개척자들이다.

인천의 지역사나 향토문화 등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해온 것으로 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시인으로 활동하다 1987년 〈인천일보〉 창간 때 문화부장을 맡았다. 자연스럽게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다루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지역에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한번은 어떤 강연에서 교육감이란 양반이 “인천은 3.1운동 때도 침묵으로 일관한 부끄러운 도시”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국립문서보관소,

독립기념관 등의 자료를 다 뒤져봤다. 그랬더니 1919년 3월 6일부터 인천 창영학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인천상업학교(현 인천고)를 거쳐 강화 읍내장터와 계양황어장터 등으로 번져나가 한 달 내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게 정말이냐”고 문의가 오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다보니 재미도 있고 욕심도 나더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자꾸 파고들었다. 여기저기 칼럼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자문도 해주고.

인천이 인천답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은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인천항을 통해 LNG가 들어오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사람과 문물이 넘나든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힘으로 세계를 향해 문을 연 진정한 개항이었다. 도로, 항만, 서울과의 근접성, 기후, 우수한 노동력 등 인프라는 시쳇말로 끝내준다. 게다가 다양성과 포용성과 역동성이 뒤를 받치고 있다. 인천 시민들은 그런 도시에 산다는 것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 주체적으로, 지역 문화예술과 사회 체험을 공유하며 공동체 의식을 싹틔워야 한다. 그게 발효가 되고 숙성이 돼서 승화되면 향토애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용자들의 도시 인천이 인천다워 질 것이다.



조우성은 1975년 시전문지 〈심상〉을 통해 등단했고 1987년에 창간된 〈인천일보〉 문화부장으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인천 역사와 문화를 발굴 소개하는 일에 힘을 쏟아 향토사 연구의 촉매가 되었다는 평을 듣는다. 각종 매체에 인천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인천의 여러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며 자문을 해주시기도 한다. 현재 〈인천일보〉 주필이자 인천시사편찬위원, 새얼문화재단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잡지 〈리뷰 인천〉을 발행하고 있으며, 〈인천 이야기 100장면〉, 〈간추린 인천사〉 등의 책을 펴냈다.



1974년 시작한 ‘아벨서점’은 40여 년을 버티오며 이제 배다리를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 되었다. 아벨서점에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여는 ‘시다락방’의 시낭송회나 도서 전시회뿐 아니라 근처의 ‘배다리포토갤러리’, 옛 인천양조장을 개조한 ‘스페이스빔’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이면 제법 많은 이들이 배다리를 찾는다. Kwak Hyun-suk은 헌책방 골목을 책과 낭만이 깃든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 은퇴한 이들이 전공을 살려 헌책방을 열고 손님들을 맞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아니한가.

곽현숙

1950

배다리 일대에 폭 50미터의 산업도로를 내고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마음 한편으론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매일 이삿짐 싸듯 헌책과 씨름하며 살아온 35년 여의 세월이 너무도 고단하게 여겨지던 시기였다. 솔직히 한때 40여 곳에 달하던 헌책방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며 경기도 예전만 못해, ‘나도 이젠 여기를 떠나 하나?’ 의문도 들었다.

“그러다 불현듯, ‘이건 아니지’ 하는 자각이 밀려들었다. 내 자신이 청춘을 묻으며 애먼글면 매달리던 삶터여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 거리가 인천의 역사와 자존심인데 그깟 도로에 자리를 내주는 게 옳은가 싶었던 거지. 비록 낡고 보잘 것 없어진 골목이지만, 이곳을 찾던 이들의 꿈과 추억의 흔적들마저 밀어버릴 순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2007년, 배다리 헌책방 골목 ‘아벨서점’ 대표 Kwak Hyun-suk은 ‘배다리, 우리가 지켜야 할 인천의 역사입니다’라는 피켓을 써들고 시청 앞 시위에 나섰다. 100일 동안의 1인 시위가 이슈가 되며 찾아온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식인들 앞에서 “이 땅은 버려지지 않은 땅이다. 아직 고일 게 남아 있는 땅이고, 우리 민족과 인천의 열이 서려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수줍기만 하던 그이의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준비되지도 않은 말들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자전거에 피켓을 싣고 40여 분을 달려가 펼치는 Kwak Hyun-suk의 시위는 2012년 2월까지 계속되었고, 배다리 산업도로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배다리는 인천 사람들의 그리움과 추억이 머무는 장소다, 인천을 지탱해온 문화와 인물들의 기상이 뚝뚝히 흐르는 공간이다.’ 이곳엔 민초들의 애환이 어려 있고, 시난고난한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그네들의 꿈이 배어 있습니다. 헌책방 역시 가난해도 버틸 수 없었던 배움에 대한 갈망의 산물이겠죠. 그런 진솔함이 있었기에 이곳에서 2년 여 헌책방을 운영하셨던 박경리 선생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고하셨을 겁니다. 서점 공간이 부족해 옆에 자리를 하나 더 마련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천장 구멍을 좀 뚫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드릴이 들어가질 않아요. 나무 조직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밀도가 높아져서 뚫을 수가 없는 거지. 헌책방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헌책을 유통하는 곳이 아니라 세월의 힘으로 단단하고 깊어진 영혼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Kwak Hyun-suk 대표는 못나고 잘나고 찌그러지고, 그게 다 내 모습이고 인천의 모습이며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요즘 세상은 너무 각 잡고 무게 잡으며 자꾸 ‘하이 칼라’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 사는 맛이 떨어져 지역에 대한 애착도 퇴색되게 마련이라며 좀 자유스럽게 가자고 제안한다. 아무나 부담 없이 찾아편히 쉴 수 있는 배다리가 그리움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다. 매일 쓸고 닦고 묶었다 풀기를 반복해도 말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벨서점의 헌책들처럼 말이다.

김영승

1958

‘58년 개띠’인 김영승은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1986년 계간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반성. 서(序)>외 3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시인의 삶은 유폐의 연속이었다. 연일 ‘88올림픽’의 성과를 이야기하던 시절, 개인은 철저히 소외되던 1980년대를 부유하며 그는 모든 허위를 까발리듯 시집 <반성>을 내놓았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 대신 냉소와 허무로 현실을 꼬집은 그의 첫 시집은 충격이었다. 자신들의 흠결을 박제된 윤리로 덮어가던 이들에게 그의 시집은 민중시보다 더 불온하고 치명적이었다. 결국 김영승은 한국 현대시 80년 사상 최초로 ‘외설’이란 족쇄를 차고 단두대로 끌려갔다. 그러나, 꽤넘치 않았다. 그런 게 마음 쓰일 정도라면 아예 ‘반성’ 따윈 하지도 않았을 터이다.

그렇지만 유폐의 시간은 꽤 길었다. 인현동, 유동, 용현동, 간석동, 구월동 등을 전전하는 고달픈 현실은 빈곤과 허무를 가중시켰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6만 원짜리 잠수함 같은 반지하방에서는 절망도 사치였다.

그럴수록 머릿속에선 수많은 언어들이 난마와 같이 얽혀들었다. 내뱉지 않으면 저들끼리 부딪고 얽히며 터져버릴 것 같은 일상의 언어들이 그렇게 정화되지 않은 채 각혈처럼 토해져 나왔다. ‘외설’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김영승의 천재성은 빛을 발했다.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어들어도, 의연히 잠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반성 764) 이유였다. 그는 시인이었다.

그런 그에게 인천은 한계이자 가능성이었다. 동서양, 남과 북, 해양과 대륙이 공존하는 인천은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너무도 쉽게 상징화가 이루어진 또 다른 박제였다. 인구나 산업, 문화, 규범, 성향 자체가 제각각이다보니(종게 말해 역동적이고) 정체성을 찾기 어려웠다. 한마디로 ‘뾰대’가 나지 않는 도시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천의 한계와 모순이 김영승에게겐 문학의 근원이 되었다. 그곳엔 회화화된 이미지로서의 ‘성냥 공장’도, 보존해야 할 역사적 가치로서의 ‘개항장’도, 개발의 상징인 ‘송도신도시’도 있다. 열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딸과 함께 연탄을 나르며 까맣게 웃고 있는 연탄배달부(반성 100), 월세집 계단을 청소하는 어여쁜 새댁(반성 99) 등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빈곤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들도 그려냈다. 그네들 모두가 가난하지만 자족하며 삶의 여유로움을 느끼는 인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비유와 상징이 아닌, 직설의 언어와 자지러지는 해학, 성적 욕망과 배설의 시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기던 시인은 “그러면서 나는 사기꾼이 되었다”고 자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운 투시력과 시적 재질을 지녔으면서도 모든 경제적 이념적 제도적 풍요로부터 소외당한 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백수”(최정례)는 “아마 앞으로도 오래도록 세상과 불화하며 삶의 압수를 무릅쓰고 예술적 순교를 실천할”(고종석) 것이다. 그는, ‘김영승’이니까.



김영승은 1980년대 현실을 특유의 해학으로 극복한 <반성>을 시작으로 <취객의 꿈>, <차에 실려 가는 차>, <아름다운 폐인>, <몸 하나의 사랑>, <권태>, <무소유보다 찬란한 극빈>, <화창>등의 시집을 냈으며 올해 아홉번째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 세상에 대한 저항과 정화의 욕망을 배설의 시학으로 그려내는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2002년에 제3회 현대시 작품상, 2010년에 제5회 불교문예작품상, 2011년에 제29회 인천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마임니스트이자 ‘극단 마임’ 대표인 최규호는 1978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도시들을 비롯해 일본, 유럽, 인도 등을 돌며 극장이나 스튜디오, 길거리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마임 공연을 해왔다. 특히 인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클라운마임 자선 공연을 많이 했고, 2001년에는 〈최규호의 마임 이야기〉를 펴냈다. 1995년 문화체육부장관상과 한국문예진흥원상, 2005년에는 인천연극제 특별상을 수상했다.

최규호

1959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고 심각했다. 모두들 잔뜩 인상 쓴 채 앞만 보고 나아가고 있었다. 저게 사람 사는 맛일까 싶었다. 옆에 있던 이에게 ‘툭’ 농담을 건네 봤다. 당연히 ‘별 실없는 놈 다 보겠네’, 돌아오는 싸한 반응. 환한 웃음 머금고 어깨 한번 ‘으쓱’ 해보이곤 돌아설 수밖에.

서울이 싫은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신촌이나 동숭동에서 연극을 했었다. 그런데 성에 안 찼다. 여기저기 집적대는 놈들도 많고, ‘지멋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큰 나라의 관리를 하느니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자’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 인천으로 내려왔다. 군대 가기 전에 이미 작업을 했던 중구 경동의 얼음창고를 제대한 후 곧바로 (닷새 만에) 다시 인수해 인천 소극장 1호 ‘돌체’를 개관했다. 1983년 7월이었다. 분장실이 따로 없어 피아노 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지만, 행복했다. 운영은 당연히 적자였다. 동료이자 아내인 박상숙 씨가 없었다면 어쩔을까 싶은 세월이었지만 포기하진 않았다.

‘마임’이 좋았다. 표정과 몸짓만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의미를 전달하고 감동을 이끌어내는 일은 너무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어려웠다. 좀 쉽고 재미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빼에로(익살꾼)를 끌어들었다. 클라운마임(Clown Mime)의 탄생이다. 거기에 마술, 외발자전거, 장대

타기, 저글링, 풍선아트, 접시 돌리기 등 가능한 건 다 집어넣었다. 마임계의 이단아로 찍혔다. 까짓, 굴하지 않았다. 웃음 속에 슬픔이 있고, 재미있고 가벼운 작품 속에도 얼마든지 인생을 담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풍자가 난무하고 위트가 넘쳐나는 가운데 교훈도 담고 인천 이야기도 간간이 끼워넣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여 ‘인천 국제클라운마임축제’를 조직해 올해로 벌써 18회째를 맞고 있다.

“젊은이들이 거침없긴 한데 시야가 좁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를 않아요. 안타깝죠. 한번 봐요. 지금 아이들 중에 엉엉 소리 내어 마음껏 울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바닥에 흐르는 정서가 없으니 공연을 봐도 감동을 못 느껴요. 인천을 대표하는 정서, 색깔,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주 앉아 말문부터 터야 하고,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공연을 하고 싶다. 주말 저녁, 고단한 삶에 지쳐 위안을 받으려는 이들로 가득 찬 ‘떼이뜨르 규호’. 자욱한 담배연기, 술잔 부딪는 소리, 심금을 울리는 재즈 선율...

확자한 카페 한쪽에 최규호와 배짱 맞는 농담꾼들이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최규호가 벌떡 일어서며

“여러분, 인천이 가장 먼저인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묻는다. (최규호에 스포트라이트) 손님들 대부분이 ‘이거 뭐하는 시추에이션?’ 하는 표정인데, 그의 친구 하나가 “짜장면~” 하고 외친다. “그렇지~” 최규호의 추임새가 이어지자, 어디선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쫄면.” 한다. “그렇지~. 근데 쫄면 안돼,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이어지는 너스레. 그다음부터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혹 끊기면 최규호 패가 ‘드립’을 쳐가며 술술 풀어낸다.

“성남공장(조선인촌회사), 야구, 사이다 (별포사이다), 등대(팔미도), 구두, 커피, 호텔(대불호텔), 서구식 공원(자유공원), 축구, 자동차 공장, 축구 전용 경기장, 배구 전용 경기장, 해군사관학교, 극장(협물사), 영화관(표관), 담배공장(동양연초회사), 기독교 포교지, 초등교육기관(영화학교), 보육원(해정보육원), 근대식 염전, 근대식 기상대, 근대식 정미소...”

한바탕 연극 같고 노래 같고 코미디 같은 작은 소동이 끝나자, 카페 안 사람들 모두 “아니, 인천이 최초인 게 이렇게 많았어? 우와, 대단한 걸~.” 감탄의 연발이다. 뭐, 공연이 꼭 무대에 조명에 객석 갖추고 표 끊고 들어와 마음 가다듬는 다음에 봐야 맞인가? (서서히 압전)

서현진

1965

서현진의 고향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면소재지인 백령도이다.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연평도와 함께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기도 하다. 본래 백령도는 황해도
장연군에 속해 있다가 해방 이후 경기도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그러다 1995년
3월 1일을 기해 인천시 옹진군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 백령도에서 나고 자라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인천으로 나왔다. 사실 섬에서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례 물으로 나오게
되고, 첫 번째 기착점은 대개 인천이기
마련이다. 그의 동기 120여 명도 대부분
물으로 나왔고, 섬에 남아 있는 친구라야
너댓이 고작이다. 그렇게 백령도를 떠난
서 대표는 인천에서 남편 김용섭 씨를 만나
서구 가정동에 보금자리를 틀고 남매
(대학교 3학년 딸과 고등학교 3학년 아들)
기르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에 처음 나와 본 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경기도민일
때죠. 다른 애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문화 차이나 뭐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섬 애들인데도 끼적끼하지
않고 예쁘다’고들 해요.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왜 요즘 개그콘서트의
‘촌스러운 남자’ 있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라.”

그가 인천에 와서 처음 느낀 건
혼돈이었다. 이북 사람부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젠 뒤편,
팔도강산이 따로 없다 싶었다. 애항심을
찾아보기 힘든 건 당연지사. 오히려 인천
토박이들 목소리 듣기가 힘들었으니
정체성이고 뭐고 따질 게제가 아니었다.

“인천 사람들 스스로도 특색이 없다고들
얘기 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고.
서울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긴 화력발전소가 너무 많아서
대기 오염이 장난이 아닌데, 사실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모두 인천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당수가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고, 오염이니 뭐니 피해는 인천 사람들
몫이죠. 인천에 있는 쓰레기매립지,
거기도 쓰레기의 반은 서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모르거나 심지어 외면하고
살았죠. 그런 거 얘기하면 구태의연하다고
손가락질도 하고. 애들은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애들 학교 과제 덕분에 처음으로 인천에
어떤 역사가 있고 문화재는 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찾아 봤어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인천에서 그의 최대
관심사는 ‘땅’이다. 다행히 검단신도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고, 송도신도시나
청라지구, 가정지구 등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어 다행이라는 게 그의 직업적
판단이다. 더불어, 서울로 나가지 못하면
뭔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고 대학도
무조건 ‘인 서울’ 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빨리 바뀌었으면 싶은 부분이다.



선을 눈앞에 둔 공인중개사 서현진의 진짜 바람은 빨리 경기가 풀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수험생인 아들이 대입 시험을
잘 치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남편이 건강한 몸으로 가족을 돌보며 돈도 많이 벌어온다면 금상첨화.
그런 ‘희망’이 있기에 살림하랴 자식들 키우랴, 부동산 일하랴, 바쁜 와중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며 웃는다.

시장은 다양한 삶의 층위에서
뻗어 나온 생존본능의
모세혈관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근육’이다. 일본 사진가
후지와라 신야[藤原新也]는
“시장이 있으면 국가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다. 국가가
꾸리지 못하는 일상을 에워싸고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라는 것이다.
시장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는 곳이다.



‘터잡이’들의 공화국, 신포시장

신포시장에 가기 위해 전철을 탔다. 인천행 기차를 잘못 타 의왕까지 갔다온다는 아주머니가 동네방네 전화로 하소연하는 소리가 잦아들고 전철이 제물포역을 지나자 객차 내에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대신 평균 연령은 쑥 올라간 듯했다. 이미 대부분 부친, 중동, 부평에서 내리고, 남은 이들마저 간석, 주안에서 내린 것이다.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3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인천이 1퍼센트 포인트도 채 안 되는 수치를 보인 것과 전혀 무관하진 않으리라.

푸성귀 전에서 신포국제시장으로

신포시장은 1926년 7월 1일 문을 연 인천 최초의 근대형 상설 시장이다. 이곳의 역사는 현재의 남구 도화동과 송의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중국인들이 신포동에서 재배한 채소를 내다 팔면서 시작했다. 이 중국 ‘푸성귀 전’에서는 당시로는 보기 드문 토마토, 피망, 연뿌리 등을 팔았다. 다른 시장보다 물건값도 비쌌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고급 물건들도 많았다. 손님들은 주로 일본 사람들이었고 드문드문 한국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다 일본과 중국이 지역을 갈라 상권을 형성했고, 그 틈새에 한국인들이 노점을 펼치면서 시장은 팽창했다. 신포시장은 1980년대에 이미 파를 손질하고 양파를 까서 팔던, 요즘으로 치면 인천 최고의 프리미엄 마켓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던 인천의 주요 관공서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이 쇠락하자 2000년에 지역 주민과 상인 60퍼센트가 거수로 동의를 표하면서 지금의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0년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시장 지원 대상이 되면서 ‘신포국제시장’으로 이름도 바뀌었다. 누구에게나 일상은 반복된다. 소리꾼이 목소리를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 매일 목을 다잡듯, 생활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좌판을 벌이는 게 시장의 일상이다. 그 물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시장이 북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장을 움직이고 변하게 만든다. 꼭 상인들만이 아니다. 손님도 그저 지나가는 이들도 모두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것이 사람이듯 시장을 완성하는 것도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글: 최성우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 디종대학에서
문화정책경영학을
공부했다. 복합문화공간
‘보안여관’의 대표이자
일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일상에서
문화의 맥락을 발견하고
연결하고 되살리는데
관심이 많다.
사진: 박정훈

신포시장의 역사를 연구하는 떡집 주인

시인 이종복을 만났다. 그는 2대째 신포시장에서 방앗간 ‘터진개 떡방’을 운영하고 있다. 1899년 제물포에서 노량진으로 마구 연기를 뿜으며 미몽을 벗어나 근대로 달려가던 한국 최초의 기관차가 이랬을까. 그는 역사의 혼령들 속에서 뛰쳐나온 의병 같이 인천과 신포시장에서부터 중국과 한반도 도처에 좌표를 찍어가며 지역과 역사의 연계성을 찾아내고 설명했다. 그에게 신포시장은 문화와 역사의 종자 같은 것이었다. 실제 인천과 신포시장의 뿌리를 연구하게 된 것도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원작으로 해서 공전의 히트를 친 같은 이름의 TV 드라마에 자극받은 바가 크다. 그의 영혼의 한 조각 같은 이야기들 속에는 인천과 신포시장이 태반이었다.

따로 또 같이, 백반 같은 동네 인천

40년도 넘은 신포시장 근처 백반집 ‘명월집’에서 그와 점심을 먹었다. 밥집은 널리고 널렸지만 의외로 소박한 밥집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양껏 퍼다먹는 김치찌개와 아홉 가지 반찬 하나하나는 이곳이 대충 한 끼 때우고 가라며 사람을 밀어내는 밥집이 아님을 말해줬다. 소설가 김훈은 말했다. “밥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만이 각자의 고풍 배를 채워줄 수가 있다.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백반이 딱 그런 음식이다. 내는 사람은 반찬마다 지역이나 계절 혹은 취향을 담아 놓고 먹는 사람은 각자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되니 매우 다문화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밥상이다. 이것은 인천의 모습과도 닮았다. 역사는 종종 단순한 팩트가 아닌 스토리가 동원되어야 분명한 실체로 다가온다. 점심을 먹는 동안 이종복 시인은 인천과 신포시장을 역사와 공간을 종과 횡으로 가진 모눈종이에 뚜렷하게 그려주었다.





“인천 인구 가운데 3대를 이어 살아온 토박이는 희박하다. 도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이다. 때문에 토박이 보다는 터잡이라고 말로 인천의 정체성을 찾는다.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터잡이’. 인천의 역사는 터잡이들의 역사다. 인천의 냉면과 쫄면의 역사에는 1931년 시작된 한국 최초의 제분 산업이 있고, 그 뒤에는 전 세계 최대 밀생산지라는 중국 산시[陝西]성이 있다. 그곳에서 한국으로 오는 최단 거리인 인천에 제분 공장이 들어선 것이다. 신포시장의 흥망성쇠 뒤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부평 자동차 공장 뒤에는 일제병참기지 제2조병창이 있었다. 한국 최초로 아스팔트가 깔린 길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최초 카페 금파가 있었다.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의 패권을 알아야 신포동에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신포시장에 인천 최초의 사설 시장으로 문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종복)



신포주점의 모든 의자는 등받이가 없다. 작년까지 신포주점을 운영했던 주인 할머니가 손님들이 오래 앉아 있는 꼴을 보지 못해 모두 바꿔 버렸다. 그 사이에 딱 하나 방석 깔린 등받이 의자가 있는데 강세원 선생 전용석이다. 들어서는 손님마다 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다. 어떤 이는 성계를 사들고 와서 드시라며 내밀었고, 또 어떤 이는 일본식 어묵의 일종인 ‘기꾸와’를 사들고 왔다. 강세원 선생은 해군첩보대(VDT) 등에서 인천상륙작전에 개입했고, 인천에서 항만 사업을 하며 ‘인천의 클락케이블’이라 불렸던 인물이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새우젓 안주 삼아들이키던 대포 한 사발

신포동의 옛 이름은 ‘터진개’였다. 동네가 바다 쪽으로 터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근대의 ‘모던 보이’ 문학 청년들이 신포시장 대포집에서 한바탕 술자리를 벌이고 바라본 서해의 낙조에 감탄했던 것이 감성적 허상만은 아니었다. 지금은 매립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신포시장 앞은 바다였다. 시장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백항아리집, 신포주점 등 여러 주점이 성업을 했지만 지금은 신포주점만 남아 있다. 백항아리집은 한국전쟁 직후 문을 열어 1960년대 말까지도 전기 없이 카바이드 불을 켜고 영업을 했다. 처음에는 구루마꾼, 지게꾼, 시장 상인들이 많이 찾았지만, 점점 인천의 문화인들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도시의 주변을 떠도는 이들이 날새우젓에 약주한 양재기들이키던 백항아리집도 1990년대에 문을 닫았다. 마지막 남은 대포집, 신포주점을 찾아갔다가 매일 오후 4시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는다는 강세원 선생을 우연히 만났다. “추운 날 시장 상인들이 백항아리집에 가서 글라스에 소주 한잔씩 마시고 김치 하나 집어먹고 장사하고 그랬어. 그 사람들 전부 다 갔어. 이제 나만 남았어.” 그는 92세의 나이에도 그는 꼴꼴한 자세와 말투로 신포 시장의 어제를 반추했다. “이마트가 호랭이 똥값을 주고 신포시장 건물을 사서 마트를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짓고, 다른 데 가서 지은 지 벌써 10년이야. 신포시장 손님은 전부 외지인이고 인천 사람들은 이마트에 가서 장을 봐.” 그는 신포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집어주었다. 신포주점 단골들은 단지 매장된 기억과 잊혀진 시간을 복기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것이 아니다. 술집이 부유하는 자들의 일시적인 커뮤니티라면, 신포주점에서는 매일 ‘끝나지 않는’ 일시적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현재를 함께 살아내고 있다.





신포시장 내노포(老鋪)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잿물을 넣어 반죽한다던 튀김우동과 장어튀김이 유명한 신탄진, 2대째 화교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양화점, 산동만두 공갈빵, 경인면옥, 그리고 이종복 시인의 터진개 떡방 정도이다. 그 가운데 1946년에 문을 연 경인면옥을 찾았다. 함원봉 사장은 지금도 매일 점심으로 물냉면 세 곱배기를 먹는다. 아흔 셋인 그의 노모는 한국전쟁 직후 냉면 장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점심으로 냉면을 드신다. 한때는 인천냉면 맛이 좋다고 해서 서울 한라들이 경인선 기차를 타고 냉면 여행을 올 정도였고,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배달 주문이 더 많아서 자전거에 냉면 목판을 싣고 배달을 했다. 걸어서 배달할 땐 “한 손에 냉면 10그릇이 놓인 목판을 세 줄로 쌓아서 들고, 다른 손에는 육수 주전자를 들고” 했다. 기록을 보면 1930년대 즈음에는 기차를 이용한 대량 주문 배달도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 냉면을 주문하면 자전거로 배달을 해줬다는 흥미로운 일화도 들린다. 하지만 그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기억이 달랐다.

문화는 엇갈림 속에서 진화한다

제 스스로 시작하지 못한 우리의 근대는 ‘모던 보이’ ‘모던 걸’ 들이 ‘판스’를 추면서 서구의 현대성을 추구하는 것이 열패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믿던 시절이었다. 제대로 된 근대인이 되지도 못하고 어느 틈에 현대인이 된지도 모른 채, 우리는 무리를 해서 벗어나려다 낯선 곳에 도달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어떤 이에게 신포시장 닭강정은 밥집 남자 사람이 생닭집 여자 사람을 사랑해서 매일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닭을 산 것이 시작이고, 어떤 이에게 닭강정은 중국 푸젠[福建]성의 ‘간풍기[乾烹鷄; 건팽계]’가 한 단계 발전한 인천의 터잡이 음식으로 문화인류학의 맥락 속에 있다. 기억과 기록은 엇갈리고 그 외중에도 문화는 생겨난다. 기업형 대형마트가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것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이틀 동안 필요한 것들을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미리 사두고 재래시장에는 점점 발길을 끊는 것은 아닐까. 위무성 정책에 생존을 담보로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고 자라야 할 터인데, 신포시장이 그 시간을 잘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애잔하다. 인천의 특산물이라는 민어는 100% 외지의 항구에서 오고, 제주 감귤막걸리는 포천에서 만든다. 포항의 과메기용 콩치는 러시아에서 수입해 부산항을 거쳐 포항에 도착한다. 전국 대부분의 사찰 앞에는 나물 좌판을 펼쳐놓은 할머니들이 계시지만 그 나물 가운데 국내산을 찾기는 힘들다. 대부분은 트럭 아저씨들이 할머니들에게 조직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인사동이 민속 장터처럼 변한지 오래지만 편하게 손이 가는 한국 물건은 없다.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한 물건을 만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시장이긴 하다.

“신포시장 번성기에는 손님이 많았지. 그때는 여기가 서울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동인천역에 내려 송도나 월미도를 가는 길목이라 경인면옥도 장사가 잘 됐어.”

“지금은 매출이 반으로 줄었지, 신포시장은 1970년대부터 사양길이었으니까. 1980년까지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는데 법원과 중구청이 옮겨가면서 급격히 몰락했어. 지역 인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신포시장도 한때는 패션 거리로 유명했지...” (함원봉)



봄이 탕탕 불어 터졌다.
금방이라도 젖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이 산, 저 산, 온통
젖몸살을 앓고 있었다. 살갗에
닿는 햇귀가 따사롭고 아늑했다.
강화섬을 걸었다. 강화들판엔
아지랑이가 자꾸만 꼬물거렸다.
마치 올챙이가 떼를 지어
오물오물 하늘로 거슬러 오르는
듯, 시야가 살짝 어찔어찔했다.
천지가득 여린 봄 비린내에 속이
기분 좋게 메스거렸다.



강화섬에 갔더라

논두렁 흙은 이미 말랑말랑 촉촉했다. 하지만 바람은 아직 알싸했다. 조선 토종 마늘처럼 매운 바람꽃이 가끔 뺨을 후려쳤다. 얼얼했다. 이른 봄, 네 사내가 마니산을 올랐다. 성군관대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와 대학 2학년인 그의 큰아들 순형 군, 그리고 강호의 신화학자 김원익 박사와 나. 참고로 나와 김 박사는 같은 공장 출신. 네 살 터울로 내가 위, 그가 아래인 형제다.

전등사 대웅전 기둥에 얹어놓은 곰삭은 그리움

만사 제쳐놓고 전등사(傳燈寺)부터 들렀다. 대웅보전의 ‘별거벗은 여인 조각상’은 여전히 우스꽝스럽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지붕 네 귀퉁이를 떠받치고 있는 4개의 나부상(裸婦像). 여인들은 그들끼리 수다를 떨며 한 세상 ‘끄떡없이 잘만’ 살고 있었다. 봉황이나 봉새의 거창한 뜻을 모르면 어쩌랴! 재잘재잘 참새의 삶이 천만 배 재미있는 걸!

옛날 도편수께서 / 탄 사내와 달아난 / 온수리 술집 애인을 새겨 /
냅다 대웅전 추녀 끝에 새겨 놓고 / 네 이년 세세생생 /
이렇게 벌 받으라고 한 / 그 저주가 / 어느덧 하이얀 사랑으로 바뀌어 /
흐드러진 갈대꽃 바람 가운데 / 까르르 / 까르르 /
서로 웃어대는 사랑으로 바뀌어 / 거기 잘 있사옵니다
고은, <전등사>에서

푸하하! 하지만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도편수인가! 요즘 세상에 이만한 사내가 또 어디 있을까. 죽어라 대패질, 망치질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주주집 주모에게 맡기는 어수룩한 사내. 다른 사내와 눈 맞아 줄행랑친 주모를 이제 와서 복수해보겠다고 벌거벗겨서 부처님 도량에 새겨놓은 천하의 숙맥. 과연 그 여인이 ‘세세생생’ 그 무거운 대웅전 지붕을 떠받들고 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편할까. 아닐 것이다. 도편수는 언젠가 그 여인이 돌아오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리워서, 어쩌면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어쩌면 가슴이 먹먹해서 그렇게 새겨 놓았을 것이다. 그렇다. 사랑은 결코 고행이다. 집착이다. 대웅전 나부상도 ‘글자 없는 경전(無字天書)’이다. 사랑은 결코 천년만년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풀잎 이슬 같은 것이다. 도편수의 사랑은 한순간에 미움이 되고, 그것은 또 삭고 삭아 곰삭은 그리움이 되었다.



전등사는 정족산의 삼랑성(三郞城) 안에 있다. 삼랑성은 단군의 세 아들 부여 부우 부소가 쌓은 2.3km 길이의 성이다. 전등사는 일주문이 따로 없다. 삼랑성 남문과 동문이 곧 일주문 역할을 한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조선군 양현수 대장(1816~1888)은 바로 이 남문 동문에 300여 명의 포수를 나눠 배치했다. 11월9일 프랑스군 160명이 두 성문으로 공격해오자 일제 사격을 퍼부었다. 적군은 사망 6명, 부상 60여 명의 흔적을 남기고 퇴각했다. 조선군은 전사 1명 부상 4명뿐이었다. 프랑스군은 40여 일 만에 강화섬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강화 행궁 외규장각 등을 불태웠다. 의궤류 300여 권을 약탈하여 나폴레옹 3세에게 바쳤다. 정족산성 안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족보가 불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전등사 대웅보전 나부상은 모두 연꽃대좌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은 4개 모두 다르다. 대웅보전을 마주보고 섰을 때 오른쪽 앞 귀퉁이 나부상은 왼쪽 손으로만 지붕을 떠받들고 있다. 심각한 울상이다. 굳게 다문 입,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통방울 눈. 뭔가 빠져리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다. 오른쪽 뒤 나부상은 오른손바닥 하나만으로 지붕을 떠받들고 있다. 잔뜩 화난 표정이다. 이는 악물고, 눈은 부릅떴다. 눈썹은 꼳꼳하다. 왼쪽 앞의 나부상은 앞 뒤 모두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다. 즐거운 얼굴이다. 이 정도야 누워 떡먹기라는 듯 ‘헤~’ 웃고 있다. 입 꼬리가 위쪽으로 약간 올라갔다. 눈은 술 취한 듯 몽롱하다. 코는 위로 들쳐져 구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왼쪽 뒤 나부상은 아예 깔깔대고 있다. 양쪽 입 꼬리가 쭉~ 올라갔다. 눈은 ‘용용 죽겠지’하며 동그랗게 뻗다. 영락없는 장난꾸러기이다.





‘한 손으로 얹힌 쇠덩굴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우거진 잡초를 헤치며 가는데, 기괴한 바위와 우람한 돌들이 화를 내는 듯, 혹은 사람을 잡아챌 듯한 모습으로 우뚝우뚝 서 있다. 가파른 작은 길과 굽은 오솔길로 절벽을 따라가기도 하고 낭떠러지를 등지고 가기도 하였다. 더럭 겁이 나고 가슴이 조여, 부쩍 두려워서 오를 수 없을 것 같다.

드디어 산꼭대기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니 푸르스름한 빛과 호탕하게 드넓은 기운이 안개인 듯 안개도 아니고 구름인 듯 구름도 아니면서 하늘과 더불어 안팎이 따로 없고, 동남방에 넘실거리며 아스라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곧 바다였다.’

1799년 4월 1일 조선 문신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마니산기행(摩尼山紀行)’에서, 심정호, <산문 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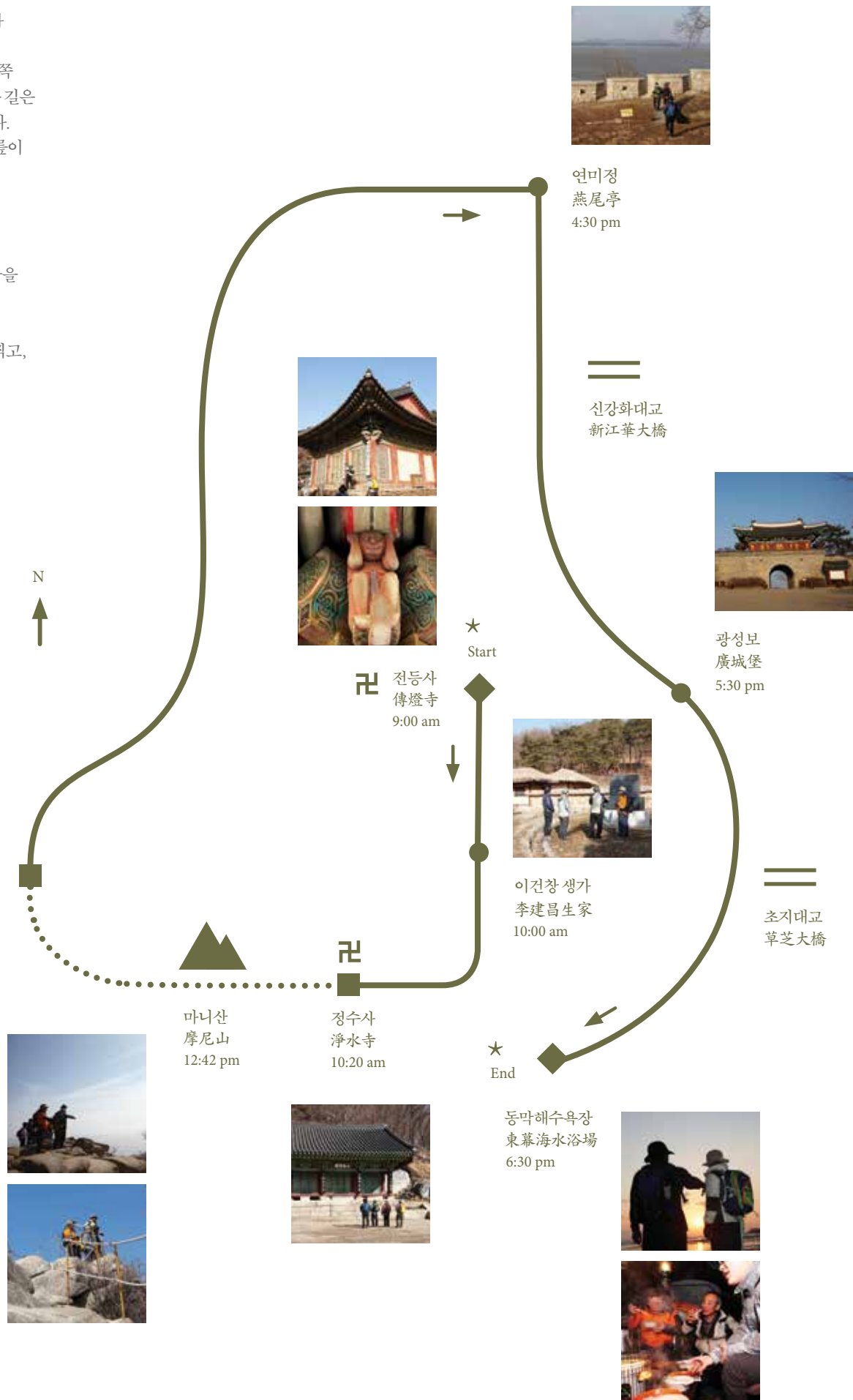
한반도의 머리이자 명치, 마니산을 오르다

강화 정수사(淨水寺)에서 마니산 오르는 길에는 바위가 켜켜이 쌓여있다. ‘작은 공룡 뼈 능선’이다. 밧줄을 잡으며 오르는 곳이 제법 많다. 물과 하늘의 경계가 흐릿하다. 수평선에 잿빛 물감이 풀어져 범벅이 됐다. 하얀 목등뼈를 즈려밟으며 오른다. 저만치 하늘가엔 단군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塹城壇)이 반공중에 걸려있다. 우두둑! 뼈 바스리지는 소리. 발바닥이 아슬아슬, 오금이 저린다. 안 교수는 높은 곳은 딱 질색이다. 숨이 차고 땀이 폭포처럼 흐른다. 다행히 그의 곁엔 장비 같은 아들이 떡 버티고 있다. 설마 472.1미터 높이쯤이야. 안 교수도 대학 시절엔 지리산을 메주 밟듯, 바람처럼 다녔다 하지 않았던가. 등 뒤 발아래엔 거무튀튀한 개펄이 녀장거리로 누워있다. 열은 황사가 내려앉아 바다가 막이 낀 듯 희끄무레하다. 쪼글쪼글 갯물길이 잎맥 같다. 아기들의 푸른 실핏줄 정맥처럼 퍼져있다. 영락없는 허파파리 갯골이다. 그 너머엔 섬들이 점점이 떠 있다. 왼쪽부터 영종도,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동만도, 서만도.... 신도, 시도 뒤엔 용유도가 허리를 늘어지게 빼고 있다. 장봉도 저 너머엔 덕적도가 아득하다. 등 뒤 안교수의 숨결이 거칠다. 좀 쉬어야 한다. 김 박사와 순형 군은 무척처럼 쉼쉼하다.

마니산은 강화섬에서 가장 높은 ‘머리산’이다. ‘마리(摩利)’는 ‘머리’ 즉 ‘으뜸’을 뜻한다. 마니산은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간지점에 있다. ‘한반도의 머리’가 마니산인 것이다. 그만큼 성스러운 곳이다. 일부에선 마니산을 ‘한반도의 명치’라고도 부른다. 명치가 막히면 사람은 기가 막혀 살 수 없다. 마니산 참성단은 휴일엔 수만 명이 찾는다. 온갖 신흥 종교의 도사들 발길도 붐빈다. 그만큼 기(氣)가 세다. 왜 바위덩어리는 기가 썰까. 명상가들은 ‘그것은 바위 끝단 때문’이라고 말한다. 송전선의 끝단 전압이 가장 높은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땅도 마찬가지이다. 내륙보다는 해안 쪽이 기가 더 세다. 한반도 남단인 전남 경남 제주 사람들이 기가 세다고 불리는 이유다.

마니산 참성단은 정수사나 함허동천 계곡을 통해 올라야 제 맛이 난다. 반대쪽 상방리매표소에서 오르는 길은 편하지만 계단이 너무 많다. 지루하다.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프다. 정수사, 함허동천 어디서 오르든 1시간 30분 거리이다.

10시22분에 정수사주차장을 출발해 12시42분 마니산 참성단에 닿았다. 정확히 2시간 20분 걸렸다. 사진 찍고, 바다 구경하고, 느릿느릿 쉬다 놀다, 나무늘보처럼 봄과 텅굴며 환관 신나게 어우러졌다.



한국에선 강화도마니산의 에너지가 가장 세다. 마니산은 화강암 덩어리다. 단군이 왜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지 짐작이 간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마니산 자기장 회전수는 65회나 된다. 46회전인 함천해인사 독성각보다 훨씬 세다. 청도 운문사 (20회전), 팔공산 갯바위(16회전)와는 비교가 안 된다.

강화도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딸각발이 선비 같다. 세태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 인천사람들의 개방성과 정반대다. 말씨도 인천과 다르다.

- 안녕하시까? (안녕하십니까?)
- 그래시까? (그랬습니까?)
- 사셨시까? (사셨습니까?)
- 다녀오시까? (다녀오십니까?)
- 얼마니까? (얼마입니까?)
- 있으니까? (있습니까?)
- 정말이까? (정말입니까?)

‘~까?’는 강화 말씨 끝에 붙는 의문형 어미다. 어서 오시겨(어서 오십시오), 기시겨 (계십시오), 그러시겨(그러십시오), 주시겨(주십시오) 등의 ‘~겨’도 그렇다. 그래서여 (그랬어요), 해씨여(했어요), 가씨여(갔어요)의 ‘~여’도 독특하다. 없시다, 그랬시다, 모르갓시다의 ‘~다’는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하셨시다(하셨습니다), 하이다(합니다), 가이다(갑니다), 허가씨다(하겠습니다)에 이르면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주말, 마니산 참성단은 명동이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 와중에도 저마다 사진 찍느라
북새통이다. 네 남자도 소사나무
곁에서 '인증샷'을 날린다.



참성단은 앞쪽은 네모지고
뒤쪽은 둥글다. 전방후원형
(前方後圓型) 무덤을 닮았다.
참성단 오른쪽 앞에는 소사나무가
돌 제단을 조자룡처럼 지키고
있다. 소사나무는 살결이 하얀
자작나무과로 조선 토종이다.
회갈색 껍질에 줄기가 구불구불하다.
만고풍상을 겪은 매화나무 등걸
같다. 돌 제단만 덩그러니 있었다면
얼마나 밋밋했을까.
세찬 바닷바람에 일곱 가닥 줄기가
검게 부르텠다. 키 4.8미터, 뿌리
둘레 2.74미터, 나이 150살.
천연기념물 502호. 나라가 인정하는
수문장이다.





세 개의 강이 모여서 피운 꽃, 강화도

한강, 임진강, 예성강은 강화도 앞에서 황해와 몸을 섞는다.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강과 임진강은 경기도 교하(交河)에서 몸을 섞고, 그 물은 다시 흘러 연미정(燕尾亭) 앞에서 예성강과 만난다. 이곳이 바로 조강(祖江) 즉 ‘할아버지강’이다. 할아버지강은 아버지 한강, 어머니 임진강, 손자인 예성강을 모두 품는다. 그래서 조강이다. 연미정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세 강물이 흘러내리다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곳에 있는 정자다. 세 강이 합쳐진 물은 한줄기는 서해로, 한줄기는 강화해협 염하(鹽河)로 흘러든다. 그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 같아서 연미정이다. 북쪽 바다 건너엔 황해도 개풍군이 아련하다. 코앞엔 한강의 무인도 유도(留島)가 있다. 강화도는 ‘할아버지강(한강+임진강+예성강) 아래에 있는 섬’이란 뜻이다. 원래 ‘강하도(江下島)’가 어느 순간 ‘강아래 꽃섬(江華島)’이 됐다. 강화섬은 한양도성의 목젓이다. 신라 때 ‘혈구진(穴口鎭)’으로 불렸던 것도 그런 이유다. 이곳이 무너지면 서울이 위험하다. 한강 물길을 타고 그대로 한달음에 쳐들어갈 수 있다.

수(帥)자 깃발에 얹힌 핏빛 역사, 광성보에 서다

강화섬은 해안을 따라 톱니바퀴처럼 7진 5보 53돈대가 자리 잡고 있다. 돈대 2~3개가 모이면 ‘보(堡)’나 ‘진(鎭)’이다. 광성보는 1871년 신미양요 때 조선군과 미군이 치열한 백병전(白兵戰)을 벌였던 곳이다. 물살 세기로 이름난 손돌목 바로 코앞에 있다. 손돌, 광성, 용두 3돈대로 이뤄졌다. 당시 조선군은 대장 깃발인 ‘帥(수)’기를 빼앗기며 옥쇄했다. ‘帥’자 깃발은 2007년 136년 만에 미국이 장기 대여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가로 세로 4.5미터 크기의 광목. 광성보에 서서 100여 년 전 거의 맨손으로 맞섰던 선조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 만약 그때 미국에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면 어찌됐을까. 일본에 침탈당한 것보다는 조금 나았을까. 후훗! 부질없는 가정일 뿐. 제국주의의 본질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가 다를까.

1871년 신미양요 때 조선군과 미군이 혈전을 벌였던 광성보. 미군의 함포 사격에 초지진이 백없이 무너지고 6월 11일 아침 덕진진도 무너지자 남은 조선군은 광성보에 집결했다. 어재연 장군(1823~1871)과 그의 동생 어재순(?~1871)이 이끄는 조선군은 이곳에서 48시간 혈전을 벌였다. 미군은 함포 사격으로 광성보를 초토화했다. 미국 해병대는 비 오듯 총을 쏘며 돈대성곽을 공격했다. 당시 미군의 블레이크 중령은 “남북전쟁 때에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포화와 총알을 쏟아 부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군은 용감했다. 단 한 명도 항복하지 않았다. 무기가 없으면 돌과 흙을 집어 던졌다. 최후 순간에 일부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100여 명의 병사들이 염하 손돌목에 몸을 던졌다. 조선군 350여 명이 죽었다(미군이 확인한 시신 기록 243명). 어쩔 수 없는 부상자 20여 명만이 포로로 잡혔다. ‘어재연 장군은 칼이 부러지자 남 탄환을 던지며 싸웠다. 하지만 끝내 적의 총검에 난자되고, 머리가 잘렸다.’(황현, 『매천야록』). 미군은 매키 해병대 중위와 수병 2명이 죽었고 6명이 부상했다. 미군은 후에 “조선군 병사 4~5명이 ‘帥(수)’ 깃발을 지키려고 온 몸에 꿰뚫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진엔 흰옷 차림의 조선군 시체가 즐비했다. 조선군들은 그 더운 초여름에 하나같이 두꺼운 면갑(綿甲)이나 종이로 된 지갑(紙甲)을 입고 있었다. 면갑은 무명 30장을 겹쳐서 만든 방탄 조끼. 그러나 미군 소총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미군 대포 화염에 타들어가기 일쑤였다.



송어회 한 점에 이른 봄밤이 저물다

봄 바다는 골목길 아이들처럼 깔깔댔다. 처얼썩! 철썩! 쫓고 까불며 개구쟁이처럼 천방지축 날뛰었다. 사람들은 새우깡으로 갈매기를 유혹했다. 갈매기는 쟁쟁게 날아와 덩석 물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펑! 펑! 펑! 모래밭에선 폭죽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모래 해변을 달렸다. 먼 바다로 돌팔매질을 해댔다. 우리는 동막해변에 텐트를 치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별은 구름에 가려 흐릿했다. 별을 따려는 우리 꿈은 애당초 글렀다. 거센 바람에 텐트 지주대가 앙버티곤 했다. 강화 갯벌의 송어를 안주로 잔을 기울였다. 돼지고기를 구웠다. 오텍 국물을 마시며 밀도 끝도 없는 세상살이에 한숨을 쉬었다. 송어회는 달았다. 하기야 겨울 송어는 너무 맛있어, 잠시 묵고 간 진흙 갯벌조차 달다던가. 안 교수와 순형 군은 연신 웃었다. 김 박사와 나도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해변에서 놀던 사람들은 진즉 사라졌다. 파도 소리가 4분의 4박자로 마음에 스며들었다. 한 치의 엇박자도 없었다.



명미당 이진창의 생가에서



이진창(李建昌, 1852~1898)의 생가는 강화도 사기리에 있다. 정수사를 오르기 전에 찾아갔다. 생가가 조촐하게 초가로 복원되었고, 그 뒤편으로 선대의 묘역이 정갈하게 조성되어 있다. 이진창의 묘소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한다. 이진창은 구한말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문장가, 역사가다. 25년 전 대학원에 다닐 때 몇몇 선후배와 함께 강화도 답사를 왔는데 처음 이곳을 보았을 때 너무도 초라하고 황폐한 모습에 다들 몹시 울적했다. 기분이 들었었다. 이진창은 일찍 죽고 그 아우들과 친척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지조를 지키느라 후손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을 떠올리니 더욱 비감했다. 구한말 지사의 운명을 그때 생가와 묘역 주변 모습이 보여주었다. 이제 다시 와서 단장된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풀린다.

생가의 작은 대청 전면에 명미당(明美堂)이란 큰 현판이 걸려 있다. 이진창의 당호(堂號)다. 작은 대청에 걸기에는 비례가 맞지 않게 크다. 시원하면서도 단아한 글씨인데 매천(梅泉) 황현(黃玹)의 글씨라고 밝혀 놓았다. 근거가 있어서 복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명미당과 매천! 고결한 학자에 지사이니 참 어울리는 친구다. 서로 벗이 되기에 부끄럽지 않다. 명미당은 15살에 대과에 급제하여 평생을 강직하게 살다가 원을 넘기지 못하고 운명했고, 매천은 구레에 묻혀 시를 지으며 지조있게 살다가 망국의 슬픔을 삼키며 자결하였다. 명미당이 먼저 죽자 매천은 3년만에 구례로부터 강화까지 걸어서 문상을 왔다가 돌아갔다. 매천이 죽은 뒤 이번에는 십여 년 지나 명미당의 아우 이진방이 기차를 타고 매천의 묘소에 참배를 하러 갔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니 찾지 못하는 매천의 묘소에서 이진방은 비분에 차서 시를 지었다. 그의 시를 읽으면 명미당이 지하에서 보낸 애도의 글처럼 느껴진다.

명미당의 생가도 무덤도 길은 초라하지만, 화려한 어떤 저택이나 봉분보다 고결하고 향기로운 영혼이 깃들어 사는 주소다. 아직은 매서운 바람결에 그의 매운 숨결이 실려 오는 듯하다.

글 : 안대회(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인천 바다 신기루

도시와 산천도 영고성쇠(榮枯盛衰)의 변화는 피하지 못한다. 한때는 이름난 곳이 쓸쓸한 땅으로 변하기도 하고, 반면에 버려졌던 곳이 변화한 도시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인천과 제물포는 근대를 거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근대의 관문 역할을 한 곳이지만 백오십년 이전에는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 초엽 이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된 적이 없지 않았으나 변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해안 도시의 모습은 아니었다. 한편으로 구한말의 저명한 장군 신현(申櫟)은 산천이 아름답고 바다가 있어 좋으며, 미추홀 시대 이후로 동방의 명읍(名邑) 이라고 인천을 추켜세우기도 하였다. 그는 이곳에 사는 사대부들은 물자가 넉넉하여 살기에 좋고 무덤을 쓰기에 좋은 풍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산천의 멋스러움과 물산이 풍부한 고을이라는 신현의 자량을 십분 인정해도 이곳을 여행하고 싶은 고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명읍일 수는 있어도 전국적인 명성을 가져 관광객들이 일삼아 찾아올 뚜렷한 명승지는 없었다. 인천의 풍물을 구경하러 강원도에서도 찾아온 구한말 풍경과는 달랐다.

글:안대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고전 산문 산책,>
<정조치세어록>, <선비답게
산다는 것>, <조선의 사로잡은
꾼들> 등의 저서와 <궁궐한
날의 빛>, <북학의> 등의
번역서 및 다수의 공저를
통해 조선 후기 한문학을
당대의 언어로 풀어내어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1930년대 이전으로 추정하는 능허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교류할 때는 이 능허대 인근의 한나루를 통해 사진이 오갔다. 즉 사진들을 배웅하던 곳이 능허대라고 한다면, 사진들이 배를 타던 곳은 한나루였다. 지금은 주위가 매립되고 아파트와 송도유원지가 들어서 있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진 제공: 화도진도서관)



문학산 고성 동쪽.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출처: <최성연 선생 기증 사진집 -1960년대 인천 풍경>, (사진 제공: 화도진도서관)

그렇다고 인천에 들러 그 자연과 풍속에 깊은 인상을 받은 과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 중엽 사람인 이규보(李奎報) 이래로 적지 않은 명사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 가운데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이란 학자가 있어 인천의 자연과 풍물을 접하고서 체험과 인상을 곱살맞게 표현했다. 오랜 과거의 인천이 지닌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그만큼 잘 드러낸 인물도 없다. 이규상은 18세기 각 분야 명사들의 인물을 평하여 <병세재언록(竝世才彦錄)>을 저술한 학자다. 1765년 39세 때 부친 이사질(李思質)이 인천부사로 부임한 기회에 그는 여러 형제 조카들과 함께 인천을 찾았다. 부친은 훈민정음 연구에 독보적인 인물이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충청도 공주에 살았으나 서울을 자주 출입하여 서울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이규상이 인천에 머문 때는 부친이 부임한 다음해인 1766년이였다.

18세기 학자 이규상의 눈에 비친 인천

이규상이 인천에 얼마나 머물렀고 얼마나 어느 지역을 다녔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두지 않았다. 그는 보통의 선비와 달리 이른바 유기(遊記)를 쓰지 않았다. 대신 적지 않은 시를 남겼다. 시를 보면 지금도 인천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옛 중심지에 머물며 문학산과 능허대, 바닷가, 당집 등을 다닌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밝혀놓지는 않았으나 시에 담긴 지역을 보면 당시 인천의 명소와 이름난 풍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그다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인천의 일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을 남긴 것은 그만큼 인천 여행이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 탓이었으리라.

이규상은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에 머물면서 주변의 명소를 탐방했다. 지금도 인천향교는 옛날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고, 그 주변에 시청과 법원 및 상업 중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규상이 인천에 와서 처음으로 찾은 명소는 어디였을까? 바로 문학산과 능허대(凌虛臺)였다. 그는 문학산에 올라 산성을 살펴보고 비류가 도읍으로 정한 미추홀의 역사를 회고하였다. 비가 많이 내리면 옛 기와가 출토되고 임진왜란 때 왜적을 방어한 성의 내력을 추적하였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인천부사 김민선(金敏善)이 사민(士民)을 이끌고 항쟁한 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인천 앞바다, 그 바다 위에 펼쳐진 또 다른 인천

그는 또 인천부 관아로부터 서남쪽 길을 따라 문학산의 삼해주(三亥酒) 고개를 넘어서 원우미촌(遠又彌村)을 거쳐 능허대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지금도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오는 명소다. 그가 본 능허대는 황해의 조수가 들어오고 해당화와 방풍(防風)이 널려있는 포구가 펼쳐져 있다. 겨우 십여 길 높이로 바닷가 포구에 다리미 자루처럼 높이 솟구친 바위산이다. 사면으로 바위를 이고 있고 그 위에는 소나무와 진달래꽃 등 잡다한 나무들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능허대에 오르면 큰 바다 위에 강화도와 영종도, 수원과 남양, 안산의 여러 섬들이 마치 여덟 팔(八)자처럼 늘어선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인천에 와서 능허대에서 시를 짓지 않는다면 안 될 일이라, 일행이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白浪驅來地不分
 山人初見却疑雲
 雄豪氣勢誰能敵
 萬物中間水爲君

흰 파도가 몰려와서 대지는 분간도 안되는데
 산사람 처음 보니 구름인가 헛갈린다.
 웅장한 그기세를 그누가 대적하랴!
 만물의 중간에서 물이 가장 으뜸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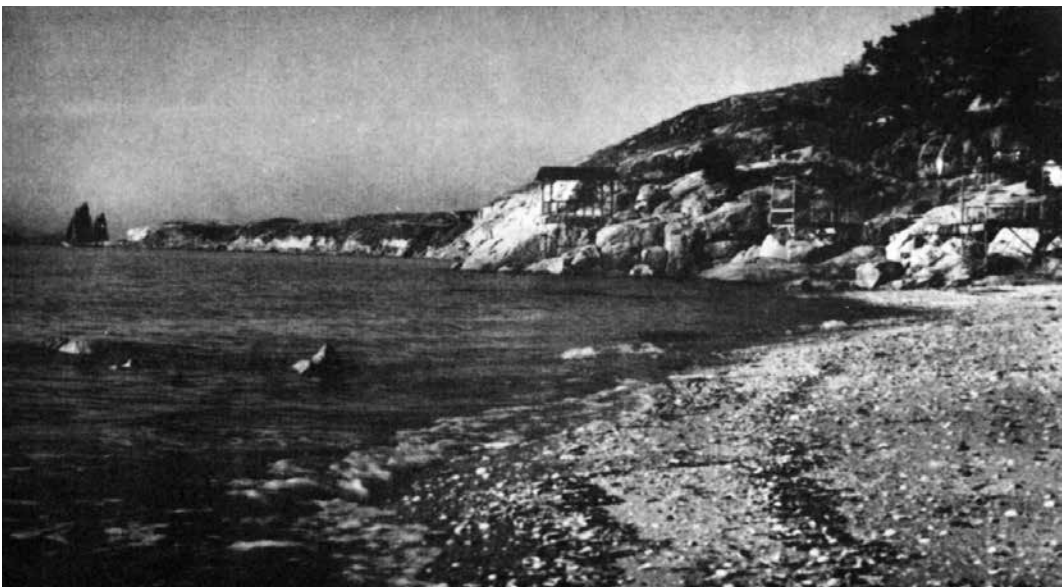
이제 이규상이 보았던 바다는 거의 매립되었고, 그 앞에는 송도신도시가 거창한 위용을 드러낸다. 큰 바다가 펼쳐진 능허대의 옛 풍광이 그 이름에 걸맞게 호쾌한 것이었음을 그의 시는 증언한다. 능허대 밑으로 밀려오는 흰 파도가 큰 인상을 남겼는지 그 아버지도 천지를 분간할 수도 없이 몰려오는 파도를 은으로 만든 집[銀屋]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규상과 그의 가족들이 인천에서 본 특별한 풍경은 그 능허대 밑에서 본 신기루(蜃氣樓) 현상이었다. 이는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도회지와 궁궐, 시장이 보이는 현상으로 사막이나 바다에서 간혹 나타난다.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라 해서 해시(海市)라고도 하고, 허공에 세워진 집이라 해서 공중누각(空中樓閣)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신기루는 대단한 구경거리의 하나였다. 당시 바닷가에서 신기루가 잘 나타나는 곳은 인천과 보령인데, 그중에서도 인천을 손꼽았기에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한번 구경하려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 신기루가 나타날 날씨가 되자 4월 5일 아버지가 아전 10여명과 함께 길을 나섰고, 이규상 일행이 그 뒤를 따랐다.

일행은 바다 위로 나타난 신기루를 능허대 아래에서 경탄하며 구경하였다. 그 신기한 구경을 기념하여 이규상은 한편의 장편시와 다섯 편의 율시를 썼다. “언뜻 보니 구름처럼 보이나 구름은 아니고, 불쑥 무지개 다리와 둥근 성으로 바뀐다. 때로는 울창하게 소나무가 드리워지더니 무수한 봉래산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또 어슴푸레 무언가 보이는 듯싶더니 이동하는 수레들이 번잡하게 나타난다.”라며 신기루의 모습을 형용하였다. 특이하게도 당시 인천 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기루라 부르지 않고 산유(山遊) 또는 산희(山戲)라고 불렀다. 아마도 우리말로 산놀이였으리라. 이규상 부자는 지역 사람들이 그릇되게 표현한다고 보았다. 바다에서 보는 신기루를 산놀이라고 부르니 이상했을 것이다. 왜 굳이 산놀이라고 했을까? 의문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표현이다. 이규상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신기루에 환호했으나 아버지 이사질은 함께 보고도 심드렁했다. 이사질은 ‘신루기(蜃樓記)’라는 긴 글을 써서 신기루 현상이 구름 속 섬의 모습이 과장된 것에 불과함을 밝히려고 애썼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들 “신기하다, 신기해!”하며 소리쳤지만 자신은 어렴풋하게 뭔가 보일뿐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그렇게 말했다. 신기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비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규상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은 작은 공원에 조성된 능허대가 바다를 바라보며 신기루를 구경하는 명소였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다.

시로 남은 제물포 풍광

인천에 잠시 머물며 이규상이 가장 주의 깊게 살핀 것은 아니나 다름까 어촌 풍경이었다. 아마도 현재의 제물포 지역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의 생활상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그는 그 견문을 시로 썼다. 제목이 〈인주요(仁州謠)〉와 〈속인주요(續仁州謠)〉로 각각 9수씩 모두 18수를 썼다. 인천의 옛 어촌 풍광과 어부의 생활 모습을 이만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가 있을까? 모두가 사진이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다. 그중에서 네 수를 들어본다.



1965년 발행된 이종화 사진집 <문학산>에 실린 능허대. 언덕 위로 늘어져 있는 늙은 소나무들 등 옛 정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 터에 복원해 놓은 정자. 인천광역시기념물 제8호. (사진: 박정훈)



문학산성 서문으로 오르던 능천의 오솔길. 이 일대가 군사 시설로 변하기 직전인 1959년 풍경으로 추정한다. (출처: 최성연 선생 기증 사진집 - 1960년대 인천 풍경, 사진 제공: 화도진도서관)



중국으로 가던 사신들은 이 별리(別離) 고개를 넘어 능허대 한나루에서 배를 탔다. 전송을 나온 가족들과 이곳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하여 '별리' 고개로 불린다. (출처: 이종화 사진집 <문학산>)

仁州風俗似窮鄉
不識靑雲有玉堂
女戴草囊男氎笠
日生忙出蛤魚場

인천의 풍속은 외진 시골과 똑같아서
청운(靑雲) 높이에 있는
옥당(玉堂) 벼슬을 전혀 모른다.
여인네는 풀바구니, 남정네는 병거지 쓰고
날이 밝자 바빠 나와 조개 물고기 잡으러 간다.

拿得魚一尺全
瞥然翻手索頭懸
忙從別浦潛身出
或恐看於箭主前

한 자나 되는 송어를 움켜쥐고서
후다닥 손을 놀려 대가리를 꿰어 매단다.
서둘러 다른 포구로 잠수하여 나가는 것은
어살 주인에게 들킬까봐 걱정해서지.

童蛤淺埋大蛤深
絡蹄巢穴杳難尋
浦娘競把尖鉤鐵
細掘融泥似捻針

어린 조개는 얇게, 대합은 깊이 숨었고
낙지는 구멍에 숨어 찾아내기 어렵건만
포구의 아낙들은 뽕죽한 쇠꼬챙이 재게 놀려
갯벌 속을 헤집고 바늘귀 꿰듯 잘도 캐낸다.

節近端陽彭蟹生
繩囊俄頃拾來盈
老婆戴入都門內
穿盡坊坊唱買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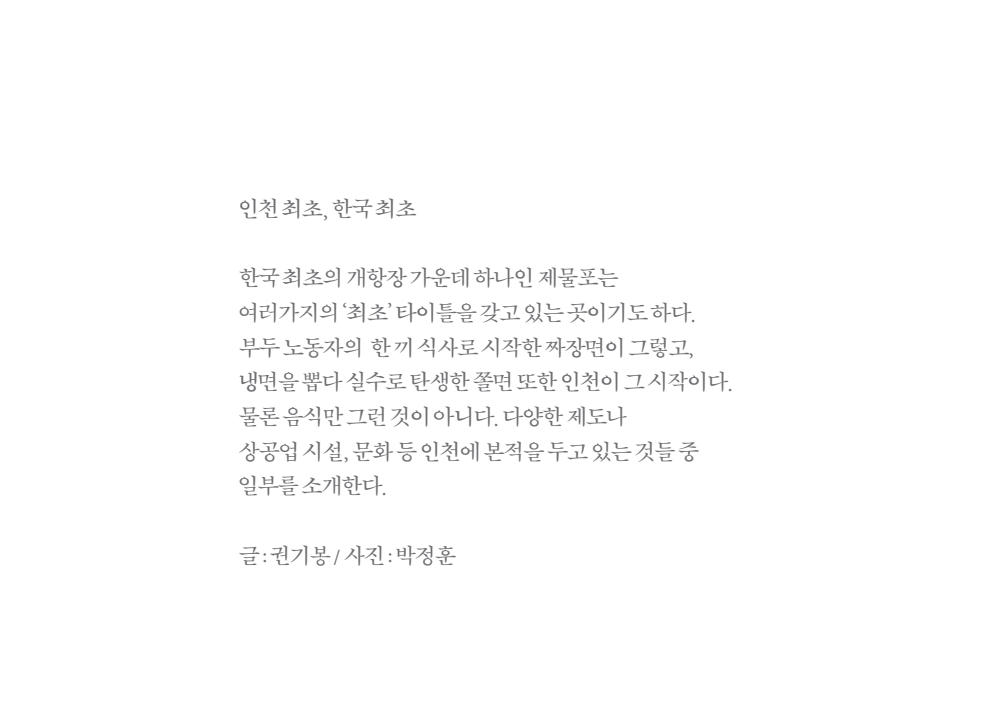
단오가 가까워져 꽃게가 잡히는 철
짚바구니에 주워 담아 어느새 가득 찬다.
노파가 머리에 이고 도성문으로 들어가
골목골목 다 다니며 게 사려 소리친다.

첫째 작품만이 인천의 풍속을 개괄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인상적인 장면을 한 가지씩 포착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동이 트기만 하면 바닷가로 일하러 나가는 주민과
주인 몰래 송어를 빼돌리는 어부, 갯벌에서 대합과 낙지를 캐는
아낙네, 한양까지 가서 꽃게를 파는 노파의 모습이 재현된다.
당시 인천의 가장 전형적인 풍경이라고 봐도 좋다. 네 번째 시에
등장하는 장면만 놓고 봐도 그렇다. 신헌(申櫓)이 한양의 풍물을
묘사한 장편시 〈성시전도(城市全圖)〉에서 “가련타! 꽃게 파는
인천 아낙네는, 봉두난발에 대광주리를 빗겨 안고 간다.”고 읊은
것과 거의 똑같다.

그밖에도 해안에 늘어선 어살과 소금 굽는 염전, 조운선,
송어잡이 배, 손돌목의 물살, 곳곳의 갯관 등을 묘사하였다.
그에게 인천 사람들은 “그물 하나 쥐고서 벼슬인양 권세를
뽐내고, 삼정승을 우스갯거리로 삼으며 소금수레를 자랑하여”
한양의 정치판과는 판판인 별천지다. 풍파가 많은 바다라고
육지 사람들 비웃지만 실제로는 정치판이 평지풍파가 많아더
험난하다고 이규상은 냉소를 던진다.

울긋불긋 천을 걸어놓고 철마다 갯을 벌이는 인천 풍속을
이규상은 매우 색다르게 느낀 듯 몇 수의 시로 읊기도 했다.
그는 어느 곳에서도 이런 민속을 주의깊게 본 적이 없었다.
다른 이도 인천에서 이런 민속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인천을 다녀간 이규상에게서는 민속 답사를 나온 학자의
뒷모습이 엿보인다.

Dictionary	1912. 05. 11	기관차(모가형) 최초로 조립		
	1917. 02. 26	조선인촌제주식회사 (성남 제조)설립		
	1918. 10. 27	인천항독준공		
	1919. 03. 06	인천공립보통학교,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 만세 운동		
	1924. 05. 09	한국인 경영 활동 사진 상영관 ‘애관’ 외리에 개관		
	1927	문학리에서 고인돌 발견		
인천 주요 근현대사 연표 1883 - 2009	1932. 02. 15	강도지(江都誌) 상·하권 간행(인천 이립상회) ‘인천부사’ 간행		
	1933. 10	인천공설운동장 준공(도원동)		
	1934. 06. 30	수인선(인천-수원) 완공		
	1937. 08. 06	은영회(사진예술단체)창립		
	1941. 01. 14	광복	1965. 12. 17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발굴
	1945. 08. 15	인천 최초의 우리말 신문 ‘대중일보’ 창간	1966. 05. 18	인천시립교향악단 발족
	1945. 10. 07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1966. 08. 14	경인간 직행버스 개통
	1946. 04. 01	인천건설영화사, 영화 ‘무영의 악마’를 표관에서 상영	1968. 12. 21	경인고속도로 개통
	1946. 09. 21	인천 최초의 우리말 전화번호부 발간	1969. 12. 08	인천은행(경기은행 전신) 개점
		인천부, 인천시로 개칭	1970. 02. 03	중학교 무시험 추천 시행
1883. 01. 01	인천항 개항		1973. 09. 30	인천시사(상, 중, 하 3권) 간행
1883. 02. 19	일본지계 설정	1946. 12. 13	1974. 08. 15	경인선 전철 개통
1883. 10	일본영사관 건물 건립		1979. 01. 01	인천공과대학 (인천시립대 전신) 설립 인가
1884. 11	인천우정분국 개국	1949. 08. 15	1981. 07. 01	인천직할시 승격
1884. 11	한국 최초 양관 세창양행 사택 건립	1950. 06. 25	1982. 07. 17	프로야구 인천 경기 개막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제물포 도착	1950. 09. 15	1983. 07. 01	개항 100주년 기념식 거행
1885. 04. 05	내리교회 창립	1954. 04. 08	1984. 09. 15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준공
1885. 07. 19	최초 서구식 공원 확정(자유공원)	1954. 04. 24	1988. 12	화도진 복원(화도진 공원)
1888. 11. 09	한국 최초 서양식 호텔, 대불호텔 개업, 한국 최초 환관소, 인천환관소 개설	1955. 03. 01	1989. 01. 01	영종, 용유, 계양면 인천직할시 편입
1889	인천경성적주상보 창간	1955. 12. 23	1989. 07. 12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개장
	인천전화국 개국	1957. 11. 30	1992. 09. 02	새얼문화재단, 우현 고유섭 동상 제막
1890. 01. 28	근대 해운업 효시 이운사(기선회사) 창설	1959. 07. 01		인천광역시 승격
1892. 12. 04	‘타운센트’ 정미소 설립	1962. 08. 15	1995. 01	인천국제공항 개항
1893. 01	인천영화보통학교 창립		2001. 03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1893. 02	관립 한성외국어학원		2003. 08. 05	제16회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개최
1893. 03. 12	인천지교(인천고 전신) 개교		2005. 08. 31	인천공항철도 개통
1895. 06. 27	담동성당 축성식 거행	1896. 11. 04	2007. 03. 23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경인선 철도 기공식 거행(우각리)	1897. 03. 22	2007. 04. 17	인천대교 개통
	경인선(인천-노량진) 개통	1899. 09. 18	2009. 10. 18	
	영미연초공장 준공	1899. 12. 29		
	인천부 부내(府內) 전화 개통	1902. 06. 01		
	제1차 하와이 이민 인천항 출항	1902. 12. 22		
	러시아와 일본, 인천 앞바다에서 개전	1904. 02. 09		
	제임스 존스톤 별장(인천각) 건축	1905		
	월미도교량 준공	1906. 08. 07		
	한국 최초 천일염전 축조(주안)	1907		



인천 최초, 한국 최초

한국 최초의 개항장 가운데 하나인 제물포는 여러가지의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부두 노동자의 한 끼 식사로 시작한 짜장면이 그렇고, 냉면을 뽑다 실수로 탄생한 쫄면 또한 인천이 그 시작이다. 물론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양한 제도나 상공업 시설, 문화 등 인천에 본적을 두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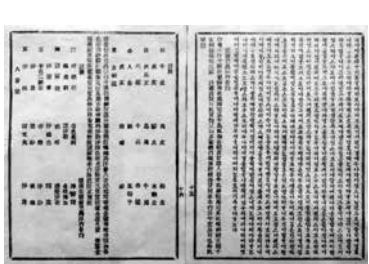
글: 권기봉 / 사진: 박정훈



1
최초의 서양식 호텔, 대불호텔

경인선 철도가 만들어지기 전, 제물포와 서울을 잇는 교통 수단은 조랑말이나 가마, 마차가 고작이었다. 일단 선박을 타고 제물포에 도착한 이들은 서둘러 서울로 떠나거나 아니면 제물포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고, 거기에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들과지 더해지면서, 제물포에는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개항과 함께 들어온 일본 나가사키 [長崎] 출신의 해운업자 호리 리키타로[堀力 太郎] 는 이를 눈여겨보다 일본 조계와 청국 조계의 경계선 근처에 대불(大佛) 호텔을 지었다. 조선을 드나드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대불호텔은 호황을 누렸고, 1888년 호리는 원래의 호텔 옆에 붉은 벽돌로 3층짜리 ‘서양식 호텔’을 증축한다. 1902년 서울에 만들어진 손탁호텔보다 14년 앞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 들어선 것이다.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손님을 맞았고 다다미방 외에 침대가 딸린 서양식 객실도 갖추는 등 개항과 함께 물려들기 시작한 서구인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사람들은 제물포에 묵을 필요 없이 곧바로 서울을 오가게 되었다. 또 1910년에 조선이 일본에 강제병합되면서 조선을 찾은 서구인들도 급격히 줄어들어 대불호텔은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이후 대불호텔은 1918년에 중국 화교에게 팔리면서 ‘중화루’라는 중국 음식점으로 바뀌었고, 60년 뒤인 1978년에는 이마저도 헐려 버려 현재 빈 터로 남아있다. 2011년 대불호텔 터에 상가를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에 호텔의 지하 구조를 알 수 있는 벽체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마루를 놓기 위해 만든 구조물 등이 발견되면서, 한국 최초의 서구식 호텔 터에 대한 ‘원형 보존’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 제물포를 방문했을 당시 대불호텔에 묵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신축되기 이전에도 일본풍 건물의 대불호텔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
첫 상업 광고, ‘덕상세창양행고백’

한국 최초로 상업 광고를 낸 상점은 인천 제물포에 있던 ‘세창양행’이다. 이들은 1886년 2월 22일자 ‘한성주보(漢城周報)’에 ‘德商世昌洋行告白’ (덕상세창양행고백)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광고를 냈다. ‘덕상’은 덕국(德國)의 상회, 즉 독일 상회를 뜻하고, ‘고백’은 훗날 들어온 일본식 표현 ‘광고’의 중국식 표현이다. 즉 ‘독일 상회 세창양행의 광고’라는 뜻이다. 내용은 이랬다.

“알릴 것은 저희 세창양행이 조선에서 개업하여 호랑이, 수달, 검은 담비, 흰 담비, 소, 말, 여우, 개 등 각종 가축과 사람의 머리카락, 소, 말, 돼지의 갈기털, 꼬리, 뿔, 발톱, 조개와 소라, 담배, 종이, 오배자, 옛 동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세창양행이 조선에서 개업하여 외국에서 자명종 시계, 들여다보는 풍경, 뮤직 박스, 호박, 유리, 각종 램프, 서양 단추, 서양 직물, 서양 천을 비롯해 염색한 옷과 염료, 서양 바늘, 서양 실, 성냥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수입하여 물품의 구색을 갖추어 공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모든 귀한 손님과 선비와 상인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창양행이 수입 판매한 제품 가운데 쇠바늘과 금계랍(金鷄蠟), 즉 해열 진통제로 쓰이던 염산키니네이도 특히 인기가 높았다. 세창양행의 ‘한성주보’ 광고는 7월 초까지 약 6개월간 계속되었고 이듬해에는 ‘독립신문’에 한글 광고를 실기도 했다. 당시 광고 내용은 제물포와 평양 사이를 오가던 증기화물선 창룡호와 제물포와 중국 상하이를 잇는 여객선 현익호, 수마트라산 수입 석유 광고 등이었다.

이 광고들을 통해 우리는 무역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전형적인 무역 패턴을 알 수 있다. 즉 세창양행은 조선에서 동물 가죽이나 조개껍데기와 같은 농수산품을 구입해 간 반면, 내다 판 것은 시계나 박스와 같은 서양 공산품이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황현은 <매천야록(梅泉野錄)>을 통해 “심하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둔함이며. 대개 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은 비단, 시계, 물감 따위의 기묘하고 기이한 물건에 지나지 않고, 나라에서 나가는 것은 쌀, 콩, 가축, 금, 은 등 평상시 박실한 보배였다”고 한탄했다.



3
월미도 조탕

“봄에는 앵두꽃과 철쭉꽃이 아름답게 물들이며, 여름에는 신록이 짙어가는 가운데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저녁 풍경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비단처럼 아름다운 사계의 풍광이 그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인천항(仁川港), 1931)

지난 시절 월미도는 “인천은 몰라도 월미도는 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경치가 빼어나다. 일제는 1918년 제물포항 갑문은 만들면서 한강의 거센 물살을 막기 위해 지금의 대한제분 앞쪽에서 월미도를 잇는 약 1킬로미터 길이의 2차선 독길을 축조하고 월미도를 풍치(風致) 지구, 이른바 유원지로 만들었다. 또 벚꽃이 피는 4월이면 월미도까지 행락객을 위한 화열차(花列車)를 특별 운행하기도 했다.

월미도 유원지는 192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육지가 된’ 월미도에 인공 해수 풀장과 ‘조탕(潮湯)’을 만들면서 완성된다. 조탕은 바닷물이나 지하 암반수가운데 바닷물과 성분이 비슷한 물을 끌어올린 뒤 끓여서 이용하는 해수탕이다. 이어 1927년에는 60평 규모의 홀을 확충한데 이어 동물원도 만들고, 1935년에는 3층짜리 호텔을, 그 이듬해에는 밀물 때 마치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설계한 일본식 요정 ‘용궁각(龍宮閣)’을 세우면서 당시 월미도는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

해방 직후 영업을 중단했던 월미도 조탕은 1949년 재개장했지만 바로 이듬해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폐허가 되었다. 전쟁 뒤에는 미군기지와 국군 해군기지가 들어서기도 했으며 이후 월미공원으로 일반에 개방됐다.



4
한국 최초의 집단 이민과 내리교회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인하대학교는 인천의 ‘인(仁)’자와 미국 하와이주를 음차한 ‘하(荷)’자를 합한 것이다. 이 대학교의 건립 자금을 낸 이들이 바로 하와이 교민들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이 이어지면서, 먼 미국 땅 하와이에 있던 교민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에 무엇보다 공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대학교 설립을 위한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그렇게 모은 돈이 총 15만 불. 이 돈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인천시가 학익동의 시유지를 제공하면서 1954년 인하대학교의 전신인 인하공과대학이 세워졌다.

그런데 하와이 교민들은 왜 특별히 인천에 대학을 만든 것일까. 그것은 인천이 1902년 말 한국 최초로 집단 이민을 떠난 자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사탕수수농장이 번성했던 하와이에서는 1850년대에는 중국인을, 1880년대에는 일본인 이민자를 받아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대 초 들어 일본인 노동자가 전체의 70퍼센트를 넘다 보니 그들이 힘을 합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농장주들이 노동자들의 출신 국가를 다원화하기 시작했다. 그때 대상으로 떠오른 나라가 조선이었다.

당시 이민자 모집에 앞장섰던 이는 현재 중구 내동에 있는 내리교회의 존스(George H. Jones; 한국명 조원시) 목사였다. 그는 하와이에 가면 굶지 않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신자와 부두 노동자, 농민들을

설득했고, <황성신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모인 121명을 시작으로 이민이 금지된 1905년까지 3년 동안 모두 7,200여 명의 조선인이 제물포를 떠나 하와이로 향했다. 문제는, 언젠가 돈을 벌어 돌아오겠다고 떠난 조국이 몇 해 뒤 일본에 강제병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하와이 교민들은 신민회(新民會, 항일 비밀 결사)와 같은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한국전쟁 뒤에는 폐허가 된 고국의 재건을 위해 대학 건립 기반을 마련했다.



5
한국 최초의 성냥공장

지금이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 때 성냥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그리고 인천에는 한국 최초의 성냥공장이 있었다. 지난 1900년 러시아 대장성이 발행한 <조선에 관한 기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1886년 제물포에 외국인들의 지휘 아래 성냥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게 됐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일본제 성냥이 범람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즉 당시 성냥공장의 정확한 위치나 규모, 이름 등은 알 수 없지만 제물포에 한국 최초의 성냥공장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기록에 남아 있는 인천 최초의 성냥공장은 1917년 10월 금곡리(金谷里)에 설립된 조선인촌(倭寸) 주식회사였다. 인천은 압록강 오지에서 벌목한 목재를 선박으로 들여오기도 좋았고, 서울과 같은 큰 시장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공장 터로 맞췄을 것이다. 얼마 안 있어 금곡리 고지대에 인천 최초의 변전소까지 들어서면서 전기 사정도 다른 지역과 비해 좋아졌다. 조선인촌주식회사에서는 우록(羽鹿)과 패동(佩童), 쌍원(雙猿) 등의 상표를 단 성냥을 1년에 약 7만 상자 정도 생산했고, 노동자 수는 5백여 명에 달했다.



6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인천관측소

자유공원 북쪽, 응봉산 봉우리에 자리 잡은 인천기상대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중앙 기상대로 지난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했다. 서울보다 먼저 인천에 기상관측소가 설치된 것은 제물포가 선박의 입출항이 어느 곳보다 빈번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서울의 관문으로 군사, 경제,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했던 까닭도 있다. 일본은 이후 서울과 부산, 대구, 목포, 강릉, 평양, 원산, 성진, 중강진, 웅기, 용암포 등 한반도는 물론 중국 다롄과 댜진 등에서도 기상 관측소를 운영했다. 당시 기상관측소는 일반인의 생활 편리를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군사적인 용도로도 상당히 중요했다. 한편, 시계가 귀했던 1910~20년대에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매일 낮 12시 정각에 이곳에서 대포를 쏘기도 했다. 해방 뒤 중앙 기상대가 인천에서 서울로 옮겨갔고 한국전쟁 중 중요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인천측후소로 기능이 축소되었다가 1992년 들어 다시 인천기상대로 이름이 바뀌며 오늘에 이른다.

덧붙여,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기상 관측 시설은 해방 뒤에도 일제 때 장소에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기상 관측 결과를 기록한 데이터의 경우, 측정 장소를 바꾸면 기존 측정값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관측소가 함께 있던 기상청이 서울 보라매공원 근처로 옮겨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기상 관측 기능을 유지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7
인천상륙작전의 길을 밝힌 팔미도 등대

한국의 밤바다를 비춘 최초의 등대는 지난 1903년 제물포에서 남쪽으로 약 15.7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에 들어선 팔미도 등대다. 높이 7.9미터, 지름 2미터. 건립 당시 약 90족짜리 석유등을 달았는데 10킬로미터 밖에서도 불빛이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이 개항과 함께 체결한 ‘통상장정’에 ‘한국 정부는 통상 이후 각 항을 수리하고 등대와 초표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들어 등대 건설을 강권한 결과다.

이 팔미도 등대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의 길을 밝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애초 북한군이 차지하고 있던 팔미도 등대에 특수 부대인 ‘켈로 부대’ 요원들이 잠입해 썰물이 오기 전에 연합군의 상륙정들이 인천에 닿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이다.

팔미도 등대는 2003년 그 옆으로 새로 만든 신형 등대에 임무를 넘겨주고 100년 만에 퇴역했다. 한국 등대 설치 100주년을 기념해 팔미도 등대 주변에는 기념 조형물인 ‘천년의 빛’이 세워졌고,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이자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 설명

1
(위) 1901년 발행된 〈버튼 홈스 세계 여행기(The Burton Holmes Lectures)〉에 나오는 대불호텔. (자료 제공: 인천 개항박물관)
(아래) 현재 남은 대불호텔터.

2
1886년 덕상세창양행고백(德商世昌洋行告白) 광고. (자료 제공: 인천 개항박물관)

3
(위) 월미도 해수 쏙장.
(아래) 월미도 조탕 내부. (사진 제공: 화도진도서관)

4
(위) 1900년대 초 내리교회.
(사진 제공: 화도진도서관)
(가운데) 2012년, 111년 만에 초기 모습으로 복원한 제물포웨슬리에배당.
(아래) 지금의 내리교회 본당 건물.

5
(위) 조선인촌주식회사에서 성냥을 만들던 모습.
(아래) 1930년대 조선인촌주식회사 전경. (자료 제공: 인천근대박물관)

6
(위) 1945년 이전, 공중에서 내려다 본 인천측후소 전경.
(사진 제공: 화도진도서관)
(아래) 현재 중구 전통의 인천기상대
7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제물포 해안. (사진 제공: 화도진도서관)

참고 자료

〈인천이야기 100장면〉
(조우성, 인아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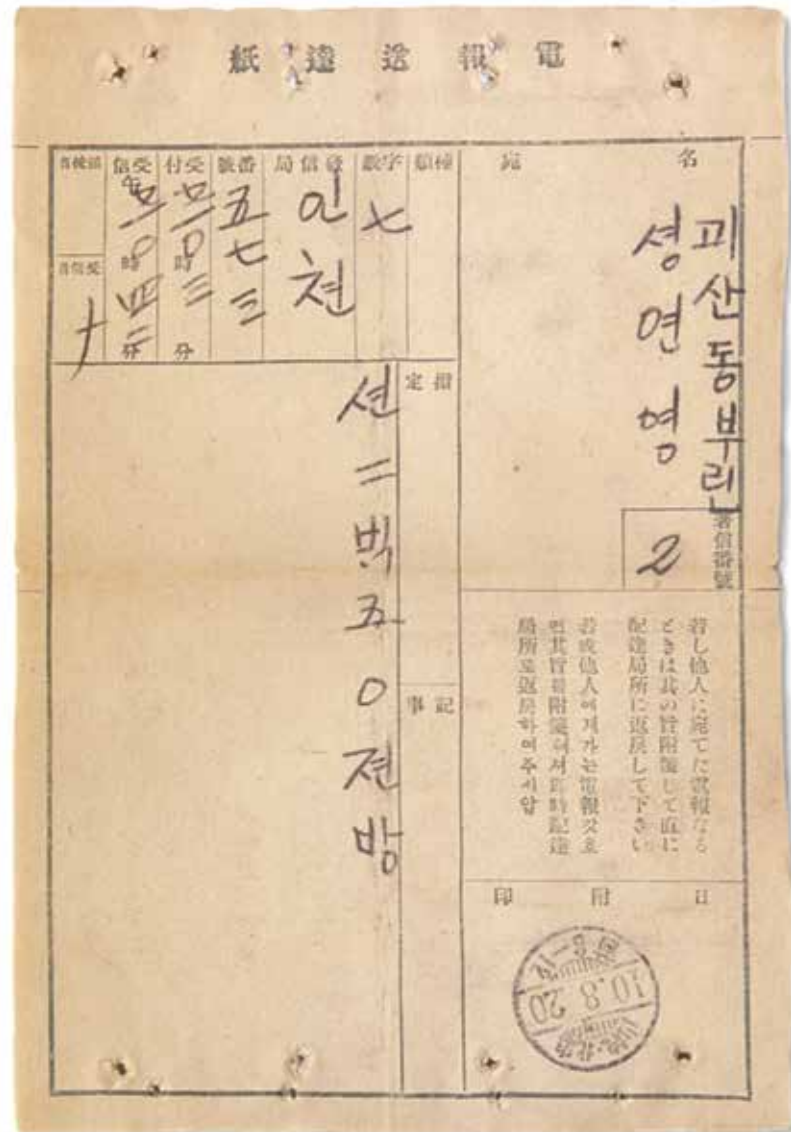
〈인천개항박물관 전시 유물 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 2010)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광역시,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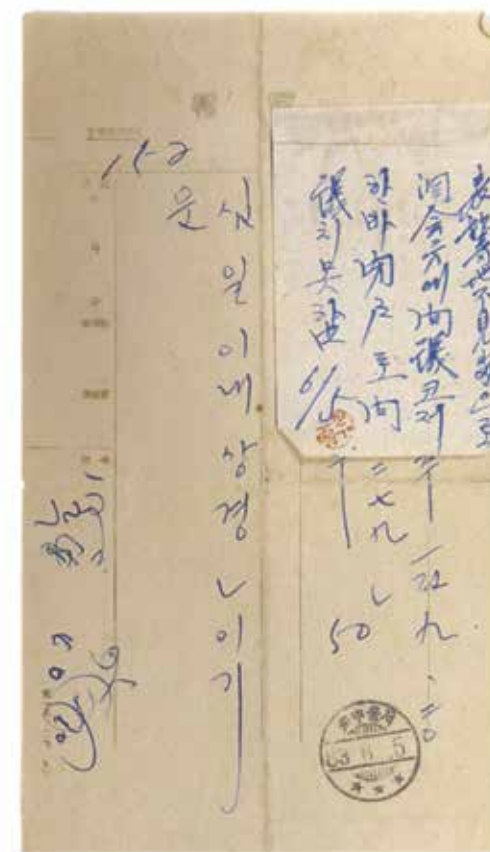
〈권기봉의 길으며 생각하며〉
(YTN 라디오, 2011~2013)



근대 우편 제도는 1884년 11월 18일 서울과 인천 간에 우편물을 교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우정국이 폐지되면서 업무 개시 20일 만에 중단되었다가, 10여 년 후인 1895년부터 재개됐다.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우표는 1903년 6월 발행된 ‘독수리(鷲)보통우표’이다. 대한제국이 국제 우편물에 사용할 고급스러운 우표를 위해 프랑스 정부에 위탁 제작한 것들로, 일부는 ‘CHEMULPO’와 ‘COREE’라는 소인이 적혀있다. 아래 세 줄은 1902~1904년 사이에 발행된 ‘이화(梨花)보통우표’로 역시 국제 우편물에 사용했던 것들이다. 일부 우표에 ‘CHEMULPO’와 ‘COREE’라는 소인이 적혀있다. 대한제국은 1900년 5월 새로운 우표를 자체 제작하면서 대한제국 황실 문양인 오얏꽃[梨花]을 사용했고 이것이 곧 우표 이름이 되었다. (자료 제공: 인천 개항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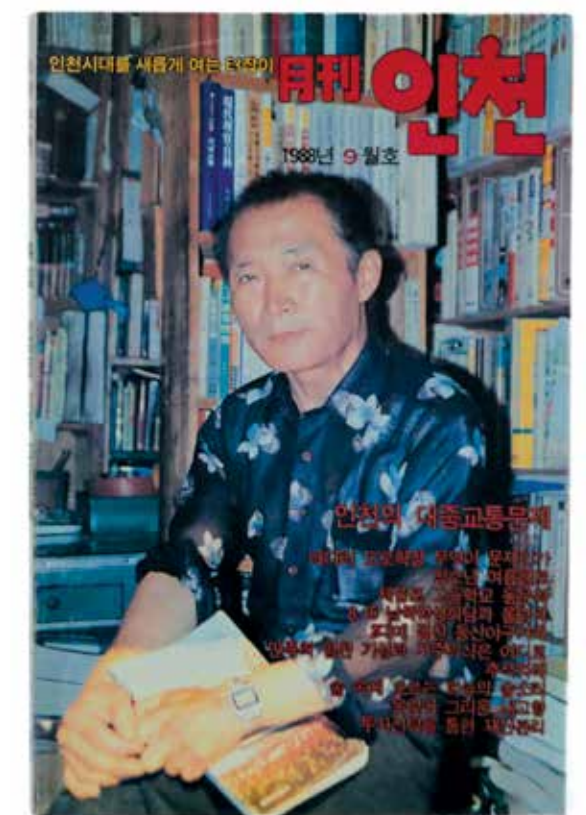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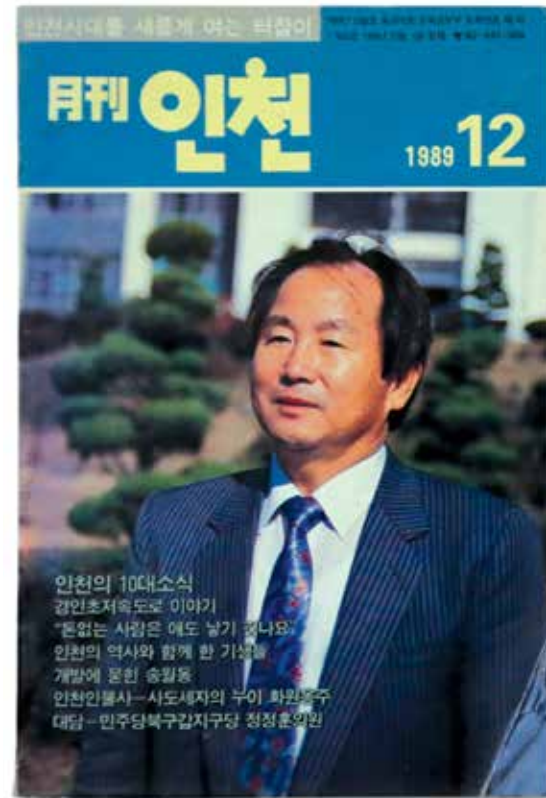
자료제공: 인천 개항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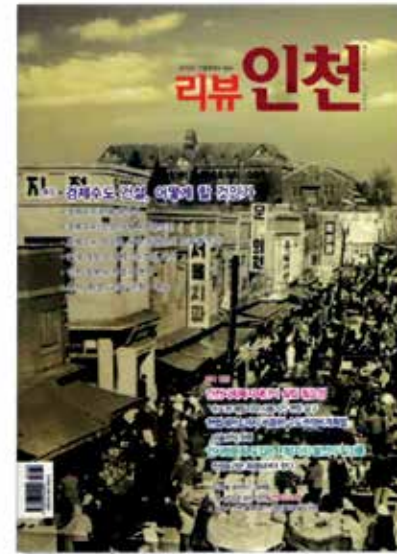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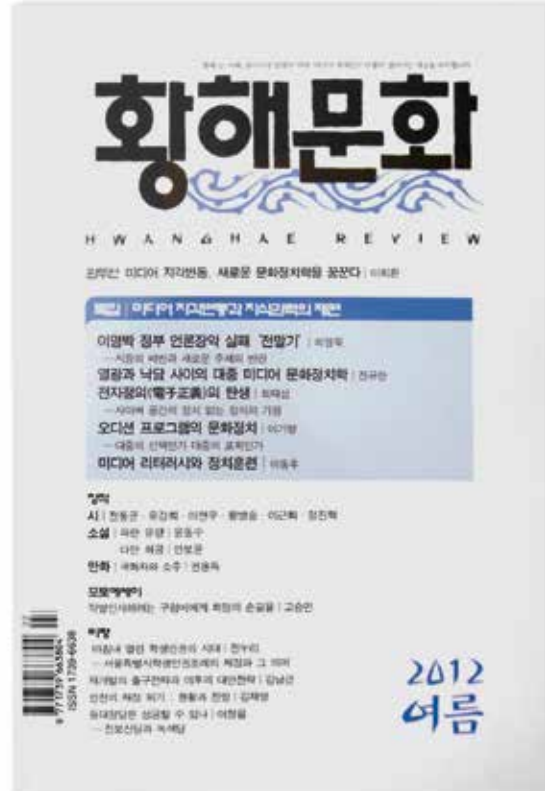




한국 최초의 성냥공장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이 인천에 세운 '조선인촌(燐寸)주식회사'였다. 한편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성냥공장인 '대한성냥주식회사'도 광복 후 인천에 들어섰다. 인천의 성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심지어 서울의 마포성냥공장에서는 아예 본인들의 성냥 상표를 '인천'으로 할 정도였다.(왼쪽 첫 번째 이미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냥은 광고 및 홍보 용도로 널리 애용되었으나 점차 가스레인지 등이 대중화되면서 성냥 산업도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자료 제공: 인천근대박물관)

인천을 기반으로 발행되었던, 혹은 발행되고 있는 매체들. 이 외에도 인천 시청에서 발행 중인 월간 〈굿모닝 인천〉, 인천을 기반으로 창간한 문화매거진 월간 〈Yellow〉 등 다양한 잡지들이 각자의 시선에서 인천의 역사를 ‘리뷰’하고 현재를 기록하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술인 협회

탕
음식점

사
태우
펜피아
화 해바라기팬시

집
대중음식점

집
765-0916
전문

통 중국식

순정기관업리

동방수입백화점

本土
777-4888 777-6888

냉면전문점
KBS MBC SBS
에 방영된 맛집

경인면옥
762-5770

신포주점

산동공갈빵
764-3449

아름다워

義興德洋靴店
중국양화점 TEL:772-5997

고기시장
772-5552

김박사
고기시장

진흥상호
772-5989

販高麗人參은
進興商會로

中國正統
왕
만두
元寶
T.773-7888

中國傳統料
豐
美

작가 김화용이 인천 중구 신포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찾은 ‘봄’



Red / 1. 적귀성 : 봄과 함께 시장의 화원에 각양각색 다양한 다육식물들이 등장했다. 각각의 이름도 개성 있다. 신포시장 아랫길 출구 쪽
〈꽃과 나비〉, 1,000원 / 2. 프리티 : 신포시장 〈꽃과 나비〉, 1,000원 / 3. 복분자 월병 : 신포시장의 명물이 된 공갈빵집에서는 월병도 맛볼 수 있다.
신포시장 윗길 〈신포공갈빵〉, 2,000원 / 4. 여성용 덧신 : 신포시장 윗길 입구에는 좌판을 펴고 양말을 파는 할머니가 계신다.
생각치도 못했던 양말 좌판에 이 시장 최고의 핸드메이드 제품이 숨어 있다. 털실의 배합이나 디자인의 정교함이 대단하다.
신포시장 윗길 입구 찬누리 닭강정 맞은편 양말 좌판, 10,000원 /
5. 팔 반 근 : 신포시장 아랫길 입구, 5,000원 / 6. 수세미 : 중앙시장 수입품 골목 〈뽕뽕사〉, 1,000원



Yellow / 7. 정야 : 신포시장 〈꽃과 나비〉, 1,000원 / 8. 오렌지 글로우 : 신포시장 〈꽃과 나비〉, 1,000원 /
9. 녹두 반 근 : 신포시장 아랫길 입구, 4,000원 / 10. 축 월병 : 신포시장 윗길 〈신포공갈빵〉,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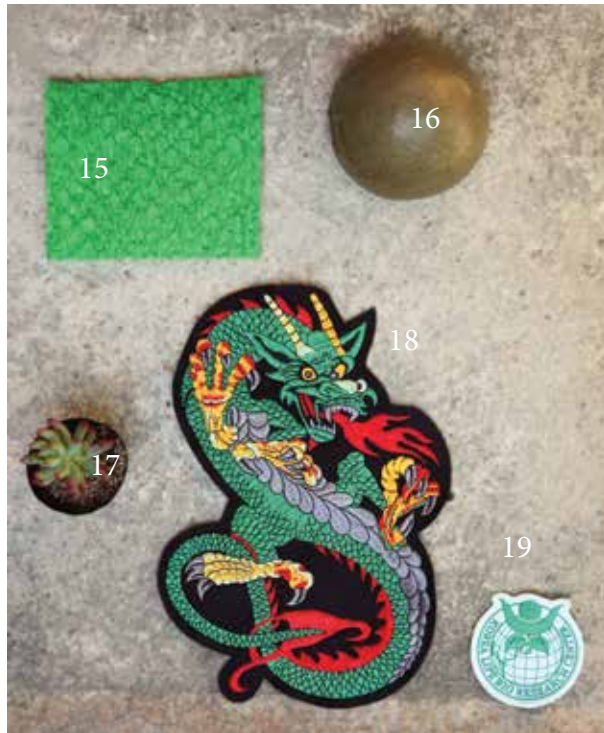


Orange / 11. 단호박 전빵 : 신포시장 곳곳에는 천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만큼 강렬한 색감의 오색만두와 전빵이 있다.
신포시장 아랫길 식당 〈꿀맛집〉, 1,000원 / 12. 신기한 립스틱 : 중앙시장 '양키 물건 골목'에서 정말 반가운 보물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
숙모가 바르던 신기한 립스틱. 녹색인데 바르면 빨갱게 된다. 중앙시장 수입품 골목 〈뽕뽕사〉, 1,000원 / 13. 배지 : 중앙시장은 미군 PX에서 나온
수입 물건과 옷가지 등이 활발하게 거래되던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천의 멋쟁이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낡은 옷이나 평범한 옷에
배지만 하나 달면 나만의 스타일이 완성되는 것. 그 시절 젊은이들의 미군 점퍼에 각종 배지를 달아주시던 아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유행이 지난, 지금은 구하기 힘든 모양의 배지들을 찾아서 지방에서도 종종 오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중앙시장 수선집 〈서울사〉, 3,000원 / 14. 호두 월병 : 신포시장 〈신포공갈빵〉, 2,000원

글과 사진 : 김화용

작가. 고정관념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며 이를 둘러싼 경계, 타자, 다양성, 젠더에 대한 고민을 지속했다.
만남, 여행, 워크숍, 문화운동,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작업해왔다. 지난 몇 년간 '문화 생산자를 위한 공간:가옥'의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삶과 일상에서 함께하는 작업과 여러 협업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사회와 예술의 관계 및 공존을
고민하는 작가 그룹인 '옥인 콜렉티브'의 작가이기도 하다.

“시장은 현재진행형인 삶의 이야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 동시에 신기하게도 지난 시간과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나에게 신포시장은 영화광이었던 중학교 시절, 극장에서 나와 저렴하게 요기를
해결하며 그날 본 영화를 하하호호 음미하던 사적 기억의 공간이다. 나보다 훨씬 윗 세대 분들께서 우동을 드시며 추억을
나누는, 어쩌면 낡고 오래된 이 공간에서 오히려 내 삶의 패턴에 맞는 장보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 재미있다.
혼자 사는 나는 봄나물이 딱 이만큼이면 되거든!” (김화용)



Green / 15. 수세미 : 중앙시장 수입품 골목<똥똥사, 1,000원 /
16. 쪽 전빵 : 신포시장 아랫길 식당<꽃맛집, 1,000원 / 17. 애집 : 신포시장<꽃과 나비>, 1,000원 /
18. 아마도 미군 점퍼에 이런 용 장식 하나 달아주면 완벽한 허세가 장착되지 않았을까?, 중앙 시장 수선집 <서울사, 10,000원 /
19. 배지 : 중앙 시장 수선집 <서울사, 3,000원



Violet / 20, 21. 중앙 시장 수선집 <서울사, 3,000원 / 22. 라일락 : 신포시장<꽃과 나비>, 1,000원 /
23. 작은 봉오리만 갖고 있던 라벤더는 며칠 새 쑥쑥 자랐다. 신포시장<꽃과 나비>, 각 4,000원 /
24. 말이 필요없는 신포시장의 수제 중국화 : 신포시장 윗길 <의흥덕 양화점, 53,000원 /
25. 남성용 덧신 : 신포시장 윗길 입구 천누리 닭강정 맞은편 양말 좌판, 13,000원

나는 인천하면 우현(又玄) 고유섭
(高裕燮, 1905-1944)이 떠오른다.
아울러 특이하게 아프리카계
북미인을 소재로 인류의 진정한
화통을 노래한 시인 배인철
(裵仁哲, 1920-1947), 예리한
비평가 김동석(金東錫, 1913-
1947), 조각가 조규봉(曹圭奉,
1917-1947) 같은 일찍 죽었거나
사라져간 이름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왕에 알려진 이름들은 조금
옆으로 비켜놓는다.

누가 예술을 유희라 하는가

인천에서 나고 자란 미술사학자 고유섭. 그는 100여 년 전 태어나 ‘미술사’라는 낯설고 도무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싶은 분야에서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나이 마흔에 생애를 마감했다. 더욱이 그가 담당한 시대는 일제강점기였다. 당시 조선은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종족’이자 반드시 개조해야 생존이 가능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고유섭은 그런 시절에 우리 미술의 역사 공부에 투신해 한국 최초로 대학에서 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한국의 미를 근대적인 방법으로 학문화했다. 그가 살다간 궤적과 미술사학자로서 한 일을 훑어보는 것은 그래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향수(鄉愁) 설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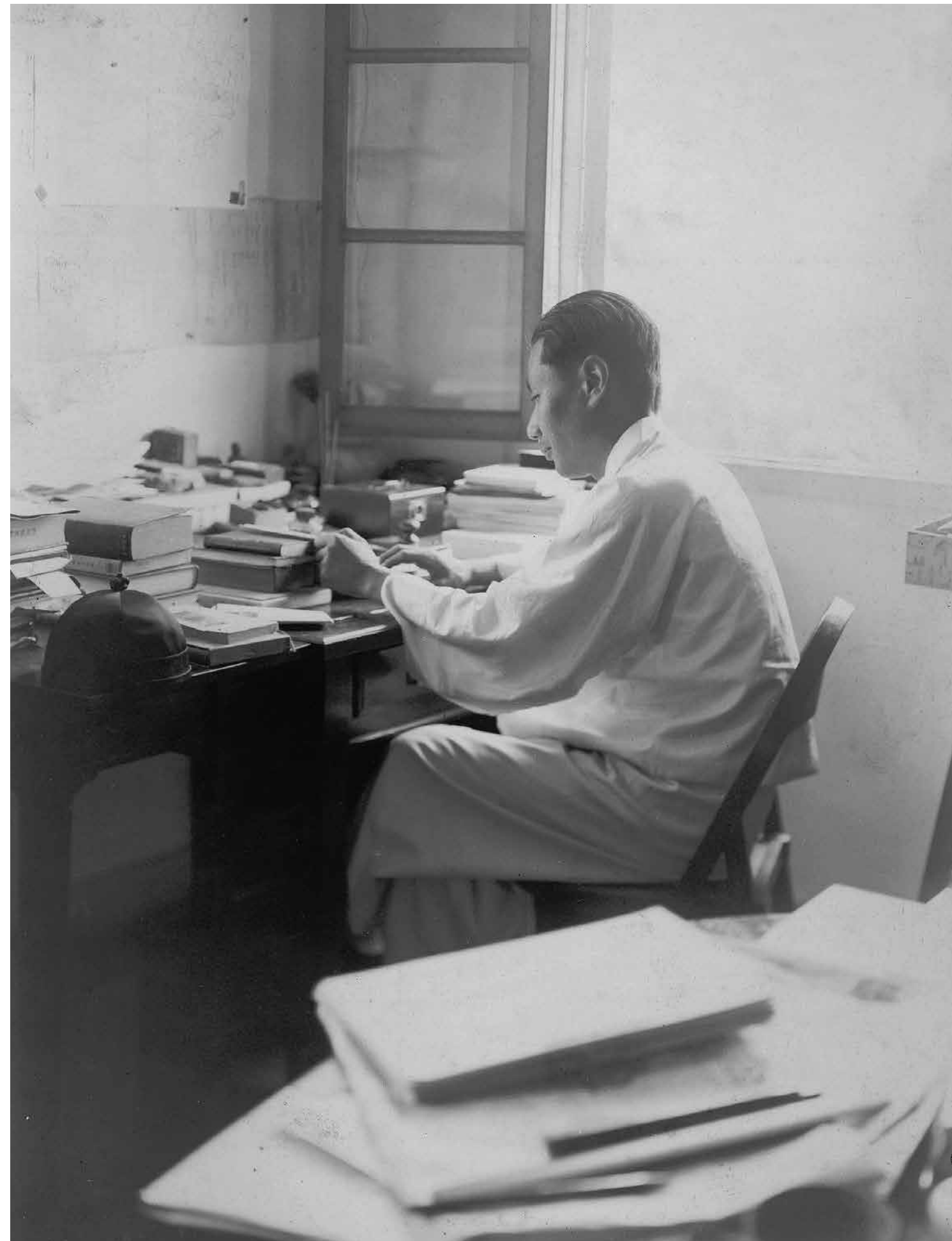
1. 선생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인천.
2. 거기 잊을 수 없는 풍경 한 가지.
월미도(月尾島) 낙조(落照),
서공원(西公園) 신록.
3. 선생이 나신 집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4. 고향을 그리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긋지긋할 뿐이외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게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고, 그즈음 고유섭은 취헌(醉軒) 김병훈(金炳勳)이 운영하던 의성사숙(意誠私塾)에 들어갔다. 대여섯 무렵에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의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고구려 때부터 아이가 걸을 줄만 알면 잘사는 집이든 못사는 집이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다.

글: 최석태
대학에서 미술교육과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미술관 학예원, 미술
전문지 기자 등을 거쳐
미술 글쓰기와 전시 기획을
위주로 일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정선, 김홍도 그리고
이중섭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냈다. 만화, 책 그림
등 정통파가 아닌 미술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사진 제공: 열화당

알려진 것과 달리 당시 서당에서는 맨 처음 한글을 가르쳤고, 그 후에 행동거지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간단한 한자로 시작하여 한문 경전으로 나아갔다. 의성사숙은 신식 서당이였다. 고유섭은 경서는 물론 시(詩), 글씨(書), 그림(書)에 아악(雅樂)까지 두루 통달하여 일대에서 이름 높았던 김병훈 밑에서 문화 소양을 길렀다. 그런데 보통 길어도 두어 해면 그치는 서당 생활을 그는 5년 가까이 끌었다. 왜일까. 이 시기는 고유섭의 남다른 삶(누구의 삶이 남과 같을까만)이 빚어진 바탕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조금 더 살펴보자.

그의 유년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 여덟 살 때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아버지는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당시 보통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었으므로 뒷받침이 적지 않게 필요했다. 고유섭의 긴 서당 생활은 아버지의 방황과 그에 따른 무관심, 혹은 고유섭을 둘러싼 어른들이 일제의 식민 교육을 무작정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1930~40년대, 개성부립박물관 집무실에서 고유섭.

고유섭은 열 살(1914)이 되어서야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이 무렵 아버지의 외도에 가장 큰 피해자였던 어머니가 오히려 친정으로 쫓겨나면서 그와 동생은 집안 어른들 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일제가 운영하던 당시 보통학교의 분위기는 무시무시했다. 교사는 군복을 입고 허리춤에 칼을 찻으며, 아이들의 옷도 군복이었다. 남자 아이는 육군, 여자 아이는 해군이 입는 옷을 입었다. 당시 학생기록부에 따르면, 고유섭은 보통학교 입학 당시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차츰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서 졸업할 때에는 성적이 중간 정도였다. 편도선염, 입파선종 같은 병치레가 잦았고, 성격도 입학 당시에는 차분하고 명석하다고 기록되었으나 졸업 무렵에는 반항적이라고 적혀있다. 생활은 비교적 여유로웠으나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와의 헤어짐 등 정신적으로 불우했던 시절이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고유섭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는 2년의 공백이 있다.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했던 것일까? 추론할 흔적이 없는 가운데, 졸업 이듬해 3월 온 강토를 뒤흔들었던 만세운동에 열다섯 살의 고유섭이 아주 맹렬하게 참여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거의 한달 간 계속되었던 인천 3·1운동 때 태극기를 그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세를 부르며 동네(용동, 현 중구 경동)를 돌아다니다 체포되었는데, 다행히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사흘 만에 풀려났다.

이듬해 고유섭은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인천에서 경성까지 기차로 통학했다. 멀지 않지만 기차로 오가는 사이 책읽기와 사색에 열중하는 한편, 같은 형편의 친구들과 ‘경인 기차 통학생 친목회’를 만들어 토론이 자못 진지했다. 또 입학하자마자 보통학교 때와는 달리 선두의 성적을 보였다. 보통학교 졸업 후 2년의 공백 동안 그에게는 공부에 대한 흥미를 넘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졸업할 때에는, 뒷날 사회주의자가 된 이강국(李康國, 1906~1953)과 나란히 수석을 차지한 사실이 신문 기사로 남아 있다.

이쯤에서 잠시 고유섭의 아버지 고주연(高珠演, 1882~1940)을 돌아보자. 그는 이른바 구한말에 나서 관립 외국어학교를 마친 뒤 관비 유학생으로 뽑힌 엘리트였다. 도쿄제국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철학과를 지원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선을 총검으로 지배하던 첫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1852~1919]가 열등한 조선인 주제에 무슨 철학과냐며 막았던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지를 당해 진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그가 일본과 친화하는 길을 걸었을까? 고주연은 하는 수 없이 미두사업(쌀의 시세에 돈을 거는 일종의 선물 거래)을 하는 한편, 인천의 상공인, 미두업자 등 유지들이 모여 만든 이우구락부의 학습 부장이 되어 조선의 궁중 음악을 보급했다. 즉 고유섭이 열 살이 되어서야 보통학교에 들어간 점, 또 보통학교를 마친 뒤에 만세 운동에 열중한 배경에는 개인의 됴됨이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해 그를 둘러싼 집안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게 틀림없다. 3·1운동은 비록 일본 군경에 진압됐지만 이 일은 우리 민족이나 일제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일제의 통치 방법은 무언가를 허용하는 듯하면서 사실은 옥죄는, 거짓 유화 정책을 취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고유섭이 보성고보를 다니던 시절에 나라는 이전과 달리 일본과 밀고 당기며 꽤 신경전을 벌였고, 고유섭 개인으로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았으나, 새어머니[庶母]와의 엄청난 불화로 괴롭기 그지없는 때였다.

1925년 스물한 살이 된 고유섭은 막 세워진 경성제국대학의 제2회 입학생이 되었다. 그는 철학과에 입학하였고, 전공은 미학과 미술사를 선택했다. 경성제대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민립대학 운동을 차단하고자 서둘러 만든 곳으로, 학생의 대부분은 강제병합 후 이 땅에 몰려든 일본인들의 자녀였다. 조선인은 극소수로 그런 분위기에서 학교를 편안히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당시 야심있는 청년들이 소용돌이치는 시기를 보낸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그는 중등 과정에 이어 대학에서도 동반자가 된 이강국 등 5명의 조선인 학우들과 토론모임 ‘오명회(伍明會)’를 만들었다. 또 조선 문예를 연구할 목적으로 만든 경성제대 조선인 동아리 ‘문우회(文友會)’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일 년에 한 두 차례 발간하던 문우회 동인지 창간호에 다음과 같은 시를 발표했다.

고인(古人)의 미추홀(彌鄒忽)은 해변이지요
그러나 성(城)터는 보지 못해요
넘집는 물결이 삼켜 있다가
배앗고 물러갈 쟈 백사(白沙)만 남아요

나의 옛집은 해변이지요.
그러나 초석(礎石)조차 볼 수 없어요.
사방으로 밀쳐 드난 물결이란
참으로 슬퍼요 해변에 살기

‘해변(海邊)에 살기’ 2~3연, 〈문우(文友)〉, 1925



1929년 경성제국대학 시절 교수 연구실에서. 왼쪽부터 고유섭, 다나카 도요조[田中豊藏]교수, 미학연구실 동료, 우에노 나오테루[上野直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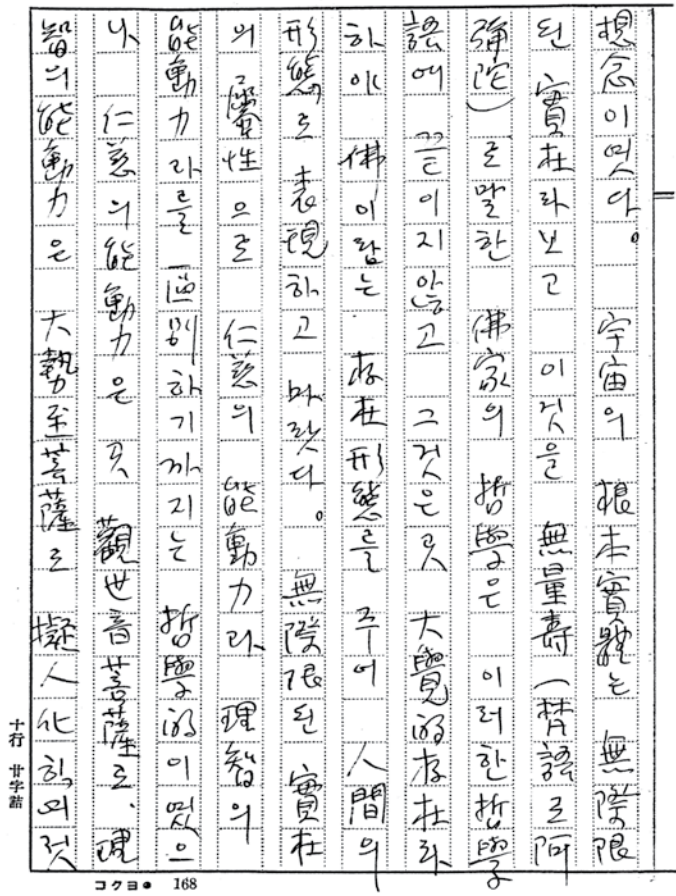
1930~40년대 고유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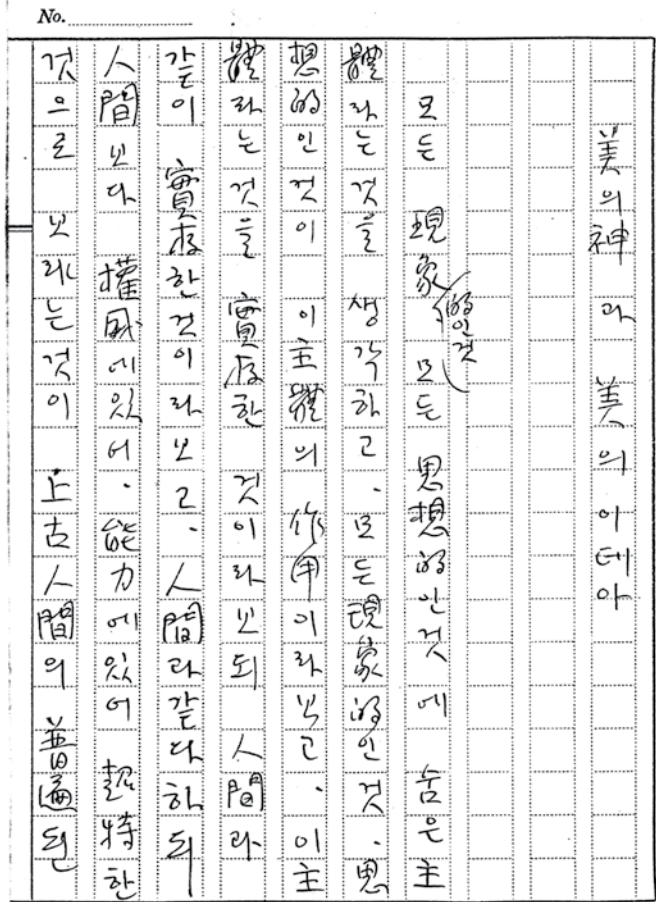
1930~40년대 개성부립박물관 사택 앞에서.



1923년 보성고등보통학교 시절 금강산 수학여행. 탑에 기대서 있는 두 명 바로 뒤가 고유섭.



고유섭 육필 원고이자 미발표 유고인 ‘미(美)의 신(神)과 미의 이데아’.



인천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닷가이므로 이곳에 사는 사람은 모래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슬픔을 읊고 있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 문물에 조선의 과거나 현재는 하찮아졌음을 20대 젊은이의 느낌으로 읊었다. 하지만 그는 미술사와 미학을 맹렬하게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열패감을 곧 극복한다. 대학에 들어간 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면서 가족들은 강원도로 이사를 갔지만 고유섭은 인천에 남아 하숙 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졸업 전인 스물다섯(1929)에 당시 인천 삼대 갑부의 한 사람이었던 이흥선의 장녀와 결혼했다. 졸업 후 유학을 가 공부를 더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던 고유섭은 경성제대에서 미학을 가르치던 우에노[上野直昭] 교수 밑에서 조수로 일하다가, 스물아홉(1933)에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이 되어 인천을 떠났다. 조선인이 일제강점기에 박물관장을 한 사례는 고유섭이 유일하다. 참고로 결혼 당시 그의 일기를 보면 고향에 대해 별다른 소회가 없다는, 혹은 지긋지긋하다는 그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단서들이 보인다.

1929년 11월 4일

우에노 교수를 찾아 결혼한 이야기와 취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던니, 될 수 있는 한 연구실에 남아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조수 일 년 내에 서양미술사를 하나 쓰고, 이 년까지에 경주 불국사(佛國寺) 연구 및 불교미술사(佛敎美術史)를 연구하자.

피로운 나의 가정의 해결은 아편과 술 한 잔에 있다.

누더기같이 매달리는 그들- 삼촌 사촌 서자, 그들이 다 무엇이나.

나는 모른다.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수년 동안 이어진 무자비한 전쟁으로 절대적인 것 같았던 서구 제국이 혼동에 휩싸였고, 그 틈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식민지 약소 민족들은 이런 소식에 용기백배했다. 그런 기운이 어우러져 일어난 1919년의 3·1 운동은 비록 독립이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 후 조선 사회의 용트림은 엄청났다. 독립 투쟁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 국외에 임시정부가 서고,

무장투쟁이 국경선 안쪽까지 빈번하게 일어났다. 식민지에서 숨죽였던 사람들도 공부 열기로 들끓어 논밭을 팔아서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고유섭은 1920년대의 우리 민족 사회가 낳은 주목할 모습의 한 모델이었다.

“예술을 유희(遊戱)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지금 조선의 고미술(美術)을 관조(觀照)하고 있다. 그것은 여유 있던 이 땅의 생활력의 잉여잔재(剩餘殘滓)가 아니요, 누천년간(累千年間) 가난과 싸우고 온 끈기 있는 생활의 가장 충실한 표현이요, 창조요, 생산임을 깨닫고 있다. 만일에 그것이 한쪽의 ‘고상한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면, ‘장부(丈夫)의 일생’을 어찌 헛되이 그곳에 바치고 말 것이냐.”²⁾

짧은 생애였음에도 고유섭의 미술사업적은 막대하며 호홉도 길어 웬만해선 들어다 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우선 경주와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 등을 살펴보고 남긴 일종의 기행문을 지침 삼아 걸어보기를 권한다. 또 그가 평생 집착했던 돌탑과 청자를 연구한 결과를 묶어낸 책을 보기를 권한다. 우리 탑과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간 청자의 역사를 시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권한다. 책에서 소개한 유적과 유물을 하나하나 보아나가다 보면 독자는 어느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머물어진 눈(안목)의 성장을 맞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익산, 부여, 공주, 경주 등지를 지나칠 기회가 있다면 고유섭을 떠올리며 잠깐이라도 그 곳의 문화재들을 둘러보기를 권한다. 다만, 그의 초기 글 가운데 ‘동아일보’에 실렸던 ‘협전 판평(協展觀評)’이라는 글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유섭의 지향점은 어디였으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엿보이는 글이다. 가슴자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글 전개도 특이하므로 그 첫머리를 옮긴다.

17일 제11회 협전(協展; 서화협회가 해마다 여는 회원전 및 공모전을 줄여 말한 것. 조선인 서화가의 모임.)이 휘문고보 강당에서 개최된 지 제2일, 구경을 가려 대문을 나설 때 모(某)군이 막 당도한다.

모군: “어디 가나?” 나: “협전 구경 가려 나서는 판인데 축객(逐客, 손님을 푸대접하며 쫓아내는 것) 같지만 날도 음산하니 방보다 밖이 나으니까 같이 가세.” 모군: “전람회? 무엇 볼 것 있다고...”



고유섭이 일기장에 남긴 소묘와 시.



고유섭이 일기장에 남긴 자화상과 단상.

나 : “아니야 우리는 의무적으로 보아주어야 할 무엇이 있네.”

모군 “자네 심정이 매우 가륵하지만 조선놈이 아니잖게 예술이 다 무어야? 제일(第一) 먹을 것이 있어야지!”

나 : “군의 말도 그럴듯하이. 그러나 군의 논법은 속한(俗漢; 저속한 사람)의 논법일세. 군의 논법대로 말하면 국부병강(國富兵強)한 북미합중국에는 위대한 예술이 있을 것이요, 정치적 혁명을 바야흐로 벗어나 경제적 회복을 완전히 건설하지 못한 방금 노서아(露西亞; 러시아)에는 예술이 없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이와 반대이니 어찌라나? 결국 군의 논법은 추상적 결론에서 나온 오류일세. 전일 도쿄아시히 [東京朝日] 를 보니까 야마다 고사쿠 [山田耕作, 음악가]가 노농노서아(勞農露西亞; 노농 정부가 지배하는 러시아)의 음악대회에 갔다 온 인상기에 이러한 말이 있네. 즉 먹기 어렵고 입기 궁한 사람들에게는 예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말은 노농러시아에서는 통용치 않는다고. 왜 그러냐하면 혁명의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물적 혁명뿐이 아니고 지육(智育)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방명으로 균정된 발달을 물적 진보와 함께 진보되기를 요구하는 까닭이라 하얏대 조선 사람들, 특히 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함축 있는 교훈일세!”

모군 : “모처럼 한 한마디가 결국 꾸지람을 산 모양일세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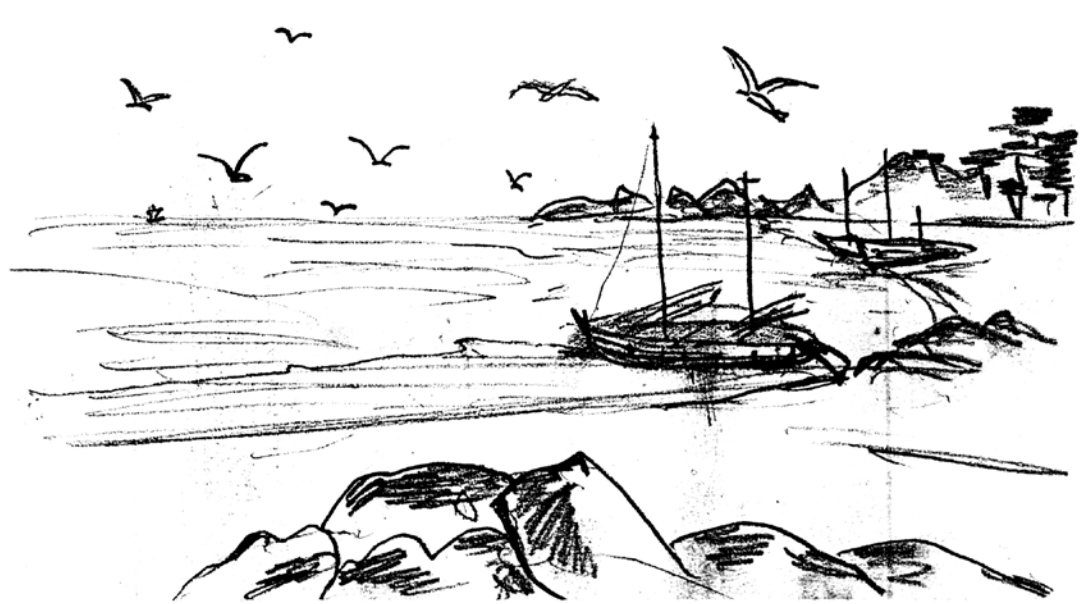
나 : “아니 내가 특히 군을 나무라는 것은 아닐세. 그저 그렇단 말이지. 결국 우리는 도량과 목표가 커야 한단 말일세. 물론 자네같이 그런 생각하기가 무리는 아닐세만, 그러나 결국 옳다는 것도 아니야. 자네 말대로 하면 조선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후에라야 문화가 있어야 될 터이니. 그렇다면 인간이 항상 전적(全的) 생활을 못하고 말 것일세. 물론 환경과 입지에 따라 문화의 내용이든지 가치가 달라질 것은 물론 달라져야 할 것이네만. 달라진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가치의 저하를 말함이 아닐세.” ³⁾

나는 이것이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 해야 할 일의 하나는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야 할 바를 이른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바로 고유섭이 평생을 바쳐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덧붙여, 2013년 모두 열 권으로 마무리된 ‘우현 고유섭 전집’의 마지막 권에는 그가 보았던 1,600여 권의 책 이름이 나온다. 이를 보면 그는 특히 고고학 성과를 반영한 북방 문화 관련 책에 관심이 높았다. 그가 우리 문화의 북방적 성격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청자가 단순한 청자가 아니라 상감청자가 된 것, 금속 그릇의 표면에 상감과 같은 기법인 입사가 유난히 많은 것이 우리 미술의 특징이라고 말한 연장선 상에서 탐구를 더욱 이어가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기초 예술에 해당할 건축에서 조선 건축이 일본 건축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중국 건축과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나서 죽을 때까지 쉴 새 없이 보는 일을 행하며 산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눈에 비치는 것을 보는 것이 보는 것인가? 본다 고 다 보는 것은 아니다. 나이, 성향, 심정에 따라 사람들은 부단히 다른 볼거리를 선택하며, 개별자마다 체험이나 환경이 달라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반응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체험이 쌓여감에 따라 생각의 방향, 성향, 건강 상태 혹은 각자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무상한 변화를 겪는다. 고유섭은 미학을 공부함으로써 조선 사람이 다른 누구의 시각도 아닌 조선의 시각으로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고유섭은 왜 그토록 이른 죽음을 맞았을까? 고유섭과 더불어 진단학회(우리 역사와 문화를 연구했던 조선인 전문가 연구 집단)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했던 사학자 이병도가 문병을 갔다가 본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병상 옆에 놓인 책을 보니 적어 넣거나 붙여 놓은 메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토록 열심히 공부했으니 어찌 병이 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탄식했다. 앞으로 누군가 “인천”이라고 할 때, 당신은 그곳에 고유섭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가 평생을 바쳐 조선의 옛 미술에 매진한 까닭을 상기하면서 말이다.



고유섭이 남긴 풍경 소묘.

1)
월간지 〈조광(朝光)〉 1937년 5월호에 실린 당대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 중 고유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현 고유섭 전집 - 제9권〉 (열화당, 2013.)에 실린 설문 모음을 참조했다. 문답 2에 나오는 서공원은 지금의 자유공원을 말한다.

2)
〈박문(博文)〉 제3집(박문서관, 1938)에 실린 ‘앞호리스멘’에서. 〈우현 고유섭 전집 - 제9권〉 (열화당, 2013년) 88~89쪽을 참조했다.

3)
1931. 10. 2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협진관평 1’에서 발췌. 원문의 에스려운 표현은 뜻이 전해지는 한 그대로 두었지만, 편의를 위해 한자어는 한글로 바꾸고 대체로 한글맞춤법에 따라 고쳤다.

겨울이 가니 봄이 왔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간다
나는 약속 한 데로
영세 가지나 그이 돌아 음을 기다린다
혹 그이가 죽어 버렸다면 ---
그이를 만나 볼수 있었었다 ---



고유섭이 남긴 소묘와 단상.

‘우현 고유섭 전집’
(전10권, 열화당)

2005년 우현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우현 고유섭 전집’은, 지금까지 출간된 저서들을 물론 미발표글, 사진, 소묘 등 고유섭이 남긴 모든 업적과 흔적을 한데 모은 것으로, 2013년 봄에 3차분 세 권을 출간하면서 마무리됐다. 이 전집은 ‘한국미의 등불’ 같은 존재이자 학자로서 올곧았던 우현의 삶을 기리고,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꼭 전공자가 아니라도 한번쯤 읽기를 시도할 만하다. 제9권의 해제 제목 ‘심후한 문장, 황홀한 유희’처럼, 부족한 공부를 미문으로 가리는 것과, 깊고 두텁게 파고들어 군이 장식하지 않아도 되는 힘 있는 생각의 경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제1권 - 조선미술사 上-총론편〉
〈제2권 - 조선미술사 下-각론편〉
〈제3권 - 조선탐파의 연구 上-총론편〉
〈제4권 - 조선탐파의 연구 下-각론편〉
〈제5권 - 고려청자〉
〈제6권 - 조선건축미술사 초고〉
〈제7권 - 송도의 고적〉
〈제8권 - 미학과 미술평론〉
〈제9권 - 수상·기행·일기·시〉
〈제10권 - 조선금석학 초고〉

최장수 선수, 최단명 감독 인천의 슈퍼스타 박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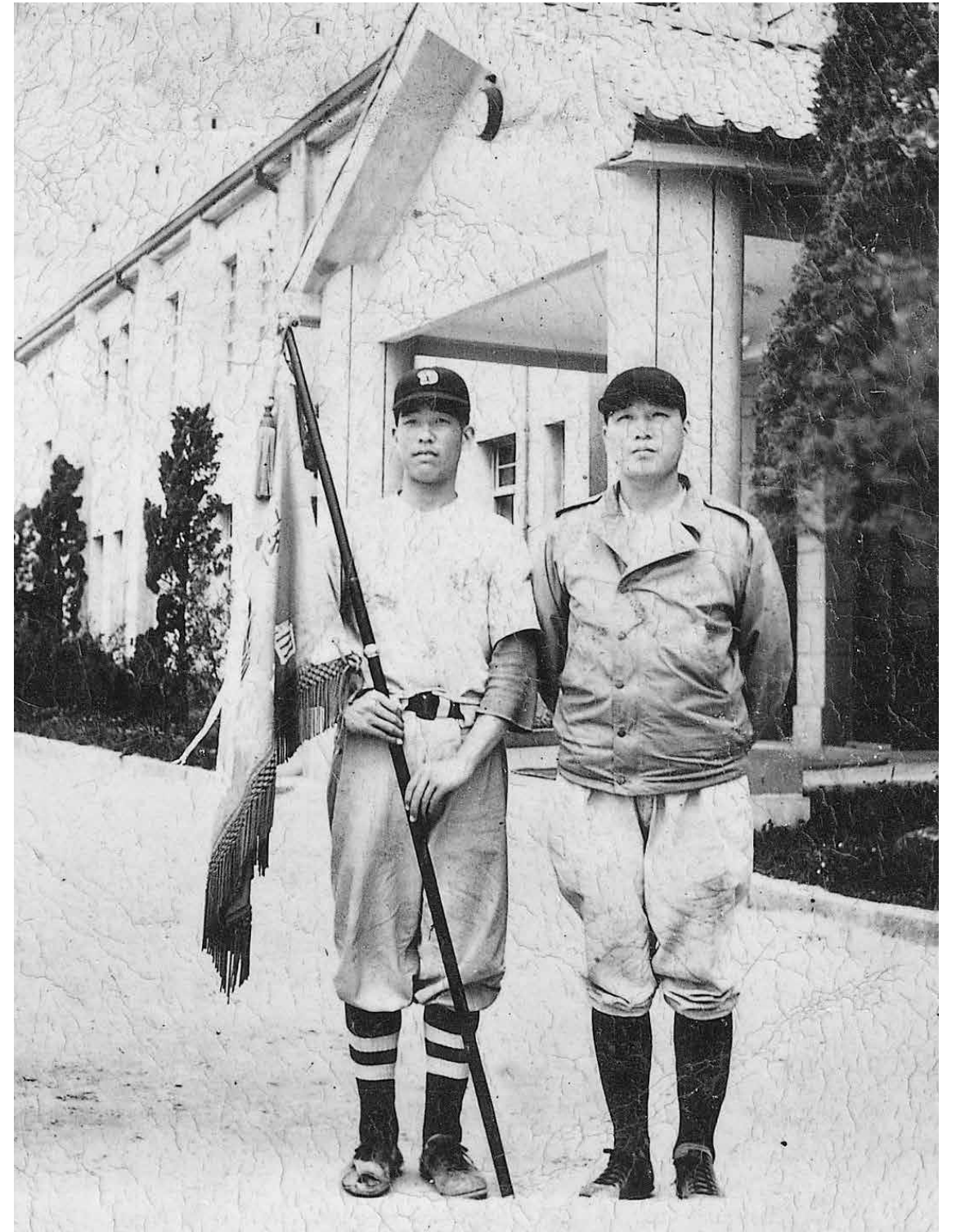
1981년 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획된 프로야구는 그 해 연말에 여섯 개의 구단을 똑딱 만들어냈고, 그 여섯 개의 구단은 바로 그 이듬해 봄부터 정규 시즌에 돌입했다. 요즘이라면 최소한 5년은 걸렸을 일이 대여섯 달 만에 마무리되어버린 무시무시한 속도였다. 그리고 그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삼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은 그 해 한 판 이기면 여덟 판을 지는 조리돌림을 당하고 말았다. 이즈음에서 개항기 인천을 통해 야구가 들어온 이래 딱 한 사람, 박현식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설거나 혹은 삼미 슈퍼스타즈의 불쌍한 감독 정도로 기억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프리배팅 시간이었다. 배팅볼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해 아까운 시간만 흘러갔다. “에잉, 그렇게 컨트롤이 없어서야 어떡하누. 이리 내놔봐.” 박감독은 스스로 마운드에 올라가 프리배팅 볼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몇 개 던지다보니 이번에는 타자 뒤에 쫓그리고 앉은 포수의 플레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에잉, 미트질을 그 따위로 하면 어떡해? 이리 줘봐.” 이번에는 주섬주섬 포수도구를 챙겨 입고는 포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몇 개를 받으며 살펴보니 이번에는 타자의 스윙 자세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다. “아니, 그런 식으로 휘두르면 어떡하냐 말이야. 이리 줘봐.”

이중남, 〈인천 야구 이야기〉 중에서

프로야구의 시작과 함께 1982년 23명으로 창단한 삼미 슈퍼스타즈. 가뜰이나 연고지인 인천의 선수층이 얇았던 데다 쓸 만한 선수들을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빼내거나 다른 구단에서 사올만한 요령도 없었고, 부족한 선수들이나마 체계적으로 키워낼 역량도 가지지 못했던 이 팀의 모든 짐을 떠안은 이는 초대 감독 박현식(1929~2005)이었다. 이미 십여 년 전에 야구계를 떠나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년을 기다리던 초로의 박현식도 삼미의 감독직이 썩 달가웠던 것은 아니다. 야구장을 떠난 지도 오래 되었거니와, 혹시 감독을 한다고 해도 선수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약체팀의 감독을 맡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삼미그룹 김현철 회장은 ‘인천 프로야구팀이 감독도 없이 출범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매달렸고, 역시 최대 거래처인 삼미그룹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은행장 역시 ‘한 번 해보시라’며 등을 떠밀어댔던 것이다.

글 : 김은식
주로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가다. 20여 권의 책을 썼다. 그 중 절반은 〈야구의 추억〉, 〈마지막 국가대표〉 등 야구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반은 장기려, 이회영, 공병우 같은 인물들에 관한 전기다. EBS에서 3년째 논술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최호왕



1940년대 초, 중학생 시절의 박현식 감독과 형인 박현덕 감독.



인천군 실업팀 시절 다른 실업팀 동료와 함께.



대표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육군 시절 훈련 중에 동료들과 함께.



동산고등학교 시절 동료들과 함께 우승 기념.

떠밀리듯 지휘봉을 잡은 삼미 슈퍼스타즈는 박현식 야구 인생에서 최대의 도전이었고 최악의 난관이었다. 야구를 시작한 이래 늘 최고였던 그의 자존심은 ‘객관적 전력의 열세’ 따위의 변명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현실과의 간격은 너무나도 넓었다. 국가대표팀 주전 멤버들이 같은 포지션에서 만나 출장 기회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MBC 청룡이나 애초에 국가대표 출신이 아니면 선발하지도 않았던 삼성 라이온즈 같은 팀도 있었지만, 삼미 슈퍼스타즈는 아예 국가대표 후보의 이력조차 가진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죽하면 삼미 특수장 일반직 사원으로 사회인 야구를 하던 감사용이라는 투수까지 영입을 해야 했을까.

“감독님이 워낙 슈퍼스타였잖아요.
투수로서도 최고였고, 타자로서도
최고였고, 또 포수도 하셨었고.
그러니 삼미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성에 안 차셨겠어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혼잣말하듯
푸념을 했어요. ‘광이 없어 광이.
광이 한두 장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맨 흑사리 껌데기만 들고
화투를 치냐’ 하고.”

(조홍운, 삼미 슈퍼스타즈 창단멤버)

그가 투수 코치로, 타격 코치로, 배터리 코치로, 다시 배팅볼 투수로 좌충우돌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팀은 이미 막힌 곳보다 뚫린 곳이 더 많은 상태였다.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그 구멍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야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던 구단주의 인내심은 겨우 13경기 밖에는 참아내지 못했다. 3번의 승리와 10번의 패배. 그 중에서도 2회까지 8점을 선취하며 크게 앞서 나가고도 12대 11로 경기를 내주며 그 뒤로 무려 20여 년간 깨지지 않은 최다 점수차 역전패 기록을 세웠던 4월 25일의 OB베이스전이 문제였다. 박현식 감독은 그렇게 역대 최단 경기 퇴진이라는 기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때 ‘박현식을 능가하는 홈런왕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야구 선수들에게 가장 큰 덕담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는 박현식이라는 이름이 끔찍하게 부실했던 야구팀의 불쌍한 감독 정도로 남게 되어버렸다.

야구로 개척한 삶

박현식은 어린 시절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인천으로 흘러든 ‘따라지’였다. 훗날 선수 시절 홈런을 쳐서 이기면 혼자서 불고기 18인분을 해치우며 자축했을 만큼 거대한 체격과 체력은 자연스럽게 그를 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또 쌀 천오백석 값을 계약금으로 받고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창단멤버로 입단해 한국인 최초의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던 큰 형 박현명과 해방 직후 국가대표팀이나 다름 없던 전인천군을 이끌었던 작은 형 박현덕의 영향으로 그 역시 야구선수로 성장했다. 특히 작은형 박현덕이 동산고의 상업 교사로 부임해 야구부를 창설하자 그의 지도를 받으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해 팀을 일약 전국 정상권으로 이끌게 되는데, 그가 광주의 김양중, 경남의 장태영과 이루었던 라이벌전은 한국고교야구사의 첫 번째 트로이카 시대로 기록된다. 그는 고교 시절 투수로서는 늘 2인자 내지 3인자였지만 고교 졸업 후에 타자로 전향하여 1인자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그는 야구라는 경기의 복잡한 톨을 배워가던 한국 야구팬들에게 홈런이라는 장관을 구경시켜주는 몇 안 되는 타자였고, 해방 전 활약했던 이영민으로부터 ‘한국의 베이브 루스’라는 별명을 물려받은 2세대 홈런왕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군에 소집된 그는 야구 실력 덕분에 국군과 미군을 오가기도 했고, 장교로 진급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휴가 중에 부산역 근처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 미군들을 보고 ‘한 번만 끼워달라’고 졸라서는 연속 홈런을 날리고 강속구를 뿌려대 영입 제안을 받았던 것이다. 미8군 안에 서는 부대 대항 야구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박현식의 실력이라면 부대의 성적을 훌쩍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군병장 박현식은 일약 미군 중사가 되었고, 곧장 미군 443병참대대의 우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55년에는 야구팀을 창단한 한국 육군팀에 스카우트되었다. 육군 중위로 진급한 박현식은 고교 시절 라이벌이던 장태영과 김양중을 끌어들이어 당대 대한민국 최강의 야구팀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어디서든 눈에 띄었던 대단한 실력 덕분에 그는 육군 시절부터 10년 이상 국가대표팀의 중심 타선에 개근을 했다. 그는 1954년에 창설된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 4번 타자로 출전한 이래 11년간이나 그 자리를 지켰고, 덕분에 196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6회 대회 때는 특별상으로 제정된 ‘철인상’을 수상함으로써 ‘아시아의 철인’이라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오늘날 ‘비 오는 날에도 경기할 수 있는 돔구장 건설’이 야구계의 숙원 중 하나가 되었다면, 박현식이 활약하던 반세기 전에는 ‘밤에도 경기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야구장 조명 시설이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박현식의 홈런이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1963년 9월 제 5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 전까지 한국의 전적은 두 번의 준우승과 두 번의 3위. 일본과 타이완, 필리핀까지 네 나라가 벌이는 대회였음을 감안하면 만년 하위권이었으며, 특히 일본에게는 단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약체였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치러지는 그 대회에서 첫 우승, 첫 극일(克日)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대회 한 달 전부터 합숙 훈련에 돌입한 선수들의 각오는 남달랐다.

역시 맹렬한 준비와 홈경기의 이점은 경기력으로 이어졌다. 한국팀은 타이완과 필리핀을 연파하며 양강으로 올라섰고, 2차 리그에서 펼쳐지는 일본과의 두 경기를 통해 우승과 준우승을 판가름하게 되어 있었다. 9월 25일, 2만5천 명의 기록적인 관중 앞에서 펼쳐진 1차 한일전에서 한국팀은 1회 말 동점 홈런을 날린 데이어 7회 말 역전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낸 박현식의 수훈으로 승리했다. 해방 후 18년 만에 일본에게 거둔 첫 승리였다. 그리고 나흘 뒤 열린 2차전에서도 박현식은 1회 초 보내기번트로 선취점에 다리를 놓는가 하면 8회 초에도 볼넷을 골라 나간 뒤 후속 타자 김응용의 홈런으로 홈을 밟아 결승 득점을 만들며 승리의 디딤돌이 되었다. 첫 ‘극일’과 ‘첫 아시아 제패’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단숨에 달성해버린 쾌거였다.

대회 직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선수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승 기념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김수환 단장이 답한 것이 바로 ‘조명탑 설치’였다. 그래서 3년 뒤인 1966년 9월 서울운동장에 처음으로 조명탑이 설치되었고,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이 퇴근한 직원들을 관중으로 삼아 역사적인 첫 야간 경기를 가질 수 있었다.

제일은행의 ‘선수 겸 감독’에서 ‘전업 감독’으로 전환했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여덟이었다. 그 시절에 그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은 우선 선수 몸을 챙겨주는 사람도, 기술도 없던 시기에 그만큼 스스로 철저한 몸 관리를 해왔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야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프로무대가 없었기에, 적절한 시기에 사무직으로 옮겨 앉아 먹고 살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길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서른일곱 살까지 그라운드를 누볐고, 또한 서른여섯에 출전해 ‘아시아의 철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6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3할대 중반의 타율을 기록했을 만큼 정상권의 실력을 꾸준히 유지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자란 김응용과 백인천이 그와 함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성장했고, 한국야구는 아시아야구의 중심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렇게 누구보다도 ‘길고 굵은’ 선수생활을 마친 그는 또 한동안 명지도자로 이름을 날렸고,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돌아와 삼미 슈퍼스타즈의 창단 감독을 지낸 뒤로도 한국야구위원회 심판위원장과 기록위원장, 그리고 LG트윈스 2군 감독으로 야구 인생을 이어갔다.

박현식은 지난 2005년 8월 20일, 평생의 꿈과 한과 추억과 미련이 배어있는 야구 유니폼을 갖춰 입은 채 누웠고, 길고 길었던 투병생활을 뒤로 하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사흘 뒤 그의 몸을 실은 운구차는 곳곳마다 그의 땀과 눈물과 환희의 기억들이 깃들어있는 동대문운동장(옛 서울운동장)을 돌아 경북 영천의 참전용사묘역으로 향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든다. 가장 뛰어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그저 대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개 끄덕여지고 눈물겹다가 존경스러워지는 삶으로써 야구사의 맨 앞자락을 채워주어서 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로지 대단한 기록과 영광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야구사의 첫 페이지였다면, 이따금 야구장에서의 일들이 내마음처럼 굴러가지 않을 때마다 ‘이깃 공놀이쥘’ 하고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가 훨씬 어렵지 않았겠는가.



1982년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미 슈퍼스타즈 창단식.



별세 한달여 전인 2005년 7월 16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시구를 하고 있는 박현식 감독.

영화가 인천을 소비하는 방식

글:정성일
영화평론가, 프랑스
문화원에 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글을 계속 쓰다가
대학에 갔다.1989년에
창간한 <로드쇼>의
편집자장을 시작으로,
1995년 영화 탄생 100
주년이 되던 해에 태어나
'90년대 시네필 문화'를
낳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키노>를 이끌며
영화 비평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2009년
<카페 느와르>로 감독에
데뷔했고, 현재 두번 째
작품을 준비 중이다.

당신께서는 인천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물론 대답은 없다, 일 것입니다. 아무도 인천에 여행을 다녀오지는 않습니다. 인천은 강릉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은 경주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홍상수는 여러 도시를 쏘다니면서 영화를 찍고 있지만 인천에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강원도의 힘>을 찍기 위해서 강릉을 거쳐서 설악산에 올라가지만 인천에서 “힘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생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춘천을 거쳐서 경주까지 여행했지만 그러나 인천을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생활의 발견>).

홍상수는 아마도 지금 한국 영화의 모든 감독들 중에서 장소가 주는 인상에 가장 예민한 예술가일 것입니다. 그 자신도 가장 존경하는 이름으로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치 세잔느가 삶의 마지막 순간 엑상프로방스에 머물면서 커다란 산 생 빅투아르를 끊임없이 다시 그리고 또 그리면서 변치 않는 어떤 힘을 찾은 것처럼 자기가 방문하는 도시의 힘과 리듬을 발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상수의 영화에는 인천이 없습니다. 다만 한번 인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적은 있었습니다. 홍상수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남자의 미래를 보고 싶어서 부천까지 가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길을 잃고 그런 다음 늦은 밤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총알 택시를 타려고 거리에서 서성거리면서 영화는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저는 조금만 더 예를 들고 싶습니다.

홍상수는 종종 바다를 쳐다보면서 거기에 변치 않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수수께끼를 찍고 싶어 했습니다. 인천은 바다를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홍상수는 바다가 보고 싶을 때마다 서해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아간 곳은 인천이 아닙니다. 홍상수는 <해변의 여인>에서 서해안에 있는 조용한 바닷가 신두리 해수욕장을 채여름이 오지 않은 늦봄에 두 남자와 한 여자, 그런 다음 다시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짝 지어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서해안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동반하여 전북 부안의 한적한 바닷가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를 찍었습니다. 가까운 인천을 내버려두고 그는 구테어 먼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인천에서도 영화를 찍어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요. 두 남자가 막 겨울이 시작된 어느 날, 인천에서 우연히 만난 다음 하루 종일 쏘다니다가 해가 떨어질 때 서로 제 갈 길로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선 그냥 쏘다녀야 할 거 같아요. 인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저는 쏘다닌다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쏘다닌다. 웬지 이 도시는 여기 살면서 드라마가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서 서울이 끝나는지 알 수 없고, 어디서부터 인천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그저 희미한 경계. 지하철을 타고 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어느 새 우리는 인천에 이미 도착해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곤 합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놓인 몇 개의 지명. 그저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도시가 이끄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부유하는 사람들. 혹은 떠도는 구름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이야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홍상수 <생활의 발견>,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해변의 여인>, <다른 나라에서>

이름이 지워진 채 등장하는 도시

그런 다음 한국 영화에서 인천이 배경인 영화를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인천에서 수 없이 많은 작품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거기가 인천이라는 사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인천이어서 찍은 것이 아니라 다만 서울에서 찍기 힘든 장면을 그와 유사한 풍경을 지닌 서울 인근의 지역에서 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차가 너무 많고 게다가 촬영이 금지된 지역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배우들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기에는 적절치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서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지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그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건 마치 도시 인천의 운명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인천은 많은 것들을 서울을 대신하여 거기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에서 인천이라는 지명이 지워져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도 인천의 골목 구석구석을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정재은의 <고양이를 부탁해>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다섯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들은 지금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런 다음 이제부터 시작될 세상의 삶이 궁금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인천의 풍경은 종종 정겹고 골목은 마치 옛 기억을 언제까지라도 보존할 듯 그렇게 거기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목 구석의 작은 집은 지붕이 주저앉고, 그렇게 소녀들은 각자 삶의 선택에서 주어진 운명에 따라 우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다가 막 나뉘어진 이 이야기를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산산조각나기 시작하는 것일까. 소녀 중의 한 명은 짐을 싸고 인천을 떠납니다. 이때 그녀가 떠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말하자면 이야기를 블랙홀로 만들어버리는 장소. 우리는 이야기의 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인물들 사이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사슬의 연쇄적인 반응에 따라 우리들의 운명은 종종 결정됩니다. 이때 공항으로 가버린 인물은 자기 자신을 이 씬에서 뺄셈으로 더해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 영화에서 인천공항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재은 <고양이를 부탁해>

부유하는 자들의 출입구, 인천공항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무리 인천을 이리저리 지워가면서 서울을 대신해서 찍는다 할지라도 인천공항을 찍을 때는 도리 없이 그 공간은 그 장소여야만 합니다. 영화에서는 오로지 그 장소일 때에만 그 지명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거짓말의 선수이며 눈속임의 예술이니까요. 당신이 본 재벌 집 안방은 종종 세트에 지나지 않았으며(<돈의 맛>), 도시 한 복판에다 감옥을 세우기도 합니다.(<올드보이>) 하지만 인천공항은 우리들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도리 없이 가야 하는 출입구입니다. 2001년 3월 29일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새벽 4시 46분 첫 착륙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는 한국사회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기호였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신자유주의의 불길한 증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매년 인천공항에 와서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지금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주인공들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 도착하는 장소였고, 또는 반대로 이야기를 모두 끝낸 주인공이 자기 나라를 등지고 몹시도 망설이면서 때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아마도 21세기 한국 영화가 지난 세기의 그것과 가장 다른 점은 그 마지막 장소가 공항인 영화들의 수없는 등장일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등장하는 영화들 중 가장 이상한 두 편의 영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하나는 중국 영화인 <명일천애(明日天涯)>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젊은 감독 중의 한 사람인 지아장커의 영화를 촬영하면서 자기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유릭와이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1세기가 막 시작됐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무대는 가까운 미래. 아시아는 지금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은 폐허에 가까운 집에서 사방으로 퍼져 나온 공장의 독가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다기보다 마치 세기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폐병에 걸려 죽어가는 소녀와 그녀를 따라 기꺼이 수용소를 선택한 남자, 그리고 정체불명의 한국 여자와 그녀에게 홀린 중국 청년.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우울하게 그려지는 영화에서 마지막 순간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네 사람은 세상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 공항으로 갑니다. 유릭와이는 이들이 향하는 공항을 인천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천공항이 밝은 희망으로 찍힌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괴물처럼 기괴해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유릭와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인천공항은 어떤 이미지였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해보였어요, 주변과 원근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달까, 한참을 보고 있으면 몽롱한 기분마저 주었으니까요.

다른 한편도 우연찮게 근미래를 그린 영화입니다. 문승욱 감독의 <나비>는 산성비가 쏟아지는 서울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나쁜 기억만을 지워주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있는 곳으로 나비떼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 서울을 찾아온 안나는 바이러스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인 이상한 소녀 유기와 그들을 태우고 나비를 따라다니는 택시운전사 K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됩니다. 이때 안나는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 몹시 기분 나쁜 인천공항의 풍경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천공항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이 기억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지정학적 감옥과도 같은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멜랑콜리’

나는 당신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공항으로 떠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먼 길에 오르니까. 혹은 막 긴 여행을 끝내고 인천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는 인천의 풍경에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당신께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영화의 주인공의 심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주인공의 마음이 되어 창문 바깥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까. 인천은 당신을 공항으로 이끄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적어도 영화에서 인천은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의 풍경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1876년 조선이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강화도조약을 맺었던 이래 그 장소가 준 역사적인 멜랑콜리의 감정이 거기 남아서 이어져 내려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인천을 그저 단 한 마디로 말해야 한다면 멜랑콜리라고 그렇게 조용하게 혼자서 불려보고 싶어집니다.

인천 건축의 두 장면, 오션스코프와 팻알(Pot-R)



역설의 건축, 오션스코프

송도신도시 내 인천아트센터 건립 예정지 인근에 세워진 이것은 ‘인천대교 전망대’라는 공식 명칭을 지닌 장소에 설치된 타워형 조형물로, 작품명은 오션스코프(Oceanscope)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타워는 우리의 인식 틀을 상식이라는 가둠에서 해방하는 건축이다. 이 타워는 컨테이너 박스를 여러 개 조합하고, 부분적인 면 절단과 적극적인 해체의 방법으로 각각을 다른 각도로 병렬 배치함으로써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며 전망대의 보편적 가치를 충족시킨다. 동시에, 산업사회의 일단과 지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여러 군데서 확인되는 개발 무드를 역설적으로 비춰주는 이념지향적 존재감을 드러낸다.

스스로 응시하는 타워는 도시 공간 인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사유한 결과다. 그것은 구축된 조형물일 뿐 건축임을 주장하지 않는다. 조리게 안에서 타워는 영락없이 인천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응시하는 기계 인간이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선전하는 많은 건물들이 규모의 경쟁력과 신자재, 신공법, 신조형에 집중해온 데 반해 오션스코프는 여간해선 주목하지 않는 작은 규모와 폐자재를 이용한 조형물이라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며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항전처럼 인천의 도시 공간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기능이 소거된 통상의 조형물과 다르게 기능을 탑재한 이 타워는 20세기 초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이 보여준 아방가르드적 작업 유형의 연장선에서 당시의 기억을 회미하게나마 유추시킨다.

글:전진삼
건축비평가. 격월간
건축 리포트 <와이드AR>
발행인이자 간행미디어랩
대표이다. 광운대 건축학과
점임 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친다. <조리게 속의
도시, 인천>, <건축의 불꽃>,
<건축의 마사지> 등의
비평집을 썼고, 1980년
월간 <시문학>에 시 ‘참회’를
발표하며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사진:박정훈



오션스코프는 모순에 저항하는 구축의 논리로 반(反)건축의 깃발을 펼친 건축의 역사를 이어가며, 수직지향형 도시 인천의 현대성을 굴절시킨다. 더불어 개발론자들의 나르시시즘을 단호하게 그러나 매우 환상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건축과 미술과 조경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 타워는 건축하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장소의 특질을 표명하는 발화자로서 자기 기능을 가짐으로써 건축의 진정성에 도달한다. 컨테이너라는 표준화된 대상의 조합 단계에서 보여준 수직과 수평의 변이는 단선적일 수 있는 공간의 시퀀스를 연출함과 동시에 제한적으로 오픈된 프레임을 통해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선을 해방시킨다. 컨테이너는 수출입 항만의 부두 일대에서 다량 발견되는 매체이지만 실상 일상에서는 친밀하지 못한 사물이다. 특히 수명을 다하여 폐기 대상이 된 컨테이너가 재생의 전략을 통해서 도시의 한 의미를 상징하는 언어의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정크 아트의 개념 또한 상기시킨다. 동시에 컨테이너 바닥판으로 인해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관람자의 동선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진폭의 소음, 그것은 또 다른 음역 안에서 공간을 느끼는 미학적 요소로 기능하기도 하는데, 몸으로 감지하는 현상학적 건축과 미술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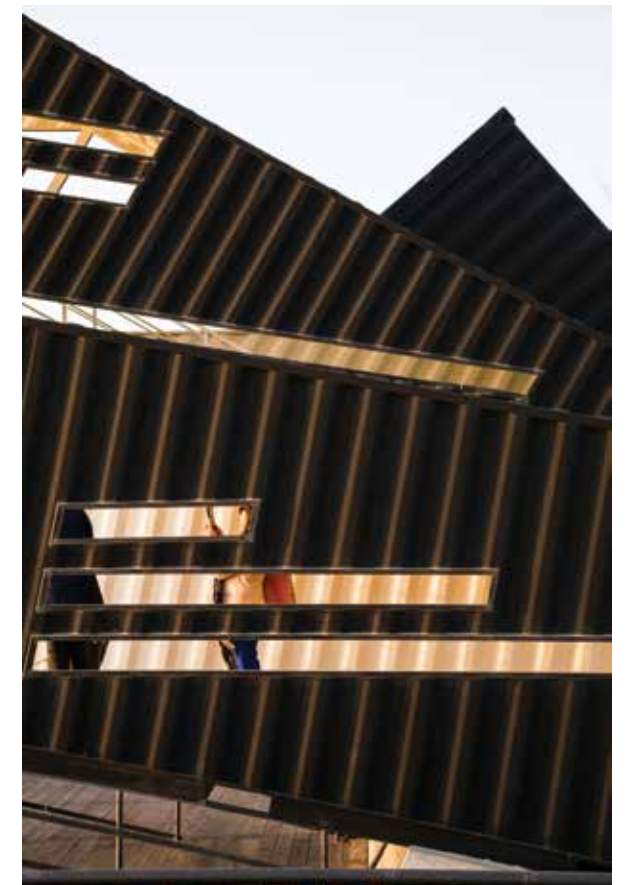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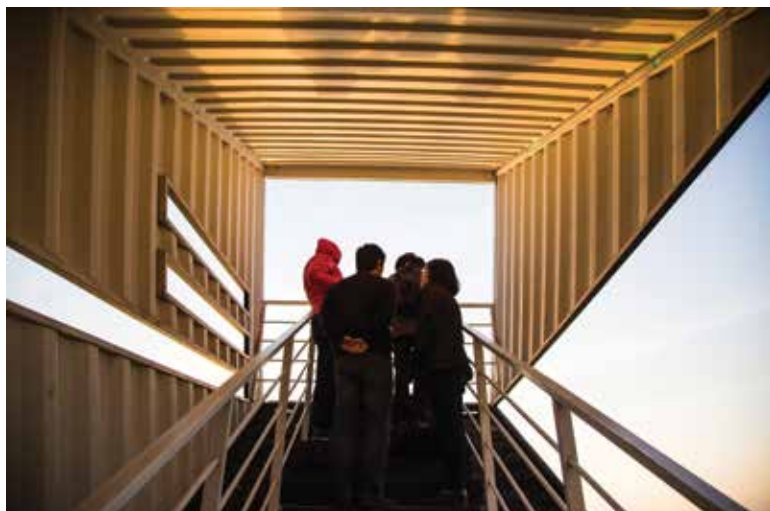
오션스코프는 한 사람의 기획자와 건축의 실험을 주도한 두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완성됐다. 이 작업의 출발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기획자 장길황(프로젝트 디렉터)의 역할이 컸다. 그는 인천항 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로부터 물류도시 인천의 상황을 읽어내고 이를 인천의 상징과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오브제로 활용했다. 사물을 응시하는 집요함과 그것을 통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내는 기획자의 안목은 이 작품의 탄생에 있어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로 발탁된 안기현과 이민수는 당시 미국의 건축설계회사에 재직하며 에이앤엘 스튜디오(AnL studio)를 결성해 게릴라식 건축 작업을 해오던 젊은 건축가들로 기획자와 함께 비상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다.



전망대 영역 안에는 다섯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다. 두 개는 단 차이를 가진 채 내륙을 향해 수평으로 누워 있다. 안내 부스나 전시 등 기타 용도로 계획되었다. 다른 세 개는 10°, 30°, 50°의 경사각을 가지며 각각 황해, 인천대교 그리고 텅 빈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양 끝부분을 절단함으로써 생겨난 프레임 창. 그것은 시선의 통로이다. 긴장감과 운동감을 동시에 고조시키는 듯 서로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 것은 건축가의 계산된 전략으로, 각각 전망 지점을 향하는 경사타워로 존재한다. 응시하는 컨테이너다. 정확히 오션스코프 자체가 응시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로 작동한다. 경사각을 디자인의 주요 인자로 삼고 있는 타워는 대상의 운동감을 시각화하고, 다시 정지된 대상을 통해 운동성을 조각하는 수법으로 조형물로서의 순기능에 화답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간과 운동의 건축 역사를 상기시킨다.

이 조각된 운동성은 장소가 의도하는 특정 대상과의 관계 미학에 착안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경사진 컨테이너의 사각 프레임이 목표로 하는 인공 혹은 자연대상에 대한 작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 타워가 인천대교를 응시하는 1차 목표를 수용하는 동시에 바다와 함께 했지만 바다와 친숙하지 못한 인천의 공간적 한계를 상기시키며 황해와 낙조의 도시 인천을 재차 강조하는 수용 미학적 프로그램을 전달한다. 그것이 이미 인천 지역사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특별할 것 없는 즉물적 시선의 한계를 지닌다손 쳐도 컨테이너라는, 이제껏 인천을 묘사하는데 별 쓸모를 찾지 못했던 사물을 통한 작업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무척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임엔 분명하다.

디자인 부존 자원의 결핍 도시 인천이라는 오명을 단숨에 씻어내리 듯 오션스코프는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로 불리는 ‘레드닷어워드 2010’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세계 57개국에서 17개 부문, 총 4,252개의 작품 가운데 하나로 출품되어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즉 최고상을 수상했다.



평행의 건축, 카페 팻알

개항장을 품었던 근대의 낯선 풍경이 오늘날엔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간다. 역사를 떠올린다면 상식적으로는 낯선 풍경이라야 맞을 터인데 말이다. 중구청 인근, 일본 조계지에 위치한 이 집이 그렇다. 건축 나이 120년. 집의 연수가 무색하리만큼 새로이 리모델링한 집의 표면은 반짝반짝 윤기가 흐른다. 개항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인천항에서 하역업을 했던 일본 점포형 주택의 전형적인 공간 구조가 남아 있다는 희귀성이 이 집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이유다. 이 집의 구입 과정과 복원 작업에 깊숙이 개입한 손장원(재능대 교수)은 여러 물증을 대조하여 집의 최초 건립 시점을 종전의 기록에서 대략 40년 앞당긴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로 밝혀내며 한 시대를 증거할 근대건축물로서 보존하는 데 힘을 실었다. 손 교수는 이 집이 일제강점기 때 하역회사의 사무소(1층)와 주택(2, 3층)으로 사용되었으며 비록 해방공간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일부 고쳐졌지만, 인근의 유사 점포 주택들과 달리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거뜬히 살아 남아 당시의 공간적 특징을 비교적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야[町家]의 점포 주택사 연구에 맞춤형하다고 평가한다. 그것이 전격적인 리모델링을 피하고 원형에 가까운 재현 수법을 도입한 까닭이기도 하다.

손 교수는 이 집의 가치를 고증하며 복원이라는 원칙 아래 설계의 방향을 끌고 갔고, 그 의지를 떠맡아줄 지역 내 건축가로 오장연(굿하우스 대표)을 만나 자신의 구상을 현재의 팻알(Pot-R)로 현실화했다. 이들은 과거 사진엽서를 근거로 건물의 전체적인 외형을 건립 당시인 19세기 일본식 건축물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가닥을 잡았다. 건물 정면의 베란다를 철거하고 일본식 기와지붕을 올린 눈썹지붕을 설치한 점, 건물 전면의 계단과 현관 지붕을 그대로 유지하고 마치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좁고 긴 통로[通り]와 점포[みせ]의 형태를 고수한 점이 그 대표적인 결과다. 특히 2, 3층은 다다미방을 계속 유지하며, 2층에 설치되었던 도쿄노마(床の間, 방 한쪽을 높게 하고 벽에는 서화, 바닥에는 꽃병 등으로 장식한 곳)를 재현하여 일본 주택의 특징을 살리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이 집은 일제강점기 일본 조계지 점포형 주택의 원형을 유지한 채 현대 감각으로 일본색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건축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또한 재현의 가치를 앞세운 이 집이 이 동네를 경험하고자 모여드는 수많은 건축 답사 동선의 쉼터이자 핵심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근대 풍경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에게 이례적 사건으로 자극을 주었다. 이 결과에는 이 집 새 주인 백영임(카페 팻알 대표)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인천 풀뿌리 문화의 산실이자 동네 문화재 지킴이 교육을 하는 시민 단체로 거듭난 해반문화사랑회의 주역으로, 손 교수와 더불어 이 집의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후 팻알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문화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집을 경험하기 위해 근대건축 연구자와 답사자들의 방문이 끊지 않고 근대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방문하는 횟수가 부쩍 증가했다는 걸 보면 꽤 많은 도시 재생의 건축 기획으로 자리 잡았음에 틀림없다. 그 안에 수집, 전시, 판매되는 일본 생활 문화의 파편들까지, 온전히 ‘일식 집 되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물건들이 더해지면서 이 집, 카페 팻알은 내용적으로 나날이 탄탄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종전까지의 대부분의 근대건축물 활용의 주체가 공공기관이었을 때 지금까지 커피숍이나 음식점으로 전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규모의 적정성을 무시하고 박물관, 전시장 일색이었다. 각급 지자체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의 권장 업종이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 및 영업시설, 예술단체 활동 관련 업종, 장인·수공예 업종으로 제한되다 보니, 근대기 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근대건축물 활용의 한계를 노정시켰고, 그 바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조차 근대건축물은 애물단지 이상이 아니었다.”

(손장원)

팻알은 그런 점에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많은 건축물이다. 민간이 근대건축물 활용의 주체가 되어 공간의 기능 면에서 한 걸음 나아간 사례이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낮은 이자의 자금을 융자받아 공동화되어가는 원도심에 민간의 시선이 모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특히 그렇다. 과거 특정 시간대의 기억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 당대의 일원으로 수용되는 것에 여전히 걸림돌이 많은 세태를 가로지르며,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이를 통해 도시 공간 내에서 시간의 평행선을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이다.

1층의 옛 점포와 부엌을 하나의 연속 공간으로 개조하여 현대 감각과 조화를 이룬 카페의 공간 구성이나 인테리어 요소로 드러낸 속살은 그 자체로 오랜 시간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또 내벽을 경계로 좁고 긴 통로 벽면에 설치된 전시물은 이 집의 이력을 무척 소담스럽게 전달해주는 안내판으로도 제격이다. 집이 통째로 말하고, 말을 걸어온다. 이 집의 손님들은 줄지에 근대의 건축공간이 생성, 성장, 변화하는 과정을 공부한다. 발상이 좋다.

2, 3층은 다다미방의 원형을 재현하고 있다. 이 집 건립 당시의 재래 일식 주택이 가족 본위의 공간이기보다 접객 공간으로서의 방의 구성이라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현재 2층 이상에 구현된 다다미방은 작은 소모임이나 갤러리 공간 등으로 나날이 쓰임새가 확장될 태세다.



“함께 걸으며 수도도 땀시다”

우리는 매일 걷는다. 그러나 걷기를 자신의 예술 형식으로 활용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과거 상황주의자(Situationist)들은 도시를 표류하며 얻은 특별한 경험을 자본주의 사회가 대중들에게 강요하는 스펙터클과 대비시키며 도시 속 ‘표류’를 자신의 방법론으로 활용했다. 작가 이주영의 ‘함께 걸으며 수도도 땀시다’는 지역이 가진 장소성을 걷기가 주는 특별한 경험 속에서 발견하자는 취지의 퍼포먼스이다. 2013년 3월 작가 이주영과 디자이너 김경태, 그리고 필자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걸었다. 배다리에서 시작한 걷기는 자유공원과 청일 조계지를 거쳐 신포시장에서 마무리되었다. 원래 예상 일정은 3시간 정도였지만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책 구경도 하고 밥과 술도 한잔 하고 나니 낮 12시 즈음 시작한 걷기는 서울 가는 전철 막차 시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글: 임정용
현재 독립출판사 미디어버스와 마포구 합정동에서 작은 서점 더 북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다. 작은 것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글: 이주영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으며 개인과 공공의 경계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며 공공 영역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트선재센터,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여러 미술관에서 작업을 소개해 왔다.

사진: 김경태
중앙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5년간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로 생활했다. 사물을 촬영하는 것에 관심과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예술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동인천역에서 출발한 걷기는 휴일을 맞아 적막했던 중앙시장을 지나 배다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배다리는 일본인들이 제물포 주변에 만든 조계지가 확장되면서 쫓겨난 조선인들이 살던 동네였다. 혹시 막걸리로 유명한 동네가 여기냐고 물었더니 그 배다리와는 다른 곳이라고 했다. 예전에 작은 공장들이 많았고 지금은 헌책방과 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거리가 조성되고 있다. 헌책방 몇 군데를 지나 우리가 찾은 곳은 2002년 1월에 개관한 ‘스페이스 빔’이다. 1995년 지역미술 연구모임으로 시작한 공동체를 모체로 하며 지금은 실천적인 인천 지역 미술 공간으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페이스 빔은 옛 인천양조장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각종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인천 지역의 미술 및 커뮤니티 유지와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운기 대표가 데려간 곳은 스페이스 빔 근처의 텃밭이었다.



“인천은 처음으로 근대 문물이 들어온 곳 가운데 하나여서 그런지 건축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함께 걸으면서 수도도 땀시다’는 건축물을 구경하자는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걷다보면 주변의 관계, 상황, 사람, 이야기들을 모두 볼 수 있어요. 역사가 두텁게 쌓여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공간을 선택했어요. 이 퍼포먼스는 우리가 교육으로 배운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면서 논쟁하고 자료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의 장소성을 배우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어요. 2009년 인천 구도심을 배경으로 매주 토요일에 진행했고 이후 정동, 요코하마, 베를린 등에서도 했는데 그 뿌리는 인천에 있죠.” (이주영)





“여기는 송도신도시와 청라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택들을 철거한 곳이에요. 직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마을을 두 동강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지하 도로를 뚫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곳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청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2010년에 이곳을 공원으로 오픈하면서 구청에서 코스모스 씨를 뿌렸어요. 꽃이 피면 물론 아름답기는 하지만 주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주입하는 것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많은 협상과 투쟁이 있었고 결국 공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이 공간을 활용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죠. 그래서 이곳을 텃밭으로 꾸미기로 하고 30여 개의 밭을 만들었어요. 동네 주민들에게 분양을 하고 작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각자 배추나 무, 총각무, 마늘, 고추 등을 심었고 수확물을 가지고 김장도 담그고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했어요.”
(민운기)



빨리 가고자 하는 욕망은 사람이 멀쩡하게 사는 집을 도로로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욕망의 흔적 위에 만들어진 작은 텃밭은 동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무언가를 가꾸고 그 결과를 수확해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이웃’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텃밭 프로젝트는 스페이스 빔의 목표이자 정체성인 ‘지역’과 ‘공동체’의 유기적 연결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술가 부부가 운영하는 ‘아티스트스페이스’

자유공원을 지나 차이나타운을 향해 걸으면 과연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색적이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펼쳐져 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 있는 청일 조계지 경계 지점의 계단은 일본과 청나라 조계를 나누는 이정표이다. 그 계단에 위치한 '낙타사막'은 예술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이자 전시 공간이다. 인천에서 미술대학을 나오고 인천이 좋아 이곳에 자리를 잡아버린 김홍희, 박미나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고쳐 만들었는데 원래 일본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한옥 장인과 함께 나무를 고르고 안에 서까래를 넣어서 개조했단다. 원래 집이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는데 벽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안에 새로운 집을 넣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니 이 작은 건물 안에 일본식 건물과 한옥이 함께 있는 셈이다. 이렇게 꾸며진 작은 공간은 인천 미술 활성화와 지역 간 교류를 위한 전시, 포럼,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시도를 하고 있다. 김홍희 작가가 소개해준 중국집에서 오향장육과 연태 고량주 한 병을 먹고 나니 해가 저물어버렸다. 서둘러 이번 걷기의 마지막 장소인 신포시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현재를 걸으며 과거를 발견하다

배다리에서 자유공원으로 가는 길은 지금 인천 구도심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시 외곽에 송도, 영종, 청라 지역이 개발되면서 대규모 주거 시설과 쇼핑센터가 들어섰고 그 결과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건물이나 집은 있지만 사람이 살거나 장사를 하는 곳은 많지 않아 보였다. 그러다가 홍예문(虹鰭門)을 만났다. 일본인 조계지가 있던 개항장 일대에서 지금의 동인천역 지역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터널이다. 터널 내부가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공사에 참여했던 중국인들 다수가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곳을 지나니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주택지 사이로 맥아더 장군 동상이 보인다. 한국 최초의 근대 공원으로 알려진 자유공원이다. 평일 낮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즐기고 있었다. 이름은 자유공원이지만 사실 여기는 조선에서 각축하던 여러 열강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공원 입구에 있는 제물포구락부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외국인들의 옛 사교 클럽은 나를 근사했다. 열강의 대표들이 술잔을 들고 담소를 나눴을 법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그들은 조선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쳐다봤을까.



“1980년대 말 인천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 동네는 나뭇 변화했어요. 작가들 작업실도 많았고 사람들이 북적거렸죠. 개항 당시 사진을 보면 여기 청일 조계지 계단 밑으로 해서 코앞까지 배가 들어왔어요. 은행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인천 최고의 번화가였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모두 서울이나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상가도 관광객만 상대할 정도로 쇠락했어요.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인천문화재단이나 인천아트플랫폼 같은 기관들과 함께 일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시도들도 하고 있어요.” (김홍희)



마지막 행선지로 선택한 ‘청년 플러스’는 젊은이 40여 명이 출자해 만든 공간이다. 이름처럼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곳이다. 서울로 가는 것을 유일한 대안처럼 생각하는 인천의 젊은 세대에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장점을 알리고 자생할 수 있는 문화적, 물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페스티벌도 기획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좀 더 지속 가능한 형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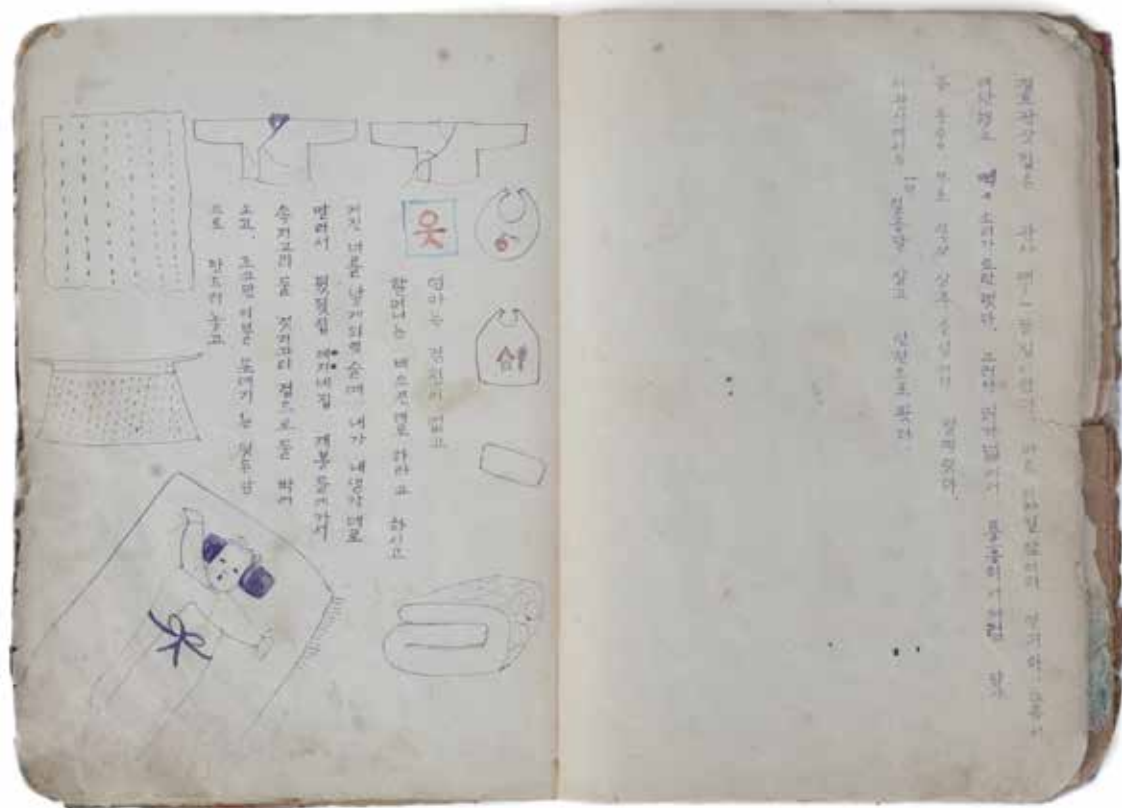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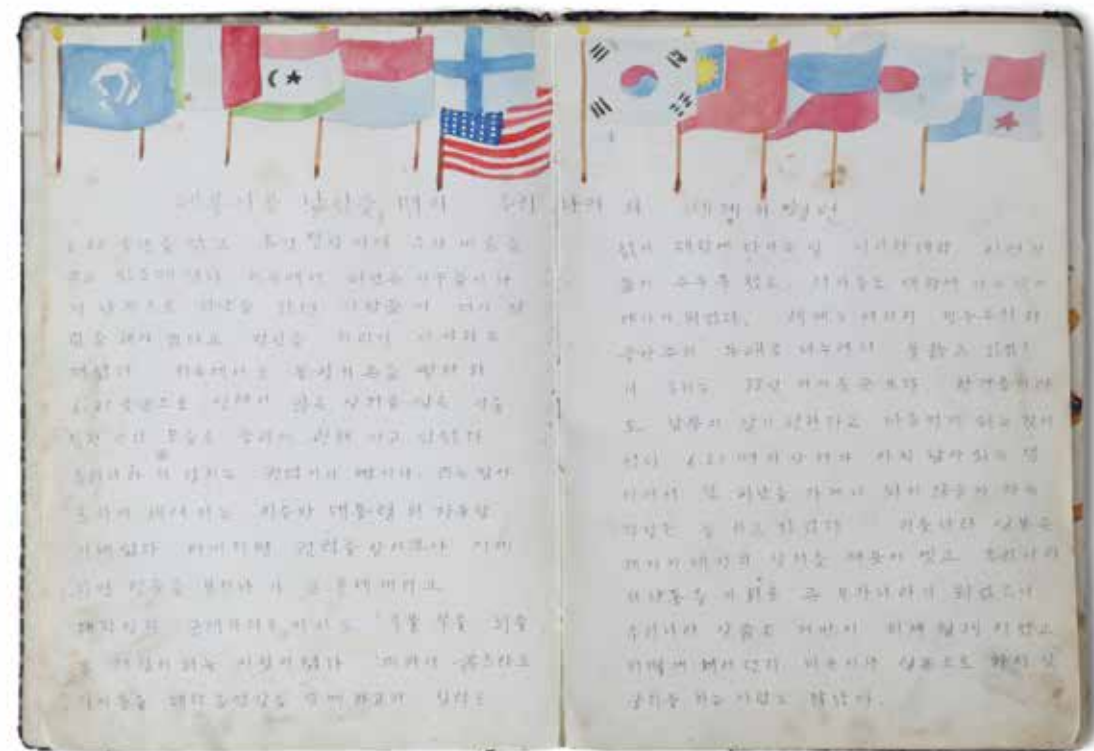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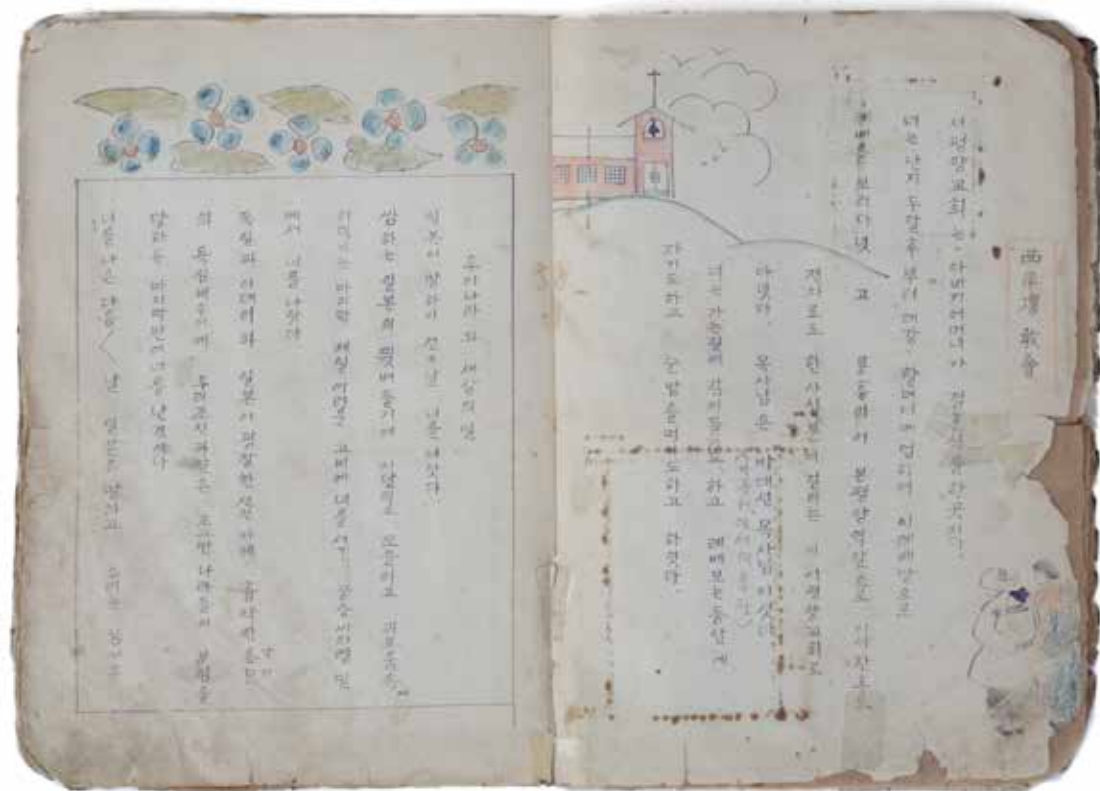
“여기 모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었어요. 살아가는데 막막함 같은 것도 느꼈고 살아갈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천의 많은 젊은이들은 서울에 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인천 안에서 그런 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 공간은 오픈 랩(open lab) 형식으로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것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40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다보니 각자의 직업이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어요. 운영 역시 지원을 받기보다는 각자 출자금을 내서 하고 있죠.”
(유마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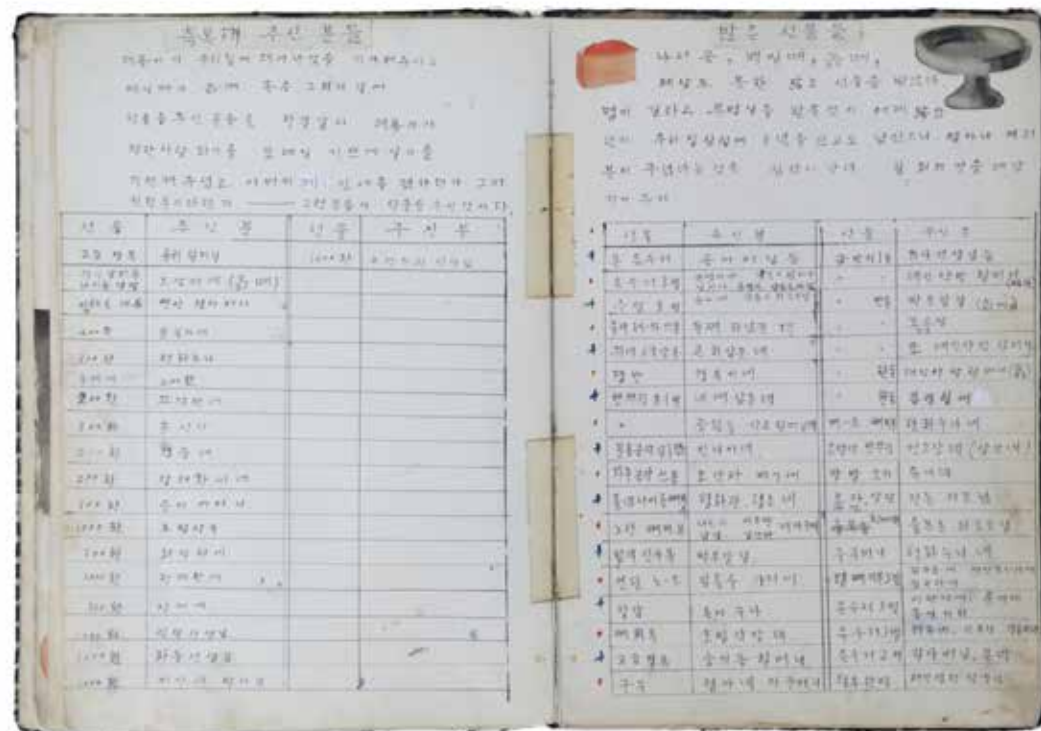


인천은 걷기에 매력적인 도시이다. 특히 인천의 구도심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라 할 정도로 한국 근대사와 문물이 집약된 장소이다. 열강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온 한국의 근대가 이곳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터전을 일구며 작업하고 있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은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지금의 조건 안에서 새로운 역사성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상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도 이번 걷기를 통해 새삼 깨달았다. 함께 수다를 떨면서 걷다보니 시간은 빨리 갔지만 마치 한 권의 역사책을 읽은 듯한 느낌도 있다. 신기하게도 배다리에서 시작된 여정이 자유시장과 차이나타운을 거쳐 신포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젊은 세대를 만났고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인천의 문화와 예술의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인천을 떠나기 위해 머물렀던 인천역 플랫폼의 밤공기가 그리 춥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이다.



인천에서 4녀 1남을 키우며 한명 한명이 나서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무렵까지를 기록한 박정희 할머니의 육아일기(1952년부터 1963년까지) 원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박정희 할머니의 행복한 육아일기> (박정희, 걷는책)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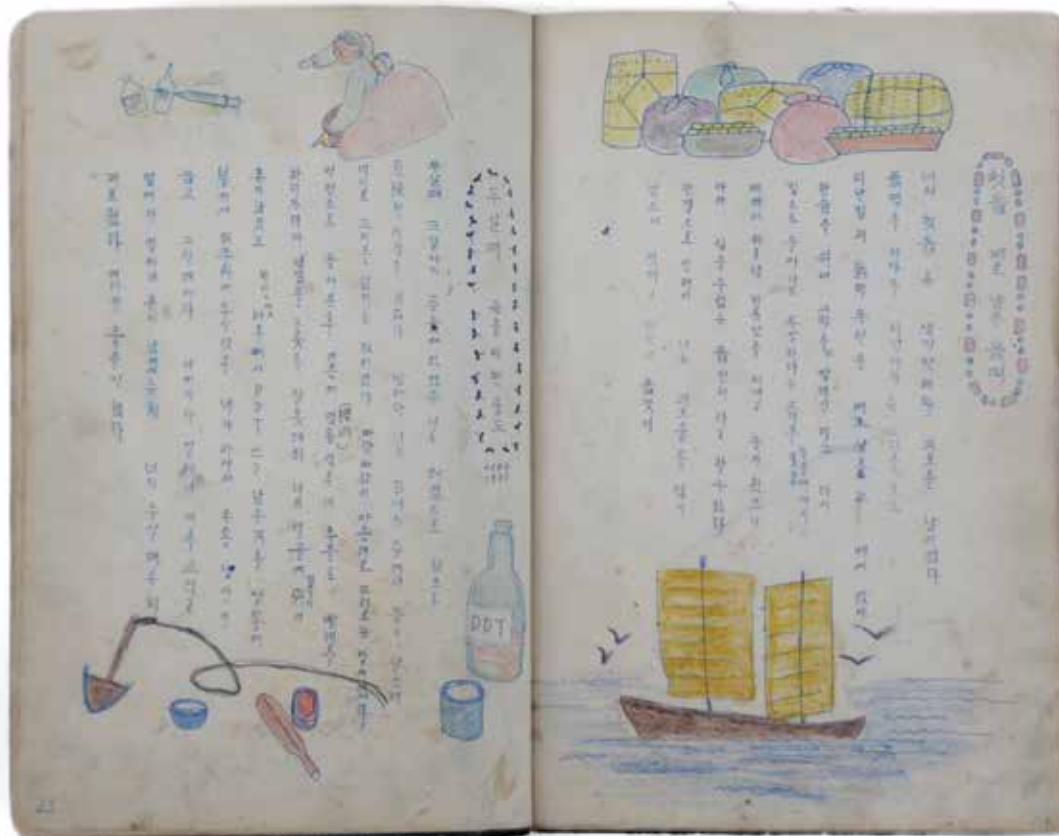


삼나무와
원숭이,
그리고
사슴의
섬

屋

느리게
사는
사람들의
섬

久



야쿠시마
屋久島

島

야쿠시마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죠몬스기를 찾아간다.
그리고 다녀온 뒤에는
“죠몬스기를 만나고 왔다.”고
말한다. 마치 나무가 사람인듯.
커다란 옹이로 물결치는 나무 껍질,
굽고 거대한 줄기, 시원시원하게
뻗은 나뭇가지까지, 7,200년을
살아온 그 생명은 결코
위압적이지 않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고요하게, 묵직하게.
야쿠시마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

At a glance



야쿠시마 屋久島

Yakushima

수령 7,200년으로 추정되는 일본 최고(最古)의 삼나무를 비롯해 수백~수천 년 된 나무들이 즐비한 섬. '1년 365일 중 366일 비가 온다'거나 '한 달에 35일은 비가 내린다'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은 섬. 사람 2만에 원숭이 2만, 사슴 2만 마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섬. 큐슈에서 가장 높은 해발 1,936m의 산이 있고, 해발 1,800m가 넘는 봉우리만 7개, 1,000m 이상 봉우리들은 그야말로 부지기수인 섬.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섬.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1941~] 감독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히메[もののけ姫, 원령공주]〉의 배경이 된 섬. 모두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2시간 여가량을 더 남쪽으로 가야 닿는 섬, '야쿠시마[屋久島]'를 가리키는 수식어들이다.



인천에서 야쿠시마까지

일본 열도 남단인 큐슈[九州] 가고시마 [鹿児島]현에 속해 있는야쿠시마 [屋久島]는, 인천에서 가고시마까지 비행기로 1시간 20분 이동한 뒤, 가고시마에서 야쿠시마까지 고속 페리나 국내선 항공을 이용해 들어간다.

1. 인천- 가고시마:

매주 3회(일요일-수요일-금요일)
대한항공 직항 운항

2. 가고시마-야쿠시마:

고속페리를 이용할 경우

가고시마공항- 가고시마 항구:
리무진 버스로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공항 출국장 안내 데스크에서 버스 타는 곳과 시간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편도 1,200엔 배 시간에 맞추려면 출국장에서부터 서두르는 게 좋다.

가고시마항구- 안보(安房)항이나 미야노우라(宮之浦)항:
고속페리 토피(Topy)는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7회 운행된다. 안보 직행편이나 경유편이냐에 따라 소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으로 다르다.
요금은 성인 기준, 왕복 1만5천 엔이다.
바람이 심하면 결항하는 수도 있다.
www.tykousoku.jp

국내선 항공을 이용할 경우

가고시마공항- 야쿠시마공항: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가고시마공항에서 야쿠시마공항까지 JAC항공이 하루 4회 운행되며, 약 35분 걸린다.
가격은 배상의 1.5 - 2배 정도다.
www.jac.co.jp



일본에서 1, 2위를 다투는 급류

직경 약 25킬로미터인 야쿠시마는 1,936미터의 큐슈 최고봉 미야노우라다케[宮之浦岳]를 중심으로 사발을 엮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비가 내리면 산의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물살이 빠른 강이 많다. 안보강도 일본에서 1,2위를 다투는 급류로, 야쿠시마의 아름다운 폭포들은 이런 험준한 지형이 낳은 결과다. 마을 근처든, 계곡이든, 야쿠시마의 강은 빨려 들어갈 듯 맑다. 마을로 흘러드는 안보강을 따라 느릿느릿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무심하게 강물을 바라보는 것도 지루하지 않다. 카약을 하며 활기차게 자연을 즐기는 이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섬 곳곳에 카약 장비 대여점이 있다.



일본 열도의 기후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섬

남쪽이라서 야쿠시마가 무척 따뜻한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야노우라다케는 연평균 기온이 6도 전후로 홋카이도와 비슷하고, 마을이 있는 해안가는 연평균 20도 전후로 오키나와와 같은 아열대 기후이다. 즉 평지에서는 얇은 옷을 입고 있어도 산에서는 눈이 오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온 차이는 식생에도 영향을 미쳐서 평지에서는 가주마루(대만고무나무) 나 조엽수림을, 500미터부터는 야쿠스기를 포함한 침엽수림을 볼 수 있고, 1,800미터 산 정상 부근에서는 야쿠시마 대나무나 선 채로 말라버린 백골의 야쿠스기, 진달래나 철쭉 및 야쿠시마 특유의 고산식물 등을 볼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을 통과하는 25킬로미터의 서부임도

서부임도[西部林道]는 야쿠시마를 일주하는 77번, 78번 도로 중 서쪽 쿠리오[栗生]와 나가타 [永田] 사이의 25킬로미터를 말한다. 흔히 야쿠시마 전체가 세계자연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미야노우라다케 등의 산 정상 부근과 거기서 이어지는 일부 해안선까지 약 1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말한다. 등산로 외에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이 곳 서부임도 일부 구간뿐이다. 바다를 끼고 달리지만 숲속에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야쿠원숭이나 야쿠사슴을 만날 확률은 99.9퍼센트. 자전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면 여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도중에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구간이 있고 커브도 많아서 아주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차로 달리면 한 바퀴 도는데 약 100킬로미터

미야노우라다케를 중심으로 야쿠시마의 숲과 바다는 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물이 순환하며 야쿠시마의 자연을 지배한다. 야쿠시마를 찾은 가장 큰 목적은 이끼 낀 숲을 거닐고 오래된 삼나무를 만나는 것이지만, 이 섬에는 그 외에도 즐길 것들이 많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잠시 바다로 내려가도 좋고, 해안도로에서 조금 벗어나면 개성 넘치는 자연을 볼 수 있어서 더 좋다.



비의 섬, 이끼가 자라는 숲

삼나무들의 섬 야쿠시마는 비의 섬이기도 하다. ‘1달에 35일 비가 온다’는 비유는 야쿠시마 소개글이면 어디나 등장한다. 야쿠시마의 비는 갑자기, 또 맹렬하게 쏟아진다. 섬 전체가 산 모양을 하고 있어 바다로부터 비구름이 쉽게 생겨나고, 큰 비는 토양을 씻어 내린다. 하지만 야쿠시마에는 이끼 또한 많아서, 웅단 같은 이끼가 비를 축적해 싱싱한 숲을 만든다.



홀연히 나타나는 바닷가 노천 온천

섬의 북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남쪽까지는 곳곳에 온천이 있다.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히라우치[平内] 해중온천은 바닷가에 면한 노천 온천으로, 하루 두 번 썰물 때 이용할 수 있다. 오전 썰물이 11시에 있었으면, 밤 11시에 다시 이용 가능한 식이다. 맑은 날 저녁이면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진다. 다만, 탈의실이 없고 수영복 착용은 금지이며 남녀혼탕이다. 썰물 시간은 안보안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인함에 협력금 100엔을 넣으면 입장 완료.



편도로 즐기는 자전거 여행

야쿠시마를 느긋하게 즐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전거 타기다. 특히 섬 곳곳에는 ‘대어 자전거 협력점’이 있어서, 어디에서 자전거를 빌리든,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동네에는 반드시 협력점이 있다. 평소 자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서부임도 일주도 도전할만하다. 다만 커브가 많고 시야가 협소한 길이라 늘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내리막길이라도 속도를 내는 건 위험하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렌터카가 많기 때문에 종종 사고가 난다. 보통 3시간 정도면 주파할 수 있지만 경치를 즐기거나 야생 동물을 만나다 보면 주행 시간이 길어지니 시간 계획은 넉넉하게 세우는 게 좋다. 자전거는 빌리기 전날 예약하고, 출발할 때는 반납할 협력점의 폐점 시간을 확인해 두자. 요금은 1일 800엔.



야쿠사슴

체구가 작고 푹뭉뚱뭉한 눈을 가진 야쿠사슴은 마을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두루 퍼져 사는데, 특히 서부임도나 시라타니운스이 협곡, 그리고 산 정상 부근에서 많이 보인다. 야쿠사슴은 매년 새로 뿔이 나고 클수록 가지도 많아진다. 뿔이 여러 갈래로 나 있으면 나이가 많은 사슴이다. 봄에 만날 수 있는 아기 사슴은, 뿔은 없지만 머리 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 야쿠원숭이와 아주 친하다.



야쿠원숭이

회갈색털의 원숭이로 주로 무리를 지어 다닌다. 섬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특히 서부임도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나무 잎이나 과일, 꽃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든지 잘 먹는 잡식성이다. 상당히 예민해서 무심코 다가갔다가는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거칠게 공격할 수도 있다. 최근 야쿠원숭이들이 마을의 논밭을 망치고 다녀서 골치라고 한다.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차 위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먹이를 주면 안 된다.



흰 백사장의 붉은바다거북이

나가타의 이나카[いなか]는 동지나해에 면한 800미터의 흰 모래사장 해안으로, 특히 붉은바다거북이의 산란 장소로 유명하다. 5월~7월이 산란 시기로, 부화해 5센티미터 정도 자란 새끼거북이들은 멀리 캘리포니아를 향해 태평양으로 떠난다.

남쪽으로
튀어!

2박 3일 야쿠시마
중단 트레킹



글: 권기봉 / 사진: 박정훈



수천 년된 삼나무들의 섬 야쿠시마 [屋久島]는 제주도의 절반만한 둘레로 그다지 크지 않은 섬이지만, 수많은 고산준봉(高山峻峯)과 심산유곡(深山幽谷)을 지닌 섬 답게 최고의 트레일을 만날 수 있다. 봄, 관광객들로 섬이 붐비기 직전에 야쿠시마를 찾았다.

인천공항에서 일본 가고시마공항[鹿児島空港]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날짜 변경선을 넘나든 듯했다. 인천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초봄의 스산한 기운 때문에 재킷을 꺼입었는데 가고시마공항에 내리는 순간 재킷은 커녕 긴팔 셔츠조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3월 말, 가고시마[鹿児島]의 낮 기온은 이미 20도를 넘나들고 있었다. 한국에서 야쿠시마로 가는 직항은 아직 없다. 일단 가고시마에 내려 국내선을 갈아타거나 고속 페리를 이용해 섬에 들어가야 한다. 섬 여행의 기분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배가 제격.



산악 가이드 제니퍼를 만나다

안보항은 한적한 어항(漁港) 분위기였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오후 5시였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영업을 마쳤고, 몇몇 이자카야만이 흥등을 내걸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일단 안보안내소를 찾았다. 한국에서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대강의 정보만 있을 뿐, 트레킹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는 찾기가 어려웠다. 안내소에서 우리는 2박 3일 트레킹을 가이드해 줄 제니퍼 루(Jennifer Lue)를 만났다. 1년 6개월 전부터 야쿠시마에서 산악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흰철한 키의 미국 여성. 일본어도 유창했다.

“산악 지도도 없이 왔다고요? 농담이죠? 아무리 작아도 야쿠시마는 만만한 섬이 아니에요! 산장도 모두 무인산장 뿐이라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제니퍼가 알 턱이 없다. 그만큼 야쿠시마를 찾는 한국인 백패커들의 발길이 뜸했다는 뜻이리라.

야쿠시마 트레일은 당일치기에서부터 2박 3일 코스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주요 루트 외에 지선까지 합하면 수십 개의 코스가 가능하다. 섬에 하루 이틀 정도 머무는 여행자들은 ‘야쿠스기[屋久杉] 랜드’라 불리는 야쿠시마 특유의 오래된 삼나무(스기; 杉)를 둘러보거나 수령 7,200년으로 추정하는 삼나무 ‘조몬스기[縄文杉]’를 만나러 간다. 우리는 야쿠시마 북동쪽에서 출발해 중앙을 관통한 다음 남쪽으로 내려오는, 2박 3일 중단 트레일을 선택했다.



원령 공주의 숲에 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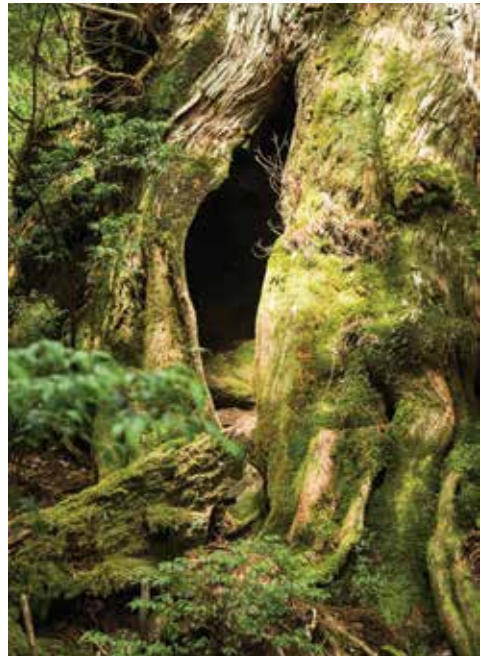
새벽 네 시 반, 전날 예약해 둔 아침 도시락을 찾은 뒤 차로 50여 분을 달려 트레킹의 시작점인 작은 마을 쿠스가와[楠川]에 도착했다. 새벽 6시가 채 안 돼 사위가 어둡컴컴했지만 계속 물소리를 따라 산행을 하는 동안 여명이 밝아왔다. 주변이 시야에 들어왔고 우리는 뻥뻥한 삼나무 숲을 걸고 있었다.

“이 삼나무 숲은 1970년대 이후에 조성된 거예요. 1970년대 들어 일본에서도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되면서 그게 이 오지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 숲도 대단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놀라운 것들이 많으니까 서둘러 가죠.”

한국에서 온 여행자의 눈에는 직경 30~50cm의 삼나무들도 분명 독특한 풍경이었는데 제니퍼는 걸음을 재촉했다. 약 두 시간 반쯤 올랐을까. <모노노케히메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었다는 시라타니운스이[白谷雲水] 협곡에 도착했다. 딱히 표지판 같은 건 없었지만 신비롭고 장엄하고 또 괴괴하기까지 한 기운에 이끌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야쿠시마에 온 것은 <원령공주>를 개봉하기 2년 전인 1995년. 그는 진녹색 이끼로 가득한 시라타니운스이 협곡과 그 위쪽에 있는 타이코이와[太鼓岩] 등을 답사했다. 이곳 사람들 말에 따르면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원령공주>의 배경이 이곳이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와타이코이와 정상에 올라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숲을 파괴하려는 인간에 맞섰던 주인공들이 사슴과 늑대를 타고 당장이라도 달려 나올 것 같은 곳이 저기 어디쯤이라는 것을 말이다.





무참히 잘려나간 삼나무들과 자연의 복원력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 통과할 수 있는 쿠구리스기[くぐり杉]를 만난 건 그 즈음이었다. 거대한 삼나무 밑으로 마치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도 되는 양 뚫려 있는 구멍은 지극히 비현실적이었다. 두세 그루의 나무가 합쳐져 연리지로 자라는 광경이나 거대한 바위 위에 위태롭게 뿌리를 박은 채 수천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들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다. 야쿠시마에는 수령 1,000년이 넘는 삼나무만 2천 그루가 넘는다. 그런 삼나무들을 특별히 ‘야쿠스기’라고 부르고 그보다 어린 삼나무는 ‘고스기[小杉]’라고 한다.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수령 800년 이상의 삼나무들을 야쿠스기로, 그 이하는 고스기로 분류한다. 800년은 넘어야 ‘야쿠시마의 삼나무’로 대접하는 이유는 그 수령대의 삼나무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17세기 에도시대 이래 중앙에 세금을 내기 위해 벌목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목재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조목이 곧고 단단해야 되는데 보통 수령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된 것들이 그 조건에 부합했네요. 그보다 오래된 나무들은 길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가 복잡하게 휘거나 울퉁불퉁해서 목재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졌던 거죠. 벌목은 1970년대 초까지도 계속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 물자가 필요했고, 패전 뒤에는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해 벌목이 횡행했죠. 그래서 지금 야쿠시마에는 1,000년 넘는 삼나무들은 많지만 수령 500년에서 800년 사이의 삼나무들은 많지 않아요.”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도 심하게 꼬인 것들뿐이었다. 내부가 많이 휘었거나 웅이가 커서 도끼나 톱으로 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아 남은 것이다. 실제로 그런 나무들 허리춤에는 길이 10~20cm 정도의 구멍이 남아 있었다. 벌목에 앞서 내부가 곧은 지 확인하기 위해 도끼로 찍어본 흔적이라 했다. 곧고 잘



생긴 나무들은 일찌감치 눈에 띄어 잘려 나가고, 못 생긴 나무들만 끝까지 남아 산을 지키는 고목이 되었다는 역설. 살아남은 나무들을 쓰다듬으며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츠지[辻] 고개를 넘어 아라카와[荒川] 등산로 합류점을 향해 내려가는 길이었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경사로에 화강석 계단들이 놓여 있었다. 이끼가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보니 요즘 만든 것 같진 않았다.

“이 돌계단들이 바로 에도시대 때 만든

것들이예요. 삼나무를 베어 이동하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길이죠. 우리는 4백 년 전에 만들어진 돌계단을 걷고 있는 거예요.”

쿠스가와 등산로와 아라카와 등산로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오오카부[大株] 등산로 입구까지는 협계철도를 따라 서쪽으로 가야한다. 그 초입에서 산다이스기[三代杉]를 만났다. 산다이스기는 한 자리에 3세대의 나무가 함께 서있어 붙은 이름이다. 제일 안쪽에 있는 1세대는 1,500년 전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을 그대로 감싸고 자란 2세대는 350년 전쯤인 에도시대에 벌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생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세대에서 떨어진 씨가 싹을 틔워 3세대로 지금도 생장을 계속하고 있다. 쓰러지거나 잘려나가도 야쿠시마의 삼나무들은 꿍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웬만한 아파트 실내보다 넓은 ‘윌슨 그루터기’

오오카부 등산로부터는 가파른 오르막의 연속이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깊은 계곡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조심해서 걷다 보니 지난 2010년 태풍 때 쓰러졌다는 ‘할아버지 삼나무’, 두 그루의 삼나무가 하나로 합쳐져 2천 년 넘게 해로하고 있는 ‘부부 삼나무’, 3000살의 ‘대왕 삼나무’ 등 개개의 야쿠스기들이 오히려 눈에 더 잘 들어왔다. 벌목이 가장 심했던 곳이라 수령 500~800년 된 삼나무들은 없었지만 대신 천년 넘는 야쿠스기들과 그윽하게 조우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윌슨 그루터기[ウィルソン株]’는 그냥 그루터기가 아니었다. 수령 약 3,000년에 돌레 길이만 13.8미터,

비록 잘려나갔지만 나무 높이는 약 20미터였던 걸로 추정... 뽕 뚫린 그루터기 속 공간은 성인 서른 명이 너끈히 들어갈 정도로 넓었고, 그 안에는 ‘코다마[木魂]’라는 작은 사당도 있었다.

“1914년에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널드수목원에서 일하던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H. 윌슨(Ernest H. Wilson)이 야쿠시마를 찾은 적이 있어요. 이곳은 고도에 따라 아열대와 온대, 한대 등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들이 살기 때문에 식물학자들에게 연구 가치가 높거든요. 그때 윌슨이 숲 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이 그루터기를 발견했는데, 아예 여기다 천막을 치고 머물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루터기 안에서 샘플도 솟아나니까 위쪽에 장막만 드리우면 훌륭한 야전 막사였던 거죠. 보다시피 안쪽 공간이 웬만한 일본 아파트보다도 넓잖아요?(웃음)”

윌슨은 “차이니스 윌슨(Chinese Wilson)”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야쿠시마뿐 아니라 일본의 여러 지역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식물 표본을 채집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수천 종의 아시아 계통 나무와 식물들은 적잖은 경우 그가 가져간 것들이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 전나무[Korean Fir]’라 불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전나무는 윌슨이 제주도 한라산 자락 해발 1,500~1,800미터 에서 가져간 ‘구상나무’를 개량해 만든 것이다.





년에 츠쿠바[筑波]대학 체육연구과에서 검도로 석사 학위를 받고 4단 단증도 땀쥔.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후 [岐阜]대학에서 검도코치와 과학영어 강사를 했어요. 산이 좋아서 산악 가이드 자격증도 땀쥔. 그러다가 처음 야쿠시마로 여행을 왔는데, 이곳에서 평화로움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할까? 처음엔 확신이 없었는데 결국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쥔. 2011년부터 쪽 야쿠시마에서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글썄, 지금 같아서는 아마 평생.”



7,200살 죠몬스기와 조우하다

이 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자 일본 전체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삼나무인 죠몬스기[縄文杉]는 월슨 그루터기에서 한 시간 정도만 더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야쿠시마는 연평균 강수량이 5,000밀리미터, 산속은 무려 10,000밀리미터에 달한다. 또 여러 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나무의 생장이 1년에 5~6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더딘 편이다. 그런 지역에 높이 25.3미터, 둘레 16.4미터의 죠몬스기가 있다니…. 지난 2005년 겨울에 눈이 쌓여 일부 가지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 부러진 부분만 길이가 5미터에 지름 1미터, 무게는 1톤이나 됐으며 수령은 1,300년으로 추정됐다. 그 가지를 야쿠스기자연관에 놓고 ‘생명의 가지’라는 이름으로 전시하고 있는 이유이다. 가지의 수령이 1,300년이라고 해서 나무 전체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틀리다. 지난 1966년 이 섬의 공무원인 이와카와 테이지[岩川 貞次]가 발견한 이래 수령 추정 작업을 한 결과 약 7,20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 신석기, 그러니까 ‘죠몬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죠몬스기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왔다. “죠몬스기의 나이가 2,170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탄소동위원소 분석을 하니 그렇게 나온다는 거쥔. 그런데 사실 그건 나무의 표피만 떼어 실험한 거라 한계가 있어요. 또 죠몬스기의 두꺼운 기둥이 한 나무가 아니라 세 개 정도의 젊은 나무가 감싸 하나처럼 보인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것들의 DNA를 모두 검사한 결과 동일한 나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최소 7,200년 전에 태어난 한 개의 단일한 나무라는 거쥔.”

아직까지도 설이 분분한 나머지 안내판에는 7,200살과 2,170살로 추정한다는 내용과 그 까닭을 각각 밝혀두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령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죠몬스기는 2,000번이 넘는 봄여름가을겨울을 겪었으리라는 것. 그 사이 수천 번이 넘는 태풍과 폭우, 그리고 지난 400여 년 동안 야쿠시마를 휩쓴 도끼질을 피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죠몬스기의 울퉁불퉁한 표피는 마치 모질고 오랜 세월을 버텨온 이들의 주름을 닮았다. 다만, 이제는 그 주름을 만질 수가 없다.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죠몬스기와 등산로 사이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무 기둥이 이끼로 덮여 있어야 하는데, 앞쪽의 나무들을 베어버리니까 직사광선이 죠몬스기의 몸통까지 그대로 닿아 이끼들이 죽고 백화 현상이 일어난 거쥔”

결국 지금은 30미터 정도 떨어진 전망대에서만 죠몬스기를 만날 수 있다.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야쿠시마

죠몬스기 옆을 흐르는 작은 계곡에서 죠몬스기가 마시는 것과 같은 물을 마시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서 트레킹을 하는 만큼 텐트를 치거나 비바크를 할 경우엔 반드시 산장에서 해야 한다. 트레일 내의 산장들은 모두 무인산장이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는 게 좋다. 막 해가 지려는 찰나 당도한 곳은 해발 1,500미터 언저리에 위치한 신타카즈카[新高塚] 산장이었다. 20명 정도가 잘 수 있는 2층 나무집과 60명이 텐트를 칠 수 있을만한 터를 갖추고 있었다. 산장 한 구석에 줄줄 흐르는 계곡 물은 그대로 식수가 된다. 저녁 메뉴는 3분 카레밥과 한국인들을 위해 제니퍼가 김치 대신 구해온 콩나물

무침. 안보나 쿠스가와 같은 바닷가에 있을 때만 해도 20도에 가까웠던 기온이 밤이 되자 영상 0~5도 정도로 떨어졌다. 그래서인지 첩첩산중 밤하늘의 별은 더 빛나 보였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종일 함께 걸으며 물어뵈던 궁금증을 해소할 시간이었다. 제니퍼, 당신은 왜 낯선 일본 땅, 그것도 가장 외진 곳인 야쿠시마에 머물고 있는지.

“MIT에서 전기공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9년 전쯤 일본의 한 연구소로 왔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났을까, 실험실에서 미세한 변수나 통제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평소 관심 있던 검도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연구소를 그만뒀어요. 2008

제니퍼는 야쿠시마에 오기 전보다 수입은 4분의3 가까이 줄었지만 행복도는 서너 배 이상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산악 가이드 일이란 게 매일 있는 게 아니어서 야쿠시마에 온 지 1년쯤 지났을 때는 재정적인 곤란에 처하기도 했지만, 자연과 자유로움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부족한 돈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야쿠시마엔 미야노우라다케 말고도 좋은 곳이 정말 많아요. 그냥 돌아다니다보면 만나게 되는 새로운 곳들이 아직도 많아요. 혼자 다닐 땐 사람들이 잘 안가는 곳을 다녀요. 나는 작은 곳들이 좋아요. 그래야 서로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야쿠시마인 것 같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차를 마시며 희미하게 노래를 듣는 중에 밤은 깊어 갔다.



흰 엉덩이를 드러난 채 풀을 뜯고 있었다. 10미터 앞까지 다가갔는데도 녀석은 잠시 쳐다볼 뿐 도망갈 생각을 않고 다시 풀을 뜯는데 열중했다. 아, 야쿠시마의 자연이란 이런 거구나! 풍경을 감상하듯 등산객들을 ‘구경’ 하는 야쿠시카를 보며 걷다보니 어느새 눈앞에 미야노우라다케가 들어왔다. 초록색 잔디밭에 흰색 바둑알이 점점이 박힌 듯 관목으로 둘러싸여 일견 부드러워 보이던 풍경들은 가까이 갈수록 거대한 화강암반으로 변했다. 드디어 미야노우라다케 정상에 도착! 동서남북 어디 한 곳 막힌 데 없이 태평양과 동지나해가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졌다. 멀리 이오지마[硫黄島]와 구치노에라부시마[口永良部島]와 같은 섬들까지 한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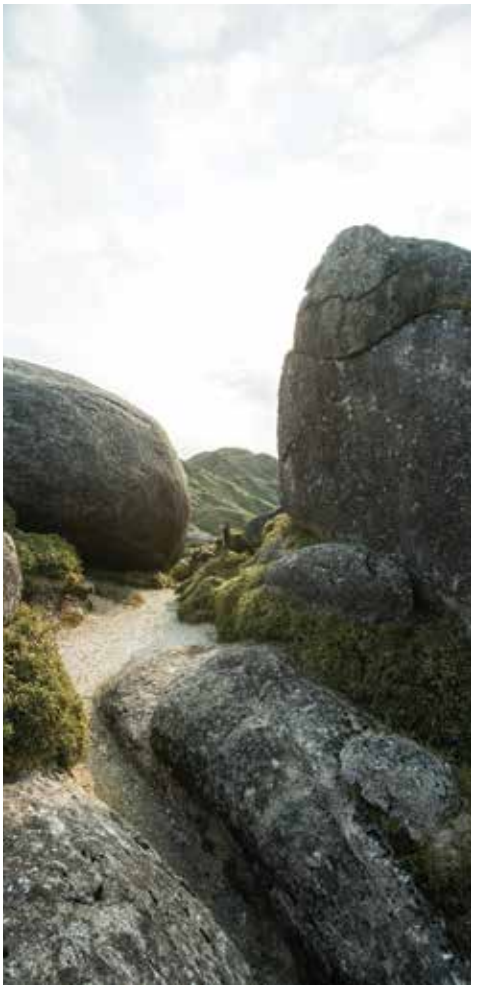
‘큐슈 최고봉’ 미야노우라다케에 오르다

둘째 날 일정은 아침을 먹고 오전 7시쯤 느즈막히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큐슈 최고봉인 미야노우라다케[宮之浦岳]에 오를 차례다. 신타카츠카 산장에서 해발 1,936미터의 미야노우라다케까지는 표고차가 400미터 남짓이지만 앞볼 게 아니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이 여럿인 데다 기온마저 낮아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았다. 산장을 출발해 1시간쯤 걸었을까, 주변 식생이 확연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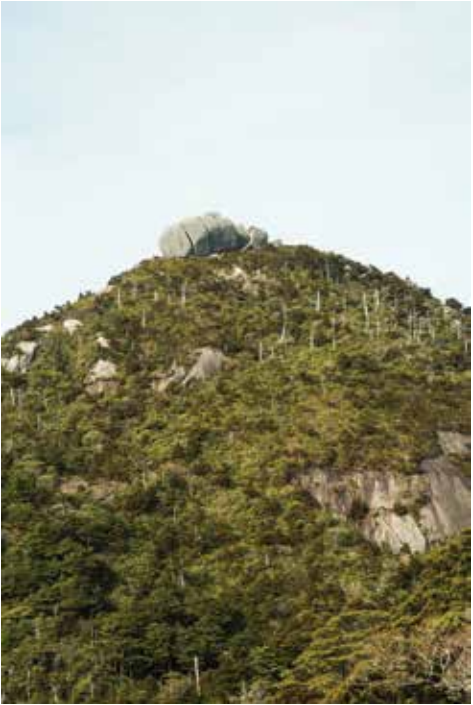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붉은빛을 띤 나무껍질에 회색 반점이 있는 히메샤라[姫沙羅], 즉 노각나무가 야쿠스기를 대신하고 있었다.

“노각나무는 동물이 털갈이를 하듯 껍질이 떨어져 나가서 밀도가 높은 부분,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부분이 다른 나무들과 달리 바깥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죠.”

불을 갖다 댔다가 생각지도 못한 서늘함에 깜짝 놀랐다. 조금 더 힘을 내 오르니 노각나무도 사라지고 이제는 무릎 높이의 관목과 어깨 높이의 억새군락이 반복해 등장했다. 열대와 아열대, 한대까지 산 속에서 크게 세 종류의 기후대를 지나온 것이다. 바로 그때, 관목 숲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야쿠시카[屋久鹿; 야쿠시마 사슴]! 〈원령공주〉에서 주인공 아시타카가 타고 다니던 것보다는 아담한 야쿠시카가







히라우치 해중온천에 몸을 담그며

일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고원습지로 오로지 빗물로만 이루어진 ‘하나노에고 [花之江河]’ 습지 근처 요도가와 [淀川] 산장에서 1박을 더하고, 유도마리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는 길을 택했다. 커다란 두부를 칼로 썰어놓은 듯한 두부바위(豆腐岩) 등 흥미로운 풍경들을 구경하며 놀며 쉬며 8시간 10분 동안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는 맛따뜨린 망망대해 태평양! 그곳에는 하루에 두 번씩 썰물 때면 바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히라우치 [平内] 해중온천이 있었다.

2박 3일 동안 미야노우라다케를 걸으며, 마치 자신을 잡고 올라가라는 듯 손 내미는 나무들과 이쑤에서 잠시 쉬어가라는 듯 등걸을 내주는 나무들을 만났다. 가파른 길이 시작되기 전엔 어김없이 계곡물이 흘러나와 목을 축일 수 있었고 더위를 느낄 때쯤이면 노각나무를 안고 몸을 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혹은 관심없다는 듯 노닐던 야쿠시카와 야쿠자루[屋久猿; 야쿠시마 원숭이]들까지, 걷다보면 여행자들은 야쿠시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없이 알게 된다.

“나는 야쿠시마에 두 번째 여행온 날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마 당신도 한번만 더 야쿠시마를 찾는다면 놀려 얹게 될 지도 몰라요. 한번 더 야쿠시마에 와야 해요!”

그리고 보니 행인지 불행인지 그비 많이 내린다는 야쿠시마에서 트레킹을 하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았다. 비의 섬에서 비를 만나지 않았다는 건 꼭 다시 한번 더 오라는 야쿠시마의 인사였다고 믿는다. 고개를 돌려 미야노우라다케를 쳐다봤다. 그리고 2박 3일을 함께 걸어준 숲의 정령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아리가토!”



트레킹할 때 기억할 것

1. 입산전 등산 신고를 하고 반드시 정해진 길로 다닌다.
2. 길을 잃었거나 부상자가 생겼을 때에는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 산 속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또 정상 부근에는 웬만하면 트레일이 지나기 때문에 구조에 유리하다.
3. 비가 내린다면 계곡을 따라 하산하는 것은 피한다. 야쿠시마는 계곡이 유난히 가파르고 깊은데다 물이 금방 불어나 매우 위험하다.
4. 초문스기만 보고 내려오면 모를까, 당일 산행이라도 정상까지 오르려면 안전을 위해서 산악 가이드를 대동한다. 산중에서 만나는 다양한 식생에 대한 설명은 덤이다. 특히 비가 오면 트레일과 사슴의 길을 구분하기 힘들어서 초행자들은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수가 많다. 가이드는 안보안내소에 문의하면 연결해 준다. 비용은 1일 기준으로 약 3만엔.
5. 한국 산과 달리 등산로 입구에도 상점이 없다. 당일 산행이라도 도시락과 간식은 미리 준비하자. 물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 빈 물통만 준비하면 물맛에 반해 야쿠시마를 다시 찾고 싶을 만큼 산 곳곳에서 달고 시원한 약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6.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반드시 배낭에 넣어 가지고 온다. 청소하는 이가 따로 없지만 등산로는 물론 산장에서조차 작은 휴지 조각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산 속은 깨끗하다. 어느 누구도 세계자연유산에 자신이 왔다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7. 땅밖으로 드러난 나무 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스틱 끝에는 캡을 씌운다.
8. 야생 동물(사슴, 원숭이)에게 절대 먹이를 주지 않는다.
9. 산중에서 캠핑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무인산장에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산장 앞 테크에 텐트를 치는 것은 사실상 허용한다. 그렇더라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무인산장에서 지킬 것

1. 산장에 들어가면 안쪽에서부터 자리를 잡아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능하면 해가 지기 전에 산장에 도착한다. 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잠자리에 든 다른 등산객들을 위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장은 내부가 뽕뽕 있어서 비닐 봉지나 침낭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꽤 크게 울린다.
2. 산장에는 등산객들의 음식을 노리는 쥐들이 많다. 산장 천장에 로프가 걸려 있거나 못이 박혀 있으니 식료품은 거기 매달아 놓도록 한다. 산장 앞에 남은 음식물을 버려도 금방 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도록 음식은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게 좋다.



독특한 화장실 문화

미야노우라다케를 오르기 전 반드시 사야할 것이 ‘휴대용 화장실’이다. 산행 중간에 화장실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면 ‘휴대용 화장실 거치대’가 놓여 있다. 그곳에 휴대용 화장실을 설치해 일을 본 뒤, 다시 봉투에 넣고 밀봉해 가지고 다니다가 회수함을 만났을 때 버리는 식이다. 회수함은 각 등산로 입구와 야쿠스기 랜드 입구, 그리고 사라타니운스이 협곡 입구에 있다. 산 속에 소수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그 곳 역시 거치대가 함께 놓여 있다. 화장실 오물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하는 이들이 약수통처럼 생긴 통에 담아 산아래로 지고 내려온다.

미야노우라다케와 함께 사는 사람들

Interview

산악구조대의 전통을 잇는 사람, 히다카 준이치[日高順一]

야쿠시마의 산은 깊다. 그리고 높다. 이 작은 섬에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자기 이름을 가진 산들이 47개나 된다. 주요 코스를 제외하면 거의 다 제대로 된 등산로가 없다. 또 계곡은 험해서 잘못 들어가면 암벽 등반 기술 없인 빠져나오기도 힘들다. 그래서 야쿠시마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 구조대가 있다.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은 2~3년이면 전근을 가니까 아무래도 주민들만큼 산을 몰라요. 조난자가 생기면 경찰이나 소방대원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색이 불가능해요. 북알프스처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사고도 많은 곳에 경찰에 전담 조직이 있지만 야쿠시마에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산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 미야노우라다케에서 길을 잃었다고 쳐요. 거기서 해안까지 직선 거리로 길어야 15킬로미터니까 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강을 따라 바다까지 가면 살겠지’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는 동안 만나는 계곡들이 굉장히 험해요. 또 여긴 비가 정말 많은 섬이라서 큰 비가 오면 바위도 떠내려 가요. 계곡에 있다가는 급류에 떠내려 온 바위랑 휘말려서 흔적조차 없어지죠.”

20년 동안 구조한 조난자가 수백 명이라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한다. “보통은 사람이 없어지면 가족이나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야쿠시마에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다고. 제일

심했던 건 어느 겨울이었는데, 눈 쌓인 산에 간지 8일이나 지나서 사람이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9일째니까 시신이라도 찾자고 올라갔죠. 야쿠시마는 숲이 너무 깊어서 눈으로는 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변 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대개 사람 이름을 부르고 다니면서 대답을 기다려요. 시신 수색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불러봤는데, 누가 대답을 하는 거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더니 한 사람이 야쿠스기 그루터기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목소리 한 번 낸 게 마지막 안간힘을 쓴 거였어요. 다리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고, 손이라도 살려 봐야지 싶어서 주물렀더니 점점 붉은색이 돌아왔어요. 천천히 미지근한 음료를 먹이면서 1시간 정도 치료해서 5시간 동안 업고 내려왔어요. 지금은 가고시마 경찰 헬리콥터가 좋아서 공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밑에서 작업해 끌어 올리면 되지만 전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줘야 했어요. 1년 쯤 지나서 그 조난자가 휠체어를 타고 인사를 왔어요. 발목 밑으로 다 절단하고 손도 첫 번째 관절 위로는 다 절단했는데, 그래도 직업이 프로그래머라서 남아 있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가쿠라’라는 산악 구조 만화에 산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산악구조대 활동은 산포 이야기랑 똑같았요, 정말로.”

구조대에 자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름만 올려놓은 이들까지 합해 20명 남짓. 정말 심했을 때는 열흘 동안 일도 못하고 구조 활동만 한 적도 있다.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밀린 서류가 한가득이었다.

“저를 처음 산에 데려갔던 선배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항상 했던 말이 ‘만일 네 가족이 조난을 당했으면 어찌했냐’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조를 하지 않았냐는 거지.”

그는 얼마 전 퇴직을 하고 ‘섬을 권하고 안내하는 사람들[島のいざない人]’이라는 사무실을 열었다. 그곳에서 구조대와 산악 가이드들을 가르치고 직접 산악 가이드 일도 한다.

“나이기도 있고 해서 구조대에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요. 이틀에 한 번씩 등 근육 운동을 200~300회씩 하고, 아령을 들고, 팔 근육을 기르기 위한 여러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걸 600~1,000회,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죠. 혹시 또 모르니까.”

미야노우라다케와 함께 사는 사람들

Interview

안보가 고향인 안내소 직원, 세키 하루요[春春代]

안보항 근처에 있는 야쿠시마관광협회 안보안내소[安房案内所]의 세키 하루요 씨는 안내소가 문을 연 18년 전부터 줄곧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안보에서 나서 자랐고 학생 때 잠시 가고시마에 나가 살았지만 다시 섬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렸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안내소 일을 좋아하지만 그러느라 정작 본인은 여행한 기억을 손에 꼽는다.

그녀는 안보 인구 1,100여 명을 모두 알고 있다. 안보뿐 아니라 섬 전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야쿠시마가 낯선 여행자들에게엔 지도 같은 존재이다. 숙소를 구할 때도 예산을 알려주고 “아침이 맛있는 숙소”, “노천 온천이 딸린 숙소” “제일싼 숙소” 등 원하는 걸 말하면 딱 그런 곳을 찾아준다. 일본 잡지에서 별표를 많이 받은 숙소를 가리켰더니 “풍경은 좋지만 음식 맛이 별로”라는 답이 돌아왔다. 미야노우라다케를 안내해줄 150여 명 산악 가이드들의 명단도 그녀에게 있다. 차를 렌트하려는 사람, 느닷없이 내린 비로 카메라가 고장난 사람, 섬 순환버스를 놓친 사람 등등 오만가지 문의로 안내소 전화벨은 설새없이 울렸다.

섬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었다. “예전에는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왔는데, 이제는 아무나 다 와요.(웃음)”. 여행자들이 섬의 경계를 움직이니 “불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걸 공유하던 예전 야쿠시마가 그리운 건 사실이다.

“생선이나 굴은 그냥 나눠먹는 거지 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웃음)”

하지만 관광업이 섬의 주요 수입원이 된 지 대략 20년이 지난 걸 생각하면 야쿠시마의 변화는 그 속도가 느리다. 그녀 뿐 아니라 주민들 여럿에게 야쿠시마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을 때마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대답했다. 한 명쯤은 아름다운 자연을 꿈꿔도 한테 신기한 일이다.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던 그녀에게 야쿠시마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장소를 물었더니 20분 넘게 고민하다 답을 줬다. “사람들은 대개 일몰을 보려고 서쪽으로 가는데, 안보나 섬의 동쪽에서 보는 일출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참고로, 안보에는 관광 “안내소”와 관광 “센터”가 있다. 안내소는 여행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곳이고, 센터는 기념품을 파는 곳이다. 안내소에서 기념품을 찾거나 센터로 지도를 얻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녀는 주의를 당부했다.

안보안내소[安房案内所]
전화 0997-46-2333, 연중 무휴
(오전 9:00~오후 17:30)

바다에서 일하지만 취미는 산악 가이드, 타하라 토요히토[田原豊仁]

배에 들어가는 GPS 장치 사업을 하는 타하라 토요히토 씨는 평생 여러 나라의 항구를 드나들었다. 대신 시간이 날 때는 늘 보는 바다 대신 산을 찾았다. 30년 전 야쿠시마에 처음 왔을 때도 일을 마치고 등산을 했다. 그리고 5월 중순, 미야노우라다케에 흐드러진 꽃에 반했다. “그때는 산 아래까지 온갖 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후가 변해서 그 꽃들을 보려면 정상 가까이 올라가야 해요. 없어진 꽃들도 많고.”

가고시마에 살던 그는 이후 매달 야쿠시마를 찾았고, 그러다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렇게 3년을 지내다가 결국 야쿠시마로 이사를 왔다.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았어요. 먹을 걸 가져나 갖다 주는지 겨울에는 탕강[タンカン; 꿀의 일종]을 박스째 쌓아 놓고 살았어요. 지금처럼 다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때였죠.”

정착하고 5년이 지나자 섬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하나 둘 산악 가이드들이 생겨났고 그때 토요히토 씨도 가이드 일을 시작했다. 틈날 때마다 여행자들을 만나 함께 산을 오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설명해 주고, 또 그들이 돌아가 보내오는 편지를 받는 게 큰 즐거움이었다.

“예전엔 지금처럼 계단도 많이 없었고,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세계자연유산이 되고 나서 좋은 건 화장실 문화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일을 봐서 거칠...(웃음). 사람들이 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야쿠시마에 와서 조몬시기만 보고 돌아가는 건 좀 안된 일이에요.”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

시라코야마
[白子山]

글: 권기봉 / 사진: 박정훈

땅과 호흡하며 자연과 친구처럼 살다간
이가 있다. 시인이자 철학자이며
농부이기도 했던 아마오 산세이[山尾三
省; 1938~2001]. 와세다대학 서양철학과를
중퇴하고 1960년대 말부터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에 대해
대안공동체운동을 시작했던 그는 땅을
정복하는 대신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민했다. 1975년 도쿄 한복판에
유기농산물 상점과 유기농 식당, 책방과
모임터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준비를 하던
그는 1977년,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야쿠시마 사람들의 부름에 응해 온 가족과
함께 야쿠시마행을 결정한다. 야쿠시마
북서쪽의 시라카와[白川] 상류에 위치한
시라코야마[白子山] 마을이 목적지였다.
그의 흔적을 찾아 시라코야마로 향했다.



아마오 산세이를 따라 야쿠시마로 향한 사람들

1. 아마오 하루미[山尾春美]

“안보[安房]에서 미야노우라[宮之浦]를
지나 78번 도로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잇소[一湊]라는 마을이
나와요. 거기서 요시다[吉田]로 가기
전에 터널이 나오는데, 그 터널 들어가기
직전에 좌회전하세요. 산 쪽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다시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우회전하세요.
더 가면 집이 하나 나오고 그걸 지나 있는
집, 그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에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다.
도착할 즈음 집 앞에 편안한 인상의 여성이
마중 나와 있었다. 아마오 산세이의 처
아마오 하루미[山尾春美] 씨.
따뜻한 녹차를 앞에 두고 대화를 시작한
곳은 ‘구가쿠양[愚角庵]’이라는 편액을 단
검박한 서재였다.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작은 집’. 생전에 아마오 선생이 직접 지은
이름이다. 영면에 든 지 12년이 흘렀지만

서재에는 그의 사진과 유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루미 씨는 작년에
막내가 대학에 입학해 섬을 떠난 후론
줄곧 혼자 지내고 있다.

“글도 쓰고 책도 읽고 발일도 하며 지내요.
매주 세 번 정도는 시내에 나가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간소하게 삽니다.”

아마오 산세이가 이 섬에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야쿠시마에서는 벌목이 한창이었다.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주민 누구도
쉽게 반대하지 못했다. 1970년대 들어
공식적으로 벌목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알음알음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때
‘야쿠시마를 지키는 모임’에서 아마오
산세이에게 요청을 해왔다. 섬으로 와
줄 수 없겠냐고. 와서 생명 복원을 위해
글이라도 써 달라고. 그 요청이 아마오
산세이를 이 섬 야쿠시마로 이끌었다.



“야쿠시마를 지키는 모임은 별목으로 나무가 다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더 망가지기 전에 섬을 구해보려고 주민들이 만든 모임이에요. 야쿠시마를 구한 건 남편이 아니라 섬 사람들이죠. 남편은 좀 늦게 들어왔고, 그모임에서 여기다땅을 내어줘 집을 짓고 야쿠시마의 자연에 대한 글을 쓰며 살게 된 거예요.”

이 궁벽한 골짜기에 처음 마을이 들어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하지만 잇소를 비롯한 미야노우라나 안보 등 섬의 주요 마을에서 멀고 길도 좋지 않아서 주민들은 하나둘 읍내로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촌이 되고 말았다. 그나저나, 그녀는 남편이 처음 야쿠시마로 가자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을까?

“아, 제가 처음부터 함께 온 것은 아니에요. 남편의 첫 부인은 1985년 가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그 후의 일이지요. 처음엔 그저 남편의 독자였어요. 저는 원래 요코하마[横浜]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틈틈이 영화와

연극을 즐기면서. 그런데 문득문득 내가 땅을 밟으며 온전히 살고 있는 건가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산세이의 책을 읽게 된 거죠. 크게 공감했고, 좀 멀기는 했지만 나라 [奈良]에서 아마오 산세이와 함께 하는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죠. 제가 서른 살이 되던 1986년 8월이었어요.”

그 후 그녀는 야쿠시마로 여행을 오게 되었고,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1987년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 물 맑은, 하지만 굉장한 시골 야쿠시마에서. 시라코야마는 지금도 전화가 잘 안 터진다.

“대체적으로 이곳 사람들은 그런 불편을 개의치 않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메일 바이크’라고 불러야 할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신호가 잡히는 데까지 가서 이메일을 보내고 오더군요. (웃음) 위성안테나를 달지 않으면 텔레비전도 잘 안 나오는 곳이지만, 대신 평화로움이 있어요. 큰 돈도 필요 없고요. 남편이나 저나 이왕이면



두 손으로 직접 땅을 일구는 삶을 살고 싶었기에 고구마며 감자, 탕칸 [タンカン; 꺾은 일종인 야쿠시마 특산물] 같은 것들을 직접 길렀죠. 닭도 치고 돼지도 기르고요.

도쿄에서 나고 자란 남편에게는 생명으로 가득 찬 야쿠시마가 감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샘물 같은 곳이었어요. 섬 생활이 녹록하진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땅의 사람’이 되고자 애썼죠.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로 악전고투하면서도 밭을 일구고 탕칸 나무를 키우며 자급자족의 생활을 해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자연에 대한 시와 수필을 써내려갔고요. 야쿠시마 사람들이 불러서 들어오게 됐지만, 야쿠시마가 없었다면 남편도 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도시에 살 땐 저도 모르게 자연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살게 된 후로는 자연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겸손함을 배우게 됐지요. 그리고 그 고요함에 반했고요. 남편에게나 저에게나 야쿠시마는 어머니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마오 산세이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고요함이 고스란히 묻어 났다. 더 가지려고 하는 대신 수수한 행복, 순리대로 사는 삶에 가치를 두는 이들이 가진 그런 그윽함 말이다.



2. 사토 타다시[佐藤直]

현재 시라코야마에는 모두 16세대 3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독신자도 있고 4인 가족도 있다. 아마오 산세이가 이곳에 등지를 틀 무렵 들어온 이도 있고 몇 년 전 여행을 왔다가 자리를 잡은 이도 있다. 그들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아마오 산세이의 삶에 공감하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자연과 교감하며 직접 두 손으로 삶을 일궈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토 타다시[佐藤直] 씨가 야쿠시마에 들어온 것은 올해로 34년째, 그 중에서도 시라코야마 마을에 정착한 것은 31년째다. 바다가 없는 도치기[栃木]현 출신인 그는 늘 바다를 동경했다. 그러기를

20여 년, 드디어 1977년에 사방이 바다인 오키나와[沖縄]로 여행을 떠났다. 스물여덟 살때였다.

“오키나와를 여행하다 저처럼 여행 중인 아마오 선생을 만났습니다. 우연히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면 야쿠시마로 아예 이주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숲과 물이 무척 깊고 맑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땐아 그러시냐고 했는데,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이듬해에 야쿠시마로 여행을 왔죠. 그리고선 2년 뒤에 저도 그만 야쿠시마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웃음)”

어찌 거주지를 그렇게 시원하게 옮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인생은 우연의 연속으로 이뤄진다”며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오키나와의 에마랄드빛 바다도 좋았지만, 야쿠시마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숲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있었거든요. 도시처럼 삭막하고 밋밋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대지에서 살고 싶었어요. 게다가 아마오 선생이나 그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맘에 들었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최대한 어울려 살아가는 자세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더 망설일 게 없었죠.”



하지만 외딴 섬 야쿠시마, 그 중에서도 이런 산골짜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생활을 하려면 무언가 생산을 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먹을 것이나 잘 곳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었죠. 일단 건축기술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공사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구조야 어차피 비슷하니 작은 집을 지어보면 큰 집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돈도 벌고 건축기술도 배우고 일석이조였죠.”

그리고 보니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때 그는 집의 외벽에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윗쪽의 노란색 목조주택은 이미 15년 전에 완공했고, 2년 전부터는 아래쪽에 붉은색 집을 짓고 있다고 했다. 윗집은 자신의 집, 아랫집은 딸의 집이 될 것이었다. 다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에 집짓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 불만이라면 불만이라는 사토 타다시 씨. 그의 생활비 충족 수단은 바로 낚치 훈제업이었다.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비우오(トビウオ; 낚치)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야쿠시마 특산이죠. 아마 가고시마에서 여기 들어올 때 탄 고속페리 이름도 토비우오였을 겁니다. 가마를 한번 땔 때마다 약 4백 마리씩 넣어 훈제하는데, 한달에 보통 400~800마리 정도를 만들어요. 1마리를 200~400엔 정도에 사다가 600엔 정도에 파니 제 수입, 대충 나오지요?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천천히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요. 이런 삶의 방식, 젊었을 땐 사실 확신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웃음)”

3. 사이토 토시히로[齐藤俊浩]

사토 타다시 씨의 집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보는데 한 남성이 문가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는 게 보였다. 집 축대가 높아 마치 계곡 전체를 자신의 앞마당인 양 여유롭게 쳐다보며 식사하는 모습이 시라코야마의 분위기를 한 장면으로 압축하고 있는 듯했다.

올해 43세인 사이토 토시히로[齐藤俊浩] 씨. 천진한 표정이었지만 호기심도 많아 보였다. 실제로 대학 졸업 뒤 해외 봉사를 다니며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아마오 산세이의 책을 접하게 된 것이다.

“책을 읽고 이곳으로 여행을 한번 가봐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개 껍데기 하나만

보고도 바다를 읽는 감수성, 느리게 사는 불편과 불안을 행복으로 승화하는 여유로움, 진화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지만 지적인 예리함은 놓치지 않는 내적 성찰..., 아마오 선생이 사는 마을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는 일단 지금의 집 바로 아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다른 데는 가지 않고 이 동네에서만 한 달 정도를 머물렀다. 아마오 선생이 고구마 밭을 갈러 가면 따라가 풀을 뽑았고, 사토 선생이 집을 지으면 나무를 나르고 망치질을 했다. 그러면서 평화롭고 무언가 생명력이 넘치는 마을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다. 남은 것은 완전한 이주. 지난 2000년, 이 마을로 삶을 옮겼다.



“옛 주인이 집 앞에 써둔 글귀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죠. ‘그 어떤 빛을 준다고 해도 반딧불이하고는 바꿀 수 없다.’ 비록 미물이라 할 지라도 오묘한 생명력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정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연에 잠시 몸을 위탁했다 가는 인간들이야말로 생명 앞에서 공손해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을에 와서야 비로소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런 깨달음의 결과일까. 사이토 토시히로 씨는 이 마을에 온 뒤 산림보호원이 되어 시라코야마 마을, 나아가 야쿠시마의 숲과 산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에게서 수행정진하는 승려의 도탈함이 얼핏 스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했다.





4. 신카이 켄지[新貝健二]와 신카이 나오키[新貝直子]

사이토 토시히로 씨의 집 바로 아래집은 백발이 성성한 신카이 켄지[新貝健二], 나오키[直子] 부부의 보금자리였다. 사이토 씨의 소개로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신카이 켄지 씨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느라 분주했다. 여름 태풍이 오기 전에 축대를 보강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올해 72세, 64세인 신카이 씨 부부는 아마오 산세이의 첫 번째 부인과 대학 친구였고, 그녀를 통해 아마오 산세이를 알게 됐다. 하지만 이 마을에 들어온 지는 10년 밖에 안 된 ‘신참’들이다. 그래도 시라코야마 마을 주민들의 원칙 아닌 원칙은 지켜가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갈 집을 손수 짓는 것이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를 하고 이곳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먹을거리 정도는

직접 구하기 위해 잇소 항구에서 고기잡이 배도 타고, 작은 텃밭과 가꾸고 있지요. 집도 저희가 직접 지은 겁니다. 저는 나무보다는 돌이 좋은 것 같아서 돌집을 짓고 있어요. 바닷가에 나가 주워 오기만 하면 되니 완전 무료인 데다 튼튼하니 무얼 더 바라겠어요.(웃음)”

나오키 씨의 안내로 집안을 돌아보니 집만 손수 지은 것이 아니었다. 옷장과 탁자, 식탁, 침대, 찻상, 환기구 등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었다. 작은 목공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작업실에서 생활용품들이 뚝뚝 만들어져 나왔다.

그런데 지금 시라코야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개의 시골 마을들이 그러하듯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워낙에 낙도 오지이기 때문이다.

“아마오 산세이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실험이 성공했다고, 혹은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들인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대부분 큰 섬이나 도시로 나가 있고요. 재생산의 어려움에 봉착한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매일 같이 계곡에 몸을 담그고 숲을 뛰어다녔던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산세이의 얘기처럼 자연에 깃든 기운과 느낌을 발산하며 살아갈 거고요. 그리고 옛 기억을 살려 생명과 자연을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미약하나마 목소리를 높이고 무언가 실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 시라코야마 그리고 야쿠시마의 융숭함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함께 마을을 돌아본 아마오 하루미 씨와 다시 서재로 돌아와 시라코야마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고 있는 사이, 지붕 위에서는 원숭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밖에서는 시라카와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자연이 낳은
또 다른
삶의 풍경

미타케 소주와
삼나무 공예

글: 권기봉 / 사진: 박정훈

1. 야쿠시마의 척박한 토양과 맑은 물이 빚은 술,
미타케 소주

1990년대 들어 바코드를 넣기는 했지만, 미타케[三岳] 소주는 창업 이래 한 가지 라벨만을 사용한다. 얼핏 수수한 듯하지만, 해발 1,936미터로 큐슈 최고봉인 미야노우라다케[宮之浦岳]와 쿠로미다케[黒味岳], 나가타다케[永田岳] 등 야쿠시마의 세 고봉(高峯)에서 따온 이름 ‘미타케’에서 이들의 자존심을 읽는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은 연평균 생산량 3백만 리터의 90%가 섬 밖으로 팔려나가는, 전에 없는 인기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 술이라고 하면 흔히 니혼슈(日本酒)나 사케[酒]로 통칭되는 청주(淸酒)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야쿠시마에서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쇼추(焼酎), 즉 소주의 소비량이 니혼슈나 맥주 소비량을 능가하기 때문. 그 중에서도 이 섬에서 제조되는 ‘미타케 소주’의 판매량이 압도적이다.



경제 공황이 낳은 미타케 소주

뒤로 해발 614미터의 모이요다케[モイヨ岳]를 두고 옆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하나아게가와[花揚川]를 끼고 있는 미타케 소주 공장. 우리를 맞은 이는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백발의 사사키 무츠오[佐々木睦雄] 씨였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1958년부터 미타케 소주를 책임지고 있다. 여든 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곧고 눈은 맑았다. 그는 백수(白壽)가 가까이 장수한 아버지 이야기로 운을 뗐다.

“미타케 소주가 탄생한 건 쇼와 6년, 그러니까 1931년의 일입니다. 야쿠시마에 생긴 최초의 소주 공장이지요. 제 아버지 [사사키 카즈오; 佐木一雄, 1904~1996]가 가고시마 현의원을 지낼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야쿠시마 사람들은 주로 고구마 농사를 지었어요. 벼농사를 짓고 싶어도 논으로 쓸 만한 땅도 없고 비도 너무 많이 와서 못했죠. 그러다 1920년대 말에 경제공황이 닥쳤어요. 그 동안은 고구마를 생산하면 큰 섬으로 보내고는 했는데 공황으로 공산품뿐 아니라 고구마 소비마저 확 줄어든 거죠. 고구마는 감자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어서 그대로 썩어 나갔고 주민들은 별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현의원이나 사람들 일자리를 고민해야 했고 결국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소주를 만들기로 한 거죠. 지금도 미타케는 야쿠시마 사람이 운영하는 유일한 소주 공장입니다.”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는 전통적으로 고구마를 주원료로 하는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왔다. 그 역사는 대략 2~3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하면서 유럽에 전해진 고구마가 필리핀과 중국 동남부, 그리고 류큐왕국(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현) 등을 거쳐 16~17세기에 큐슈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사츠마번[薩摩藩], 지금의 가고시마 현 일대에 들어왔다. 일본 사람들이 고구마를 ‘사츠마이모[薩摩芋]’, 고구마로 만든 소주를 ‘사츠마 소주’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야쿠시마는 화강암 지대지만 가고시마 현의 다른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화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이 물을 잘 머금지를 못해요. 벼농사를 짓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나마 힘들게 생산한

얼마 안 되는 쌀은 번주(藩主)에게 바쳐야 해 주민들 손에 남는 것이라고는 화산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고구마뿐이었어요. 게다가 연중 따뜻한 기온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낮은 니혼슈는 곧잘 변질됐지요. 결국 그런 역사적 상황과 경제공황 같은 절박함이 미타케 소주를 만든 셈입니다.”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원료

길게 잡아도 200년 안팎인 사츠마 소주의 역사는 그기원이 십수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니혼슈의 역사에 비하면 일천한 수준이다. 하지만 니혼슈는 물론 가고시마 현에만 130여 곳의 공장, 9백여 종이나 되는 사츠마 소주들 전체를 놓고도 미타케 소주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원료에 대한 고집 덕분이다.

“1990년대 말 불황이 왔을 때 원료 값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중국산이나 동남아시아산 고구마를 쓰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외딴 섬 야쿠시마의 소주라도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값이 싼 외국산 고구마를 쓰면 잠깐 이득은 봤을지



모르지만 흙이 다른 곳에서 자란 고구마는 맛이나 향이 달라서 결국엔 소주 품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부친이 처음 미타케 소주공장을 창업한 이후 원료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야쿠시마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고구마 농사에 비상이 걸렸다.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타케 소주 원료로는 야쿠시마에서 재배한 고구마 ‘시로유타카[白豊]’만을 썼다. 지천에 널린 게 고구마였다. 그런데 야쿠시마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사슴과 원숭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그 녀석들이 고구마 잎과 뿌리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 주민들이 고구마 농사를 꺼리게 됐다고 한다. 자연은 살아났지만 고구마 농사는 피해를 본 셈이다.

결국 부족한 양은 야쿠시마가 속한 가고시마 현의 비슷한 토양을 가진 땅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맛이 변했다는 얘기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고구마에 버금가는, 어쩌면 고구마보다 더 중요한 소주의 근간은 ‘물’이다.

“소주에 함유된 알코올은 보통 25도 정도예요. 즉 전체의 75%는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특히 일본에서는 소주를 그냥 마시기보다는 미즈와리[水割り; 술에 찬물을 섞는 것]나 오유와리[お湯割り; 술에 따뜻한 물을 섞는 것]로 마시기에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명수(名水) 100선(選)’ 중에서도 수위로 꼽히는 야쿠시마의 물은 소주를 만들기엔 더없이 훌륭한 자원이지요.”

2. 천 년 ‘야쿠스기’에 예술을 입히다

안보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2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케노우치 [竹之内] 공예점은 1970년 이래 야쿠스기 공예를 해오고 있다. 물론 일부러 별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권역 밖의 야쿠스기들이나 별목이 금지되기 전에 모아둔 야쿠스기를 이용한다.

“작업장 문을 연 것은 제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야쿠시마 동쪽에 있는 다네가시마[種子島]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러던 1970년에 이 섬으로 이주하면서 야쿠스기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그땐 일본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던 시기라 고급 공예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나무 다루는 기술이 좋았던 아버지에게 제격이었던 거죠.”

2대째 공예점을 운영하고 있는 타케노우치 토키하루[竹之内時春] 사장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였다. 야쿠스기 공예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두 형제를 큰 섬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일손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사실 저는 대도시로 나가고 싶었지만 워낙에 바쁜 시절이라 온 가족이 총동원되다시피 했어요. 물론 지금이야 가업을 이은 게 잘한 일이라 생각하죠.”

지금 야쿠스기 공예품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한번 침체된 경기는 언제 되살아날 지 기약이 없고, 재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30곳이 넘었던 야쿠스기 공예점은

2000년대 들어 20여 개로 줄었고 지금은 9개만 남았다.

“1970년대 들어 별목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재료 구하기가 힘들어진 건 야쿠시마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1993년 이후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쓰지 못하고 죽은 나무만 이용해야 했거든요. 요즘엔 죽은 나무도 마음대로 못 쓰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이 아닌 지역의 삼나무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품 가격도 덩달아 높아지고...”

하지만 상황이 힘들다 해도 열정까지 식은 것은 아니다. 가끔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 야쿠스기가 들어오면 장인들의 눈빛이 달라진다고 한다. 공예용으로 적합한 야쿠스기가 되기까지 필요한 생장 연도만 최소 800년, 또 건조에 3~10년이 걸리기에 한 순간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야쿠스기는 다른 나무나 수령 800년 미만의 고스기[小杉]에 비해 나이트가 촘촘하고 재질이 단단합니다. 하지만 무게는 가벼워서 공예에 맞춤형이지요. 기름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윤기가 많이 흐르고요. 야쿠스기만의 매력입니다.”

언제 상황이 악화될지 몰라 30여 년 전부터 재료를 구하기 시작해 앞으로 100년은 너끈히 쓰고도 남을 야쿠스기를 모아두었다는 타케노우치 씨. 창고에 쌓아둔 야쿠스기들을 쓰다듬는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래도록 함께 해온 가족을 바라보는 듯 다정했다.

미야노우라다케 트레킹에 필요한 옷과 장비

미야노우라다케 트레킹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장비를 들고 등반할 수 있는 체력, 그다음으로는 몸을 보호해 주고 힘이 덜 들게 도와주는 옷과 장비들이다. 높은 산을 트레킹할 때는 자연 속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성 제품을 골라야 한다. 쾌적하게 걸어야 자연을 즐기는 여유도 생기는 법이다. 2박 3일, 미야노우라다케를 오르며 사용했던 제품들과 함께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 구입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SINCE 1975
mont-bell
lighter & faster

사파리형 방수 재킷

비옷: 구석구석 완벽한 차단!

야쿠시마는 정말로 비가 많이 온다. 폭우가 쏟아지다가 금세 말짙한 하늘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몇 시간 혹은 며칠씩 반복되기도 한다. 산에서 갑자기 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옷은 필수. 특히 바람이 불면 비는 사방에서 덩비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후드는 머리 모양에 꼭 맞게, 소매도 단단히 조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방수천이 내장되어 있는 배낭이 아니라면 큰 비닐 봉지도 미리 준비하자.



Jack Wolfskin

플렉 쥘드 소프트셀

옷옷: ‘잘 마르는 것’이 핵심

옷옷을 고를 때는 가벼운지, 젖었을 때 빨리 마르는지를 살펴야 한다. 젖은 옷은 체온을 떨어트려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발산시키는 소재의 옷을 골라야 쾌적한 산행을 보장할 수 있다. 땀은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갈아입을 작정이 아니라면 피해야 한다. 걷다보면 더워지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조금 서늘한 정도로 입자. 봄이나 가을에는 흡수, 건조, 보습성을 두루 갖춘 긴팔 셔츠나 쥘백이 좋다. 여름에도 얇은 소재의 긴팔 셔츠가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SINCE 1975
mont-bell
lighter & faster

셀러 조디악 팬츠

바지: 움직일 때 다리가 조이지 않을 것

미야노우라다케에는 단차가 꽤 나는 나무 계단이 수시로 등장한다. 폭이 넓은 물웅덩이를 건너야 할 때도 있고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다리를 짚작 벌리거나, 로프를 잡고 바위를 올라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바지가 조여 오면 체력도 체력이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걷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따라서 바지는 입체 절개 디자인의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트레킹 팬츠를 선택하고, 제품을 구입할 때는 매장에서 꼭 입어 보고 이리저리 크게 움직이며 조이는 곳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SINCE 1975
mont-bell
lighter & faster

듀얼 맥스

신발: 땅에 딱 붙어야 한다

계곡, 젖은 나무, 진흙탕, 습지 등 미끄러운 곳이 많은 미야노우라다케에서는 무엇보다 접지력이 뛰어난 제품을 골라야 한다. 방수와 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제품이라면 더 좋다. 미드컷으로 발목까지 커버하는 신발이 안전하다. 특히 발목과 발등의 와이어 끈을 다이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몽벨의 듀얼 맥스는 편리할 뿐더러 개인 발 모양에 맞게 미세 조정이 가능해 착화감이 매우 뛰어나다.



Jack Wolfskin

어피니티 재킷

방한복: 한 벌로도 번덕스러운 날씨를 두루 커버할 수 있는 재킷을 준비하자

날씨가 번덕스러운 봄 산행에는 투습, 방풍, 방수 기능을 두루 갖춘 웨더 프로텍션 제품이 편리하다. One Jacket For Everything! 특히 산과 평지는 기온이 다르다. 늦봄이나 여름이라도 방한을 위해 계절과 산의 표고차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위에 약한지를 잘 따져야 한다. 시내와 비교하면 조몬스기는 약 8도, 미야노우라다케는 약 12도 기온이 낮다. 100m 올라가면 0.6도쯤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8월에도 미야노우라다케는 최저 기온이 10도가량이다.

바투라 40

배낭: 내 등 길이에 맞는 배낭인가?

식품, 음료, 여벌 옷 등 트레킹에 필요한 물품은 생각보다 많다. 좋은 배낭은 그 무게를 아껴와 등, 허리로 분산시켜 준다. 당일 복귀하는 산행이라면 25~30리터, 산장에서 잠을 잔다면 40~50리터가 적당하다.

배낭을 살 때는 메어보고 몸에 잘 맞는지 확인하며 골라야 한다. 특히 배낭이 자신의 등 길이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끈 조절도 스스로 하기 보다는 매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 때부터 몸에 딱 맞추는 게 좋다. 구석구석 수납 공간이 효율적으로 짜졌는지, 방수 커버가 내장되어 있는지, 가방을 멘 상태로도 쉽게 물건을 꺼낼 수 있는지도 잊지 말고 확인하자. 장시간 산행에는 등판이 메쉬 소재인 제품이 땀과 열기를 빠르게 배출해 준다.



SINCE 1975
mont-bell
light & fast

UL 슈퍼 스파이럴 다운허거, 에어 매트

침낭과 매트:기능을 갖추되 작고 가벼운 것

미야노우라다케에서 1박을 할 경우 무인산장에서
자야한다. 침낭은 기능과 더불어 작고 가벼운 동시에
갖은 세탁에도 끄덕없는지, 발수성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산 속은 기온이 곧잘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는 겨울용 침낭을, 여름에는 3계절용
침낭을 준비하는 게 좋다. 참고로, 배개는 여분의 옷이나
비옷 등을 둘둘 말아서 밀리지 않도록 침낭 안에 넣어
사용하고, 헤드 랜턴과 쿠마개는 머리 밑에 두자. 또
산장은 마루 바닥이 깔려 있어도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날 산행을 위해 피로를 남기지 않으려면
매트를 깔아 냉기를 차단하는 게 필수. 입으로 공기를
불어 넣는 에어 매트리는 가볍고 사용감도 좋다.



등에 메고 다녀야하는 배낭에 짐을 싸는 방법은 일반 여행 가방 싸는 것과는 다르다. 무거운 것은 어깨와 등에 가까운 쪽으로, 가벼운 것은 허리와 가방 앞쪽으로 넣고, 양말 하나 찾기 위해 한 가방을 뒤지지 않도록 용도별로 작은 주머니에 나눠서 담는 게 편리하다.



헤드 램턴: 멀리, 오래
비취주는 헤드 램턴은 야간
산행과 전기가 없는 산장에서
아주 요긴하다.



음식: 장기 산행 때는 가벼운
버너와 코펠을 준비해 한
끼라도 국물 있는 따뜻한
음식으로 든든하게 먹자.



등산 양말:
산행 때는 울 재질의 기능성
양말이 좋다. 면양말은 젖었을
때 잘 마르지 않고, 또 발목이
쉽게 쓸린다.



모자 :
걸다보면 저절로
땀이 나기 때문에 가볍고 잘
마르는 소재로 골라야 한다.
목 부분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모자라면 일석이조다.



스틱:
등산을 할 때는 양손을 자유롭게
비워두는 게 정석이다. 빈
물통도 손수건 한 장도 집일
뿐이다. 다만 스틱은 예외다.
스틱은 다리에 집중되는 체중을
팔로 분산시켜 장시간 산행에
유용하다. 초경량, 초강도여야
하며, 키에 맞게 단 조절을 할 수
있는 제품이 편리하다.



장갑 :
트레킹 도중에는 나뭇가지며 풀,
바위 등이것저것 짚을 일이 많아
손이 늘 분주하다. 자연을 직접
느끼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얇은 장갑만 하나 있어도 좀더
자신있게 걸을 수 있다. 장갑을
살 때는 착용한 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으로 고르자. 겨울이
아니라면 메쉬 소재 제품이 좋다.



구급 약품과 귀마개:
일회용 밴드, 테이프, 근육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보호대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구급 약품은 장시간 산행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종일 걷고 나면 평소 코를 골지 않던 사람도 코를 골게 된다. 귀마개는 20~40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자야하는 산장에서 숙면을 위한 필수품이다.

봄! 봄!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글: 김화성

천 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아직도하고있다.
소나무가지에 쉼 새없이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아, 보아라 보아라
아직도 천 년 전의 되풀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박재삼, 〈천년의 바람〉

봄 길은 어느 곳이든 다 좋다. 봄은 폭발이다. 폭죽이다. 길을 걸으면, 밭밀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린다. 다람쥐 부스럭거리는 소리, 곰 기지개 켜는 소리, 고슴도치 바늘 세우는 소리, 새벽 수탉 해치는 소리, 마루 밑 누렁이 밤새 뒤척이는 소리, 골목아이들 줄달음질치듯 봄밤 내내 함석지붕을 내달리는 바람소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 “저요! 저요!” 햇병아리들처럼 종종중 모두들 손을 들었다. 한 아이가 대답했다. “물어요!” 그러자 대부분 아이들이 “맞아요! 물어요!”라고 합창했다. 그러나 한 아이는 그게 아니란 듯 다시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힘차게 말했다. “봄! 봄이요!”

얼음호수가 찢엉 찢 금간
손바닥을 펴 보이자
수십 마리 오리들이 와글와글
엉터리 수상을 본다
걱정 말우
봄부터는 운수 풀리겠수
찌억 찢 얼음에 달라붙는
제 물갈퀴 발금의 시린 소망이겠지

반철환, 〈호수의 손금〉

정말 새 봄에는 운수가 풀릴까? 정녕코 개인이나 국가나 두루두루 만사형통 할까? 늘 그렇듯이 새 봄은 ‘천년 동안 하던 장난’을 또 다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풋! 사람 일생 기껏 해봐야 100여 년. 바람이 수십만 년 동안이나 소나무 간지럼 먹이는 속뜻을 어찌 헤아릴까? 감히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할 것인가?

그런데 있다. 도사님들이다. 오직 도사님들만이 ‘하늘을 보았다’고 큰소리친다. 봄이 되면 도사(道士)들이 우우우 일어난다. 산자락에 한겨울 숨죽이고 있다가, 봄이면 슬슬 돛자리를 깔기 시작한다. 착착 겨우내 닦았던 내공을 펴칠 채비를 한다. 자천타천 그러한 ‘지리산 도사’만 3천~5천 명이다. 무당은 전국에 20만~30만 명이다. 점집까지 포함하면 이 땅에 도사만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사는 자격증이 없다. 누구나 도사가 될 수 있다. 한 석 달 정도만 수업을 기르면 된다. 개량한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으면 더 할 나위 없다. 단, 침묵은 기본이다. 말하는 순간 ‘도의 기운’이 빠져나가 자칫하면 ‘뽀록’난다. 무당은 신이 들려야 무당이다. 인왕산 국사당, 계룡산 중악단, 대관령 국사성황당, 국민대 옆 굿당 약수암, 미아리 굿당 향천사 같은 곳에서 굿을 통해 신령과 만난다. 신을 불러 ‘신나게 (신이 나오게)’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 작두를 타며 놓고, 도굿대춤 보릿대춤 깨끼춤 등 온갖 막춤을 추며 질펀하게 논다. 그 옛날 시골 할머니들의 ‘관광버스 막춤’은 저리 가라다. 도사는 제법 논리적이다. 하지만 말들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그 말조차 어찌다 한번 툭 내딘지고는 그만이다. 무당은 신령의 대변인이다. 그냥 신의 말을 전할 뿐이다. 왜 그런지 자꾸 묻거나 토 달면 ‘부정 탄다’.

태초에 어느 곳이나 선지자는 있었다. 이 땅인들 예외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월정사의 그 유명한 탄허스님(呑虛 1913~1983)이 그 좋은 예다. 마침 올해는 탄허스님 탄생 100년이 되는 해이다. 정월대보름날이었던 지난 2월24일 (음력 1월15일)이 바로 그날이었다. 생전 탄허 스님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 역학, 노장철학 등 유불선에 두루 밝았다. 뭘 물어도 막히는 게 없었다. 평생 불교경전 연구와 번역에 헌신하다 돌아가셨다. 1975년 간행된 ‘신 화엄경 합론’이 좋은 예다. 번역한지 18년 만에 세상에 나온, 원고지 6만 2500장의 엄청난 분량의 책이다. 불가에서는 이를 ‘원효·의상대사 이래 최대의 불사’로 평가한다. 탄허 스님은 동양의 역학 원리로 앞날을 훤히 내다봤다. 개미 같은 미물도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알고 대피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앞날을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는 게 이 분 논리의 바탕이다. 실제 스님 자신이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전쟁 직전 오대산 상원사에서 경남 양산 통도사로 거처를 옮겼다. 1968년 울진무장공비 침투 한 달 전에는 번역 중이던 화엄경 원고를 월정사 암자에서 삼척 영은사로 거처를 옮겼다.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이 “왜 그러시느냐”고 법석을 떨었지만, 스님은 “곧 돌아온다”며 묵묵히 원고를 챙겼다. 나중에 월정사로 돌아와 보니 암자 주변은 정말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오대산으로 도주한 공비를 소탕하느라 수많은 참호가 파여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래지 않아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평화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문화가 전 세계의 귀감이 될뿐더러, 전 세계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중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주역 대가는 대산 김석진 선생(84)이다. 그의 스승 이달 선생(1889~1958) 또한 한국 전쟁을 미리 알고 피했던 선지자였다. 1949년, 이달 선생은 제자들에게 모든 논밭과 집을 팔아 돈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1950년 초봄 제자들과 그 가족 수백 명을 데리고 안면도로 들어갔다. 그곳엔 그들이 1년 이상 먹을 양식과 논밭 집이 준비되어 있었다. 전쟁 중이었는데도 신동하게 안면도는 아무런 탈이 없었다. 인민군조차 그곳을 비껴갔다. 이달 선생은 해방도 미리 알고 있었다. 1944년 일제가 부여 부소산에 신궁을 세우기 위해 터를 고르자 “네놈들은 상량식도 하기 전에 망할 것이다”라고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일본 경찰이 잡아다 취조했지만 다행히 미친 사람으로 간주되어 풀려났다. 이달 선생은 8.15해방 3~4개월 전부터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놓고 “야, 이놈아, 대한독립만세여! 너 그거 알아?”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때마다 일본 경찰에 잡혀갔지만 역시 미친 사람 취급받아 풀려나곤 했다. 그의 제자 김석진 선생의 이야기가 기대되는 이유다. 한국의 앞날에 대해선 그 역시 탄허 스님의 예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陽)의 시대가 가고, 음(陰)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하루로 보면 낮 오(吾)시가 지나 오후 미(未)시가 오니 이것을 주역에선 미래(未來) 혹은 후천(後天)이라고 한다. 양은 남자 임금이요 음은 여자 백성이다. 후천은 백성, 민주의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주역에서 ‘만물이 끝나고 만물이 시작하는(終萬物 始萬物)’ 동북방(艮方)의 땅이다. 한반도에서 그동안의 긴 역사가 매듭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왔다. 우리 민족이 세계 문화와 정신 문명을 이끌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 민족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돼 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뿌듯한 얘기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오천년 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무당들은 다짜고짜 말한다. ‘10년 뒤쯤 우리나라는 통일 된다.’ 그 이유는? ‘그거야 신령이 귀뜸해줘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전부다. 그런데 신통방통하게도 이게 학자들 이야기와 맞아 떨어진다.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남북통일은 2020~2025년 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보통 세 가지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쯤 되면 남북한 모두 한국전쟁 당사자들이 사라져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이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감정이 앞서지만, 전후세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이성적으로 통일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때 쯤 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쯤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2011년 720달러 추정). 3,000달러는 바로 ‘배고픔을 줄임’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 후에는 정치적 자유에 눈을 돌리게 된다. 북한 사람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진다는 뜻이다. 셋째, 통일의 변수인 중국의 입장은 남한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는 바, 남한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중국은 남한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따진다면 중국에게 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수백 배 중요한 나라가 됐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틀림없이 봄은 고집이 셀 거야 봄이란 글자를 잘 봐 뽕 달린 염소처럼 몸 위에 뽕 두 개 달았잖아

곽해룡, <봄>에서

그렇다. 봄은 발정 난 수캐다. 천방지축 별판을 쏘다니는 들개다. 시도 때도 없이 저절로 불끈불끈 샘솟는 ‘생명의 풀림’이다. 그래서 ‘봄’이란 글자는 머리에 뽕이 빼죽하니 두개가 돌아난다. 봄길은 휘발성이다. 아롱아롱 꼬불꼬불 아지랑이다. 봄길은 산과 들로 이어지지 않는다. 저마다의 가슴 속으로 땀줄처럼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불을 처치른다. 가슴에서 연기가 폴폴 난다. 거센 불길이 입, 귀, 코로 휘날 너울거린다. 13인의 아이가 막다른 골목을 질주한다. 봄은 그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태우고 나서야 비로소 사그라진다.

사람은 죽는 순간 몸무게가 정확히 21g 줄어든다. 똥똥한 사람, 빼빼마른 사람, 단 하나도 예외가 없다. 모두 똑같다. 고작 동전 5개의 무게. 그것은 ‘넋의 무게’일까. ‘신념의 무게’일까. 아니면 ‘사랑의 무게’일까. 나는 ‘자유의 무게’라고 믿는다. 영혼을 묶었던 쇠사슬의 무게. 비로소 영혼이 자유를 찾은 것이다. 중국 조선족 리삼월 시인은 노래한다. ‘(잡자리여!) 너의 신념 그 얼마나 굳으면/죽어서도 날개를 접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결코 그런 잡자리가 아니다. 잡자리 날개는 쇠사슬일 뿐이다.

봄길은 지도가 필요 없다. 지도를 쥐는 순간 갇힌다. 길을 잃어라. 그래야 봄길이다. 봄길에는 눈썹도 짐이 된다. 책을 덮어야 봄길이 보인다. 노비, 기생, 백정, 광대, 무당, 상여꾼, 승려, 불쟁이 (대장장이)처럼 그냥 걸어라. 오일장에서 국밥을 사먹어라. 간혹 ‘미안하다. 나 같은 게 살아서 오일장 장터에서 국밥을 다 먹는다.(고은)’며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을 것이다. 돈키호테 라만차의 사내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이길 수 없는 적과 맞서며, 건질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딸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을 따려고’ 허튼 짓을 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봄날은 간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늙으신 아버지 앞에서 몸을 부르르 떤 일 슬픈 어머니 곁을 떠나려 했던 일 한 여인을 끝끝내 사랑하지 못한 일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푸른 하늘을 향해 팔뚝질 했던 일 검검한 밤, 죽어서 외로운 부도를 향해 오줌발을 세웠던 일 한 여인을 끝끝내 떠나보지 못했던 일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누군가 떠나고 누군가 다시 돌아오는 이 터미널

이홍섭, <터미널5>



독자 의견에 당첨되신 다섯 분께는 LS네트웍스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의 배낭을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2012년 겨울호) <보보담> 가운데 안동 노승정 종택의 종쌀술을 다뤘던 기사 ‘퇴계의 정신, 어른의 시간을 음미하다’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49쪽과 52쪽에 나간 노승정 종택 종손의 성함을 ‘이창권’에서 ‘이창건’으로 바로 잡습니다. 노승정 종택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독자 의견

걷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자주 가는 Walk & Talk 라운지에서 <보보담>을 처음 보고 단박에 마음이 갔습니다. 좋은 장점과 알찬 내용에 눈을 땔 수가 없었어요. 몇 권 더 언어 여행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나눠주니 아주 고마워하네요. 읽고 버릴 수 없는 책이라 창간호부터 다 모았습니다. 시간 날 때 마다 좋은 내용들 다시 보고 있어요. 성의 있게 잘 만든 책이라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귀사의 발전과 앞으로도 <보보담>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연, 서울 강동구)

놀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책. 보통 정기간행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책이었습니다. <뿌리깊은나무>, <생이 깊은 물>이 생각났어요. 종이 하나까지 정성들인 책, 참 보관해 두고 싶은 한 권 한 권이었습니다. 처음 마음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오래오래 발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정)

팀장이 되었습니다! LS산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17년차, 올해 처음 팀장을 맡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늦은 편이지만 지금은 같은 사업부 내 20여 명 팀장 중에선 제가 막내입니다. 책상 위에 우편물이 있어 뜯어보니 <보보담>이더군요. ‘팀장이 되니 이런 것도 주는군.’ 하면서 한쪽으로 미뤄 놔다가 무심코 들켰는데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 한참 읽었습니다. 특히 <LIFE & BRANDS>에서 이지선 단장의 ‘삶도, 아웃도어도 도전이다’는 기사는 언젠가는 캐나다에서 ‘헬리스키’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꼭 제 맘 같더군요. 스키를 좋아해서 지금은 열한 살인 큰 아들과 함께 다닙니다. 조명 아래 쏟아지는 함박눈에 세상 일 잊어버리는 야간 스키…; 겨울이 오려면 멀었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윤귀중, 경기도 안양시)

덕분에 자출을 생각합니다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시간 돌고나면 상쾌하고 마음이 뽕 뚫립니다. 그런데 출근할 땐 엄두가 안 났어요. 도로 사정도 그렇고 타고 난 뒤의 땀 냄새며 구겨질 옷도 걱정되고요. 그런데 지난 호 <보보담>을 보니 자전거를 진짜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시더군요. ‘즐거운 불편’이란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송인혁 촬영 감독의 ‘아름답게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 멋집니다. 사실 지금도 망설여지지만 어쨌든 저도 곧 자출을 실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를 통해 길을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수겸, 대전 동구)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지인께서 <보보담> 내용이 좋다고 한번 신청해 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정말 보내줄까 싶었는데 작년 봄에 정말 책이 왔더군요. 광고가 잔뜩 담긴 사외보가 아니라서 더 좋았습니다. 여름에도 <보보담>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보보담>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 보단,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두 번으로도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왔고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집을 지나다가 우편함을 보니, 겨울호 <보보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이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좋더군요! 개인과 한 약속을 계속 지켜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혼자 읽고 두기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새로 생긴 도서관에 가져가 보려 합니다. 새로운 주소도 함께 동봉합니다. (손춘애, 강원도 인제군)



DUBAKOO 바이스클 갤러리는
LS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전시관으로,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자전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자전거 유물들을 매 시즌 20대씩
선별해 일반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람 안내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1-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와 연결
시간: 연중 무휴
문의: 02-799-7169



LS네트웍스

PROSPECS

WALK LIGHT LIVE BETTER

이 순간, W가 나를 가볍게 해

문득, 부담감이 밀려올 때
나는 가벼운 W를 신고 새벽거리를 걷는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노래를 무한반복하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즐기는 가야
이것이 김연아의 W TIME
www.prospecs.com



PROSPE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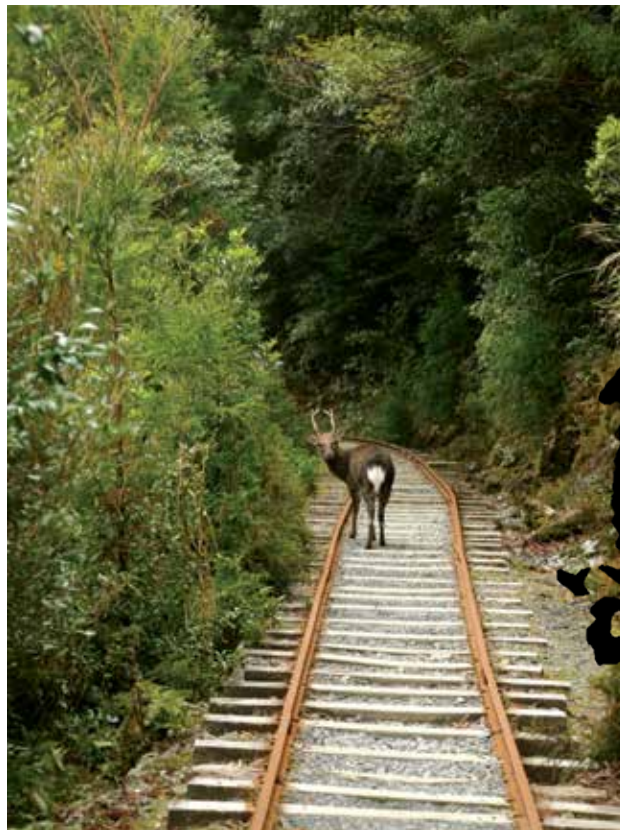




屋



久



島

LS Networks

140-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LS Yongsan Tower, 9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140-720